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A PLAN FOR FOUNDING A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AS A TYPE OF
YOUTH MINISTRY IN KOREA WITH A RATIONALE FOR
CHURCH-SPONSORED CHRISTIAN SCHOOLS**

한국 청소년 사역으로서의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 계획:
교회의 대안학교에 대한 논리적 근거 포함

A Thesis Project Submitted to
The Faculty of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in Candidacy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Chan Sik Park (박 찬 식)

Lynchburg, Virginia

May 2018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THESIS PROJECT APPROVAL SHEET

MENTOR

Dr. Sungtaek Kim
Director, Korean Ministries
Assistan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READER

Dr. Justin Yoojung Lee
Adjunc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ABSTRACT

A PLAN FOR FOUNDING A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AS A TYPE OF YOUTH MINISTRY IN KOREA WITH A RATIONALE FOR CHURCH-SPONSORED CHRISTIAN SCHOOLS

Chan Sik Park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8

Mentor: Dr. Sungtaek Kim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change of the prime age-centered traditional pastoral ministries present in Korean churches for the future generation-centered ministries. The researcher's church, too, has an inverted triangular structure under which the future generations disappear.

To overcome this, this study sets up a model of new growth for the future generations. The researcher analyzes and evaluates the cause of the problem of decreasing youth in Korean churches. The researcher will do mentoring work in the special environment of alternative schools so that the youth may have sound faith and not leave the church even after they proceed to post-secondary education. Layperson teachers will be trained and cultivated so that they have expertise in cooperative ministry as well as academic subjects. The researcher proposes a new solution for a church that grows healthily by investing funds and supporting personnel in youth ministry through an alternative school, attempting to change the inverted triangular structure of the church.

Abstract length: 159 words

ABSTRACT

초록

A PLAN FOR FOUNDING A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AS A TYPE OF YOUTH MINISTRY IN KOREA WITH A RATIONALE FOR CHURCH-SPONSORED CHRISTIAN SCHOOLS

한국 청소년 사역으로서의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 계획: 교회의 대안학교에 대한 논리적 근거 포함

Chan Sik Park (박 찬 식)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8

Mentor: Dr. Sungtaek Kim

본 논문은 오랫동안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진 장년 중심의 전통적 목회사역의 패러다임을 다음세대를 중심으로 바꾸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자의 교회도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역삼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안학교를 통해서 다음세대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세우려 한다. 연구자는 한국교회의 청소년들이 줄어드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대안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갖고 상급학교에 진학을 해서도 교회생활을 포기하지 않도록 멘토링 사역을 해갈 것이다. 평신도 교사들은 교과목만이 아닌 협력목회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로 훈련하여 세워갈 것이다. 연구자는 역삼각형의 교회 구조를 바꾸는데 대안학교를 통해 장년목회보다 청소년 목회를 위해서 재정과 인력을 투자하여 역삼각형의 교회구조를 바꾸는데 대안학교를 통한 청소년목회에 재정과 인력을 투자하고 지원함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초록 길이: 104 words

ACKNOWLEDGEMENTS

감사의 글

본 연구자가 목회학 박사과정에 입학하고 논문을 시작하여 완성하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본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점검해주시고 코칭해주신 존경하는 김성택 교수님과 탁월한 관찰력으로 조언해주신 이유정 교수님과 넉넉한 학자의 리더십으로 인도해주신 정태우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뜨거운 사랑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며 행정적으로 섬겨준 김형규 목사님과 이은규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완성을 위해서 도움을 준 조영환 목사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4년여 동안 기도해주신 찬양의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논문 프로그램을 도와주었던 박예지 선생과 정명선 선생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힘들어할 때 기도와 격려와 사랑으로 함께 해준 아내 구정남 사모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국 보스톤에서 목회자 사모의 길을 가고 있는 딸 새롬이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자의 길을 가기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아들 성령이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의 연구대상이 되는데 기꺼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기독교 교장 김신아 선생과 최대웅 교목 목사와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교감이며 교목이신 이혁재 목사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 크리스찬 스쿨의 설립자이신 유용국 목사께 감사드립니다. 자유기독교 교 이사장이신 배창돈 목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청소년 목회 회복이라는 부분에서 박사논문을 찾기 힘든 가운데 논문 자료 수집하는데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본 연구자가 박사학위 논문 완성분을 통해서 목회의 한 부분을 정리하고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논문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든 한국교회들의 다시 회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목회의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인사의 글을 전합니다.

CONTENTS

목차

ABSTRACT.....	iv
초록	
ACKNOWLEDGEMENTS.....	vi
감사의 글	
TABLES.....	xiv
표	
FIGURES.....	xv
그림	
ABBREVIATIONS.....	xvii
약어	
SUMMARY.....	xviii
요약	
CHAPTER 1: Introduction.....	1
제 1 장: 서론	
1. Purpose of the Study and Statement of the Problem.....	1
연구 목적과 문제 제기	
2. Scope and Limitation.....	7
연구 범위와 한계	
3. Theoretical Basis.....	8
이론적 근거	
4. Statement of Methodology.....	10
연구 방법에 대한 진술	
5. Review of Literature.....	11
문헌 검토	
CHAPTER 2: Understanding of Youth Ministry and Alternative Schools.....	20
제 2 장: 청소년사역과 대안학교에 대한 이해	
1. Understanding of Youth.....	20
청소년에 대한 이해	

1) Dictionary Definition.....	20
사전적 정의	
2) Understanding of Youth in the Bible.....	21
성경에 나타난 청소년에 대한 이해	
3) Youth Education in the Bible	28
성경에 나타난 청소년 교육	
2. Understanding from Developmental Psychology	36
발달 심리학적 이해	
1) Youth with Physical Development	36
신체적 발달의 청소년	
2) Youth with Intellectual Development.....	37
지적 발달의 청소년	
3) Youth with Emotional Development	38
정서적 발달의 청소년	
4) Youth with Self-identity Development.....	38
자아정체성 발달의 청소년	
3. Understanding of Alternative School Education from Church History.....	39
대안학교 교육의 교회사적 이해	
1) Understanding of Foreign Alternative Schools	39
외국 대안학교 이해	
2) Understanding of Korean Alternative Schools from Church History	43
한국의 대안학교 교회사적 이해	
4. The Necessity of Alternative Education	46
대안교육의 필요	
1) History of Alternative Education.....	46
대안교육의 역사	
2) Types of Alternative Education	50
대안교육의 형태	
5. Alternative Education as Christian Education	55
기독교 교육으로서의 대안교육	

1) Details of Alternative Education	56
대안교육의 내용	
2) Curriculum for Alternative Education	56
대안교육의 과정	
3) Educational System of Alternative Education	58
대안교육의 교육체계	
6. Sub-conclusion.....	60
소결론	
CHAPTER 3: Case Studies on Church Growth through Establishing Alternative Schools.....	61
제 3 장: 대안학교 설립을 통한 교회성장 사례 연구	
1. Uri Christian School of Wa-uri Church	62
와우리교회의 우리기독교학교	
1) General Situation	62
일반적인 현황	
2) Objectives of Education.....	63
교육 목표	
3) Details of Education	66
교육 내용	
4)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69
교육 특성	
5) Analysis of Uri Christian School.....	70
우리기독교학교 분석	
6) Impact of Uri Christian School on the Growth of Wa-uri Church	71
우리기독교학교가 와우리교회의 성장에 미친 영향	
2. Grace Garden Christian School of Grace Garden Church.....	72
은혜의동산교회의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1) General Situation	72
일반적인 현황	
2) Objectives of Education.....	74
교육 목표	

3)	Details of Education	75
	교육 내용	
4)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76
	교육 특성	
5)	Analysis of Grace Garden Christian School.....	78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분석	
6)	Impact of Grace Garden Christian School on the Growth of Grace Garden Church.....	79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가 은혜의동산교회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3.	Korean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of Hanyoung Church.....	81
	한영교회의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1)	General Situation	81
	일반적인 현황	
2)	Objectives of Education.....	82
	교육 목표	
3)	Details of Education	83
	교육 내용	
4)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84
	교육 특성	
5)	Analysis of Korean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84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분석	
6)	Impact of Korean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on the Growth of Hanyoung Church.....	85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이 한영교회의 성장에 미친 영향	
4.	Freedom Christian School of Daekwang Church	86
	대광교회의 자유기독교학교	
1)	General Situation	86
	일반적인 현황	
2)	Objectives of Education.....	87
	교육 목표	
3)	Details of Education	87
	교육 내용	

4)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88
교육 특성	
5) Analysis of Freedom Christian School.....	89
자유기독교학교 분석	
6) Impact of Freedom Christian School on the Growth of Daekwang Church.....	90
자유기독교학교가 대광교회의 성장에 미친 영향	
5. Sub-conclusion.....	90
소결론	
CHAPTER 4: Survey Research for Youth Ministry through Alternative Schools.....	92
제 4 장: 대안학교를 통한 청소년 목회를 위한 설문 연구	
1. Purpose and Procedure of the Survey.....	92
설문의 목적과 절차	
1) Purpose of the Survey.....	92
설문의 목적	
2) Participants	92
참가자	
3) Procedure and Method of the Survey	92
설문 절차와 방법	
4)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Survey	92
설문 구성과 내용	
2. Results of the Survey	93
설문 결과	
3.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Survey	109
설문결과 분석	
1) Cross-tabulation of Experience of Youth Ministry and Youth Ministry through Alternative Schools.....	109
청소년 사역 경험과 대안학교를 통한 청소년 목회에 대한 교차분석	
2) Cross-tabulation of Position in the Church and Youth Ministry through Alternative Schools.....	109
교회 내 위치와 대안학교를 통한 청소년 목회에 대한 교차분석	

3) Cross-tabulation of the Service Years in the Church and Youth Ministry through Alternative Schools.....	110
교회 시무 연한과 대안학교를 통한 청소년 목회에 대한 교차분석	
4) Cross-tabulation of the Age of the Pastor and Youth Ministry through Alternative Schools.....	110
목회자의 연령과 대안학교를 통한 청소년 목회에 대한 교차분석	
4. Sub-conclusion.....	110
소결론	
CHAPTER 5: Plan for Founding an Alternative School as a Youth Ministry	112
제 5 장: 청소년 목회로서의 대안학교 설립방안	
1. Preparation for Founding King's Christian School	112
킹스 기독교 학교 설립 준비	
1) Process of the Preparation of the Foundation of the School.....	112
학교설립 준비의 과정	
2) Purchase of the Site for the School.....	113
학교부지 매입	
3) Surrounding Environments of the School.....	114
학교의 주변환경	
2. Background of the Foundation of King's Christian School and Ideology of Education	114
킹스 기독교 학교 설립배경과 교육이념	
1) Ground of Educational Philosophy.....	114
교육적 철학 기저	
2) Precept of King's Christian School.....	115
킹스 기독교 학교의 교훈	
3) Status of Education in King's Christian School.....	116
킹스 기독교 학교의 교육현황	
3. Operation and Practice of King's Christian School	118
킹스 기독교 학교의 운영과 실제	
1) Curriculum for Each Grade	118
각 학년의 교육과정	

2) Homeschooling Education by Parents	123
부모에 의한 홈스쿨링 교육	
4. Role of a Teacher in King's Christian School	125
킹스 기독교의 교사역할	
1) Teacher as a Person with Calling.....	125
소명자로서의 교사	
2) Training Method for Christian Teachers	126
기독교 교사로서의 연수 방법	
5. Membership of Youth Church in King's Church	127
킹스 처치 청소년교회의 멤버십	
1) Youth Membership	127
청소년 멤버십	
2) Membership as Teachers in the Youth Church.....	128
청소년 교회의 교사들로서의 멤버십	
3) Membership of Adults in the Youth Church	128
청소년교회의 장년 멤버십	
6. Sub-conclusion.....	129
소결론	
CHAPTER 6: Conclusion	131
제 6 장: 결론	
Appendix A	135
부록A	
Bibliography	139
참고자료	
IRB Approval	148
IRB 승인	

TABLES
표

표 1. 우리기독교학교 인원 현황	63
표 2. 우리기독교학교 시설 현황	63
표 3.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인원 현황	73
표 4.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시설 현황	73
표 5.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초등 영성교육 편성표	75
표 6. 킹스 기독교학교 인원 현황.....	117
표 7. 킹스 기독교학교 시설 현황.....	117
표 8. 킹스 기독교학교 학생교육 이수단위 편성표.....	120
표 9. 킹스 기독교학교 기독교교육 교과과정	122

FIGURES
그림

그림 1. 성별	93
그림 2. 연령	94
그림 3. 목사연한	94
그림 4. 교회 위치	95
그림 5. 교회 내 위치	95
그림 6. 시무 연한	96
그림 7. 소속 교단	96
그림 8. 청소년 생활	97
그림 9. 청소년 회복 정책	97
그림 10. 부서의 구조 확인 경험	98
그림 11. 청소년 사역 경험	98
그림 12. 청소년 사역 과정	99
그림 13. 청소년 사역 기간	99
그림 14. 과거 청소년 사역 규모	100
그림 15. 현재 청소년 사역 규모	100
그림 16. 목회 형태	101
그림 17. 청소년 중심 사역	101
그림 18. 대안학교 필요에 대한 인식	102
그림 19. 청소년 목회에 대한 인식	102
그림 20. 청소년 분리 목회	103
그림 21. 전문화된 청소년 독립 사역	104
그림 22. 청소년 담임목회자 연령	105

그림 23. 청소년 목회자 교육 경험	105
그림 24. 청소년 목회자 교육 내용	106
그림 25. 청소년 목회 역량	107
그림 26. 청소년 목회 리더십	108
그림 27.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생각	108

ABBREVIATIONS

약어

QT	Quiet Time
UN	United Natione
CCC	Campus Crusade for Christ
NIV	New International Veraion
IMF	Intemationnal Monetary Fund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Looking squarely at future generations in the present Korean church, the researcher came to investigate alternative schools as a new means for trying to recover future generations, identifying the causes of the crisis of recession following the remarkable growth of the Korean church. This study will investigate statistical data, professional books, periodicals, and research presentations materials as well as surveys distributed by national organizations and completed by incumbent senior pastors, assistant pastors, and their wives in order to sum up the churches that achieved growth by founding an alternative school.

The researcher lays down a theological foundation of Christian education and ecclesiology. God created the world through His Word. By revealing that next generations can grow healthily in church communities and by learning about God's Word from the Christian perspective through an alternative school education, this study proposes a new paradigm of alternative schools for youth ministry in the Korean church.

This thesis explains the research purpose and method; it examines definitions, biblical basis, and historical background to establish an understanding of youths and alternative schools; it investigates the churches that experienced church growth by providing Christian education through alternative schools; it analyzes the results of a survey about youth ministry and alternative schools answered by incumbent senior pastors, assistant pastors, and their wives; it proposes a model for church growth through alternative schools for future generations; and it reviews the overall content of the study and the next step for the future.

CHAPTER 2

UNDERSTANDING OF YOUTH AND ALTERNATIVE SCHOOLS

Chapter 2 deals with the definition of youth, the alternative schools found in the Bible and church history, and the church growth through those schools. Adolescence is the period starting from 11-13 years of age through 18-20 years of age when a person's ability to think and self-identity are formed. Society refers to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s youths. The term *youth* is a phenomenon of physical, intellectual,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which also means "to grow up" or "to grow to maturity."

There are various biblical understandings of youth in the Old Testament. When described in a negative light, youth are likely to be carried away by their feelings (Genesis 34:19-31). They have a poor sense of surrounding situations (Genesis 37:5-11). They are likely to be self-indulgent despite being taught otherwise (Proverbs 29:15). In a positive light, youth have rich emotions and are tender (Judges 8:20). They get wisdom and understanding through discipline and knowledge (Daniel 1:17). The New Testament says that youth become mature through education and are affected by the visible (1 Timothy 5:4; 2 Timothy 1:5).

As for the foundation of alternative Christian schools in Korean church history, modern education through Christianity began with the establishment of Paichai Hakdang by Missionary Appenzeller in Seoul on August 3, 1885. The name Paichai was given by King Gojong, the King of Joseon. Missionary Mary Scranton started a fire for the enhancement of the status of women by allowing them to be educated. She founded Ewha Hakdang in Jeong-dong in order to educate women on May 30, 1886.

In 1905, there were 138 alternative primary schools operated by Presbyterian churches throughout Korea. From 1905 to 1906, the numbers rose from 138 schools serving 2,730 students to 238 schools serving 5,124 students. By 1907, the number of schools had risen to 405, and the number of students rose to 8,615. The movement for education through the Christian perspective has also risen sharply from the 1980s. The movement started through the founding of ‘Disciples with Evangelical Worldview’ in 1981, and the foundation of alternative Christian schools has exploded since 1996.

Character Education Act, specifically Article 9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nacted in February 1998, was the first law that allowed the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schools. The legislation was made to permit the establishment of character-building high schools that could provide ‘experience-centered education.’ Following this law, in 1998, six schools focusing on character were established. Later, in March 2005, the Act on ‘Alternative School’ passed. Clause 3, Article 60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pertains to such schools in this thesis. Since the 2000s, alternative schools have been founded in earnest. There are about 500 alternative schools that began as of 2017. Of them, there are 32 unauthorized alternative schools and 22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Interestingly, the church is the principal agent that founds most of the alternative Christian schools.

CHAPTER 3

CASE STUDIES ON CHURCH GROWTH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SCHOOLS

Chapter 3 argues that alternative schools is a method for future generations in the church through an examination of three churches that founded alternative schools and one church that was founded by a school. These churches experienced both church and youth growth.

Man-gyu Park, the founder of Uri Christian School, opened an elementary school that pursues four goals: whole character, excellence, Christian distinctiveness, and convergence. It aims at conducting a well-round integrated education in which faith and life are consistent during adolescence. Park wants to train up influential students who will be the salt and light of the world through exceptional social impact as they follow God's vision. The components of Uri Christian School's education are a Christian worldview, holistic integration, global talent, and multidisciplinary consensus. Uri Christian School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overall growth of the church as an influential body in the local community.

Kyu-hyeon Lee, the founder of Grace Garden Christian School (GGCS), provides elementary through high school education through church facilities. The objectives of Grace Garden Christian School are three-fold: the declaration of God's Kingdom, faith community orientation, and a holistic integrated curriculum. Through these objectives, GGCS provides a balanced education. Students experience the balance and harmony of faith through learning; they learn by spiritual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retreats, community service, and global volunteering. GGCS continuously has amazing growth; the school staff are devoted to the

ministry. Since its establishment 10 years ago in 2008, GGCS has helped its affiliated church double its numbers.

Yong-guk Yoo founded Korea Christian School, an international school that teaches all classes in English in order to send students to English-speaking countries. Korean Christian School's five education objectives are to make students true followers of God, to transform them into righteous leaders, to have the minds filled with good thoughts that dwell on beautiful things, and to teach health and wisdom to make students global leaders. As students from Korea Christian School advanced to high-ranking colleges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it came to be trusted by parents. The church within the school is unique in that it was founded by the suggestion of some who wanted to establish a church within a school, rather than a school within a church. It is a church that is continuously growing.

Chang-don Bae, who founded Freedom Christian School, aims to create a small elite school, prioritizing the children of devoted church members. Its education objectives are to train students to surrender themselves to the Bible's authority, cultivate creative talent, raise students with godly character, educate leaders who will change the world, and help students discover their vision through God's will. General education subjects are also taught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Pyeongtaek Daekwang Church, the church that operates Freedom Christian School, is becoming a large church with remarkable growth.

King's Church will establish an alternative school called King's Christian School, having a youth ministry at its center. The researcher will build the school that will provide the growth to the church through the growth of the school. The school will become the platform of youth ministry.

CHAPTER 4

SURVEY RESEARCH FOR YOUTH MINISTRY THROUGH ALTERNATIVE SCHOOLS

This survey aims to propose a way forward that understands the reality of the youth. The 35 participants were incumbent ministers and their wives residing in cities in the South Gyeonggi Province, such as Suwon, Yongin, Hwaseong, and Pyeongtaek. The survey consisted of 27 questions and was conducted for 30 minutes during a ministers' retreat.

The majority of the survey participants were ministers or their wives in their 50s who led a church for more than 20 years. They had rich experiences as youth evangelists or assistant youth pastors before becoming in charge of a church. Especially since they are incumbent senior pastors, they are concerned about the youth group due to difficulties in human resources and finances. Most of the minister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have difficulty dealing with the youth.

About 91.6% of the participants were male and only 3.1% were female. As for the participants' ages, 6.3% were in their 40s, 34.4% were in their 50s, 50% were in their 60s, and 9.5% were in their 70s. Most of the female participants were the wives of the pastors. Also, 50% of the participants were in their 60s because those in their 40s and 50s could not attend the retreat due to autumn ministry programs.

A total of 68.8% of the participants had more than 21 years of ministry experience since their ordainment, 21.9% had 16-20 years of experience, and 6.3% had 11-15 years of experience. As for their ministry locations, 31.3% had ministries in a small and medium-sized city, 31.3% in a metropolis, 18.8% in a farming and fishing village, and 18.8% in a town or village. Of those surveyed, 87.5% were senior pastors, and 12.5% were retired pastors or wives.

When asked, “How i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youth in the Korean church?”, 71.9% responded, “It is a very difficult situation.” An additional 25% responded, “It is difficult but normal,” and 3.1% responded, “It is not serious.” When asked, “Does your church have a policy for the recovery of youth group?”, 59.4% responded, “We hold up the status quo.” An additional 21.9% responded, “We do not have any plan,” and 18.8% responded, “We give it up.” When asked about the size of the youth group in their respective churches, 59.4% responded, “It is fewer than 10 persons”; 21.9%, “11-20 persons”; 12.5%, “21-30 persons”; and 3.1%, “31-50 persons.” For the question asking, “Is your current ministry centered around the prime-aged members?”, 78.1% responded, “It is centered around the prime-aged members,” and 21.9% responded, “It is centered around the youth.”

When asked, “Have you thought about the need for a new approach through an alternative school or study room for youth ministry?”, 59.4% responded, “We give it up due to lack of funds and human resources,” while 15.6% said, “We gave it up due to the lack of passion,” and 25% responded, “We gave up due to inconvenience.” Another question directly asked, “Have you ever thought about building youth ministry through the foundation of an alternative school?”, 46.9% wished to start an alternative school if given a chance, 34.5% had thought about it, 15.6% gave up due to a lack of funds, and 3.1% were operating schools currently.

This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 ministers who had been in ministry for more than 21 years on average. As for the recovery of the youth in general, 71.9% were skeptical, but 46.9% of the participants were open to the recovery of the youth group through an alternative school. This shows that they were very positive about the alternative school method.

CHAPTER 5

PLAN FOR FOUNDING AN ALTERNATIVE SCHOOL AS A YOUTH MINISTRY

Through the survey analysis, the researcher, who was preparing the foundation of an alternative school for the revitalization of youth ministry, became certain that an alternative school would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youth ministry.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King's Christian School, the alternative school planned by the researcher, is to create a community that educates and trains youth by the Word, showing unity through faith. King's Christian School aims to realize God's Kingdom by educating and training based on the Bible; instituting a valuable education that allows students to enjoy righteousness, joy, and peace in Holy Spirit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forming a community through an organic association of churches, schools, and homes; achieving a balanced growth of Christians through a holistic integration curriculum; making students worshipers be in awe of God; assisting students resemble Christ; and helping them become creative visionaries. Ideally, the youth will make the most of their lives through belief and obedience to the purpose of God's creation and devote themselves to a life of God's glory as people who enjoy the God's grace.

King's Christian School, which will consist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will compel students to meditate on the Word each morning. The students will have quiet time at the same time every day. They will have general education classes, Bible classes, after-school study time, learning among the peers, reading, and field trips. At the beginning and end of each semester, there will be a spiritual retreat where everyone can meet the Holy Spirit, effecting lives that realize God's Kingdom through the Word.

The school will aim to motivate students to grow first in faith. Paren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teach their children through a homeschooling program in which parents can teach Christian subjects at home for school credit. Parental education will be provided by the teachers of each subject.

A teacher's role in school is extremely important. The responsibilities of teachers are the same as those of a full-time minister because students should be taught Christian subjects in addition to general education subjects. Teachers' roles are very important for educating parents about homeschooling as well as in the youth-centered church in King's Church as they should spiritually care for and serve students. Of course, lecturers also play a great role by assisting teachers, but teachers should fill the main role. Yet, not many teachers are ready to do so? The school must constantly provide workshops to train and educate teachers. Employees of an educational institution understand and believe in the value of education more than anyone else, and teachers become teachers through education. Teachers can experience growth by becoming a power source of school and church growth.

CHAPTER 6

CONCLUSION

The researcher determines that since the youth have social structural problems that cannot be recovered by only slogans and passion, there will be an opportunity to recover future generations only when a new structure is made attractive by changing the problematic structure. The sacrifice of people who pray and have a vision is needed to do so. If youth are taught with a good Bible program as priority, they are able to follow this priority all the way through; on the other hand, if the situation, environment, and conditions do not support this learning, even those who want to learn the Bible cannot. The environment, conditions, and situation are criticized and reproached, so youth in the church give up their faith and church life in the process. This phenomenon of breaking away from the church is so serious in that it began with the children of senior pastors and other church leaders.

As observed through the survey, it is necessary to bear in mind that 82% of incumbent senior pastors would like to establish an alternative school as an alternative to youth ministry. The desire to overcome the challenges of Korean churches is real. The researcher offers an alternative Christian school as a form of youth ministry. Korean churches face many challenges as earlier listed in this thesis. The researcher hopes that the thesis may make positive contributions to growing Korean churches.

제 1 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문제 제기

1832년 이후 한국에 선교가 시작된 이래 탄압과 고통들을 극복하고 1960, 70, 80년대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경이로운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후 1980년대 후반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양적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정체가 나타나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대 들어선 한국은 인구감소와 더불어서 기독교는 본격적인 감소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은 장년부에도 그러했으나 특별히 청소년들과 청년 대학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¹

한국교회들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목회대상으로 다음세대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면서 다음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세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이유는 이전에는 한국교회의 통계가 없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음세대에 대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개 교회만이 아닌 한국 기독교 전체를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통계 가운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음세대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² 다음세대가 없다는 것은 현재의 교회가 존재하다가 다음세대에 이르게 될 때 수직 절벽이 되는 현상으로써 자연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 안에 다음세대가 감소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음세대를 위해 전적인 재정,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유년부와 중·고등부 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기타 예비비에서 필요하다는 재정청원이 있게 되면 즉흥적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들은 청소년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만드는 또 한가지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1) (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2015 10대 이슈 및 사회의식조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6), 324.

2) 박상진, “어떤 기독교학교를 세울 것인가,” 「목회와 신학」, 311호(2015): 42.

둘째, 청소년들을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기는 어렵다. 다음세대가 줄어드는 교회들이 늘어나는 이유 가운데는 어린이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에 속한 자녀를 둔 가정에서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맞다.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과 중·고등부와 청년 대학부에 속한 대부분의 자녀들이 교회내의 장년부에 출석하는 제직들과 중직자들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가정에서 가부장적인 전통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까지 그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교회생활도 가정에서와 같이 통제되고 따를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부모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게 된지 이미 오래다. 교회의 청소년 청년 대학부에 속한 자녀들이 대부분 교회에 출석하는 장년부의 자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그들은 부모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의 결과가 현재 역삼각형의 교회, 다음세대가 없는 현상에 일조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제직과 장로의 자녀들은 물론 담임목사의 자녀들까지도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또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자녀들을 부모들이 통제하거나 또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넘어서 있다. 이런 현실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목회자들은 예측하지 못하고 간과한 측면이 짙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이다.³

셋째, 출산율 저하로 인한 다음세대가 줄어든다. 다음세대의 위기가 단순히 개 교회만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구감소가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08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보건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세계 193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1.19명이라고 발표하였다.⁴ 세계평균 2.54명인데 비해서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선진국들도 평균 1.64명인데 여기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예측에 따르면 2008년 4800만 명이던 인구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3천만 명, 2250년에는 500만 명으로 감소되게 된다.⁵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에

3) 구제홍·전경호, “부모는 자녀의 영적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와 신학」 251호(2010): 99-102.

4) 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자녀의 수를 말한다.

5) 이원규, “출산율 하락과 교회신앙의 전수,” 「목회와 신학」 251호(2010): 46.

기독교 인구가 전체적으로 15 만 명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34 세 이하의 청년 기독교 인구가 약 60 만 명이 감소했다는 통계청의 보고가 있었으며 평균 감소율의 4 배에 이르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⁶

2014 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단산하 전국 8,383 개 교회 중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을 넘어서 4 천 2 백 교회라고 발표하였다. 이뿐 아니라 한국대학생선교회(CCC)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한국교회의 청소년 복음화율은 불과 3.8 퍼센트로, 미전도 종족 규정기준인 복음화율 5 퍼센트와 비교할 경우 한국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에 포함된다고 했다.⁷

연구자가 속한 2015 년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신) 제 100 회 총회 회의절차 및 보고서 가운데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를 통계 내었을 때 전체 905 교회 중,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905 교회중 145 개교회, 중 고등부가 없는 교회는 201 개 교회였다. 어린이 주일학교는 905 교회중 10 명 이하인 교회가 373 개였으며 중 고등부 905 교회 중 10 명 이하인 교회는 423 개 교회였다.⁸ 향후 성장하기 보다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10 명 이하까지 통계를 내보면 중 고등부는 905 교회 가운데 624 개 교회가 된다. 어린이 주일학교는 905 교회 중 518 개 교회가 된다. 이는 다음세대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들이 없는 한 현저하게 계속되는 마이너스성장을 눈을 뜨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현재의 목회자들이 생을 다하기 전에 한국교회 절반이 심각한 쇠퇴의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넷째, 다음세대를 위한 청소년 목회를 이해해야 한다.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 대학부가 목회대상으로 차지하는 영향은 과거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런 이유가 이런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3 년에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 발표한 「한국 기독교 분석리포트」에서 교회 최초 출석 시기에 대한 발표를 보면 모태신앙으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경우는 7.1%, 초등학교

6) 고석환, 김형국, “청년 선교, 교회의 본질 회복에 달렸다,” 「목회와 신학」, 278호(2012): 24.

7) 기독교연합신문, “청소년 회복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인터넷자료]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2&sc_sub_section_code=S2N8&view_type=sm
 2016년 8월 14일 접속.

8)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 100회 총회절차 및 보고서」, 2015년 10월, 59.

또는 그 이하 6.1%, 중학교 4.8%, 고등학교 6.2%, 대학교 4.7%, 학교 졸업 후 결혼 전 7.2%, 결혼 후 63.8%로 나타났다.⁹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통적인 목회 대상은 장년이라는 인식으로 일관해 왔다. 이는 역설적으로 전도하는 대상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아닌 결혼한 장년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통계청에서 시행한 인구 주택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기독교인수가 대략 870만 명 정도였다. 전문가들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870만 명 중 150-200만 명은 이단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진성 기독교인들은 2005년 기준으로 620만에서 720만 명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라는 것이다. 최윤식은 2060년경의 순수한 진성 기독교인은 300만명 대로 감소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2060년까지 기독교 총인구의 변화 중에서 현재의 어린이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앞으로 40년 후에는 50-60세의 나이가 되는데 이 세대를 예측한 것이다.¹⁰ 이는 지금까지의 감소 추세를 통해서 예측한 것일 뿐 기독교 인구의 감소는 통계 그 이상으로 더 빨라져 많은 폭의 감소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다음세대가 감소하는 이유는 사회 급변으로 인해서다. 이원규에 의하면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와 더불어 감소를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 어떤 국가보다도 사회적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1960-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업화는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사회는 정치와 경제적으로 변혁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1960년에서 70년대를 거친 오랜 독재정권에 의한 억압으로 인해서 경직되었던 사회와 교육의 현장에 젊은 청년들은 자유를 갈구하는데 합목적성을 갖게 되었다. 독재에 대한 저항은 1980년대 들어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더욱 거세지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됨으로 이념적인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면서 사회적인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다. 그러나 경제로 인한 국가부도인 IMF로 들어가게 됨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급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사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미치는 파장이 크게 다가왔다.¹¹

9)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 분석리포트」 (서울: 도서출판 URD, 2013), 132.

10)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41.

11) 이원규,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서울: KMC, 2010), 166-7.

1988년 올림픽 이후 나타나게 된 사회적 현상은 다원화였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는 독재정권으로 인해서 사회를 통제하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는 이념적인 탄압을 하였다. 모든 매스미디어를 통제하여 독재정권만을 위한 뉴스 이외 국민들의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로 다루었다. 그렇게 하여 사회적인 이슈들을 최소화하고 독재정치만 최대화하여 편협하게 한쪽만을 생각하고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억압된 사회현상이 한꺼번에 붓물 터지듯 터져 나오게 된 것이다. 사회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종교계는 각 종파대로, 정치권이면 정치권대로 시민 사회단체는 단체대로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통제가 풀려진 상태에서 한풀이하듯 나타나게 되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다원화된 사회현상들 가운데도 옳은 것을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 기독교라고 하는 분명하고 성역화되었던 경계까지 와해되어 버렸다. 기독교내에서도 종교 다원화라고 하는 사회현상이 걸리지 않고 그대로 반영되었고 기준이 되었으며 기독교 고유의 것들이 훼손되어 예배에 대한 다양화 신학의 다양화 교회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절대적인 가치인 것처럼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들어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사회현상이 그대로 기독교내에 나타나고 있는 다원화는 절대 진리를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랑에 의한 봉사과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 기독교의 소명처럼 생각하고 감당해왔던 사회사업들인 학교, 병원, 장애기관, 보육원, 양로원, 고아원 등이 교회의 주도하에 순수한 목적으로 세워졌고 교회의 재정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기관들에 타 종교들이 가세하게 되고 세속적인 기관들이나 또는 국가기관이 가세하게 됨으로 교회들의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되었다.¹²⁾ 이뿐 아니라 물량주의는 개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물질을 최고의 가치에 두게 됨으로 인해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잃게 된 것이다.

여섯째, 개 교회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성장주의 때문이다. 메가 처치(mega-church)와 스몰 처치(small-church)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데 극심한 이기주의가 성장하는 교회와 그 반대에 있는 성장이 정체되었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극명해진 개 교회주의로

12) Ibid, 174-6.

인해서 비롯되는 문제가 지역사회에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신도시에 소재한 교회들에게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신도시 목회는 여러 지역에서 기거하는 사람들이 신도시화가 되는 곳으로 이주하게 됨으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우선대상으로 해서 전도가 아닌 수평이동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각 개 교회들이 치열한 유치 전쟁에 나선다. 수평이동을 통한 교회성장의 방법 가운데 메가 처치들은 예배당을 건축하고 탁월한 교회의 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소비자로서 교회에 나올 것을 드러내놓고 선전한다. 그와 반대로 스몰 처치는 메가 처치들과 같이 보여지고 나누어주고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음으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된다. 또한 그런 이면에는 밝힐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전도현장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들을 불신자들이 보고 지탄을 하게 된다. 1기 신도시¹³가 들어설 때는 전도현장에서 교회들끼리 다투는 현상들이 빈번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후에 우후죽순처럼 개발된 신도시들의 전도현장에서는 도덕과 윤리가 상실된 전쟁터와 같은 현상이 된지 오래되었다. 이윤을 추구하는 세상기업들에게도 윤리경영을 요구하는 시대에 교회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의 눈에는 ‘기업 정도의 윤리를 가지고 있거나 하나’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기독교 내부의 문제들인 정체나 또는 마이너스 성장의 이면에는 스스로 자초한 결과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일곱째, 사교육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 중에 심각한 이유는 공교육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학교 이외에 학원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경제상태에 따라서 고액과외를 받게 됨으로 더 좋은 학교로, 반대급부적으로 부모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평범하거나 그렇지 않은 학원을 선택하여 과외를 받다가 보면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거둘 수 없게된다. 이러한 학원문화로 인해서 학교가 끝이 나면 학원차량들이 교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학원소속 학생들을 태우고 학원으로 데려감으로 인해서 학원가에는 새벽시간까지 학원 버스들의 주차공간이 없어 차도를

13) 1기 신도시란 1990년대에 만들어진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근교 즉 분당과 일산, 평촌, 용인을 말한다.

점령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교회생활을 충실하게 감당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환경이 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교육적, 시대적, 학문적, 기독교내의 문제로 인해 나타나게 된 문제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대안학교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은 물론 영적 성장을 도우려 하고 있다. 학교 부지를 구입하고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에 있다. 물론 관계 교육구청의 학교 법인은 득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현재 대안학교 연합회와 더불어 무인가로도 시작하길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 물론 대안학교연합회원 소속의 학교들 가운데 학교인허가를 득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 가지는 학교를 인가받게 되면 커리큘럼을 교육구청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갖추고도 인허가를 받지 않는 학교들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시설은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연구자는 인허가를 득했을 때 따라오는 커리큘럼으로 인해 진정한 기독교 학교로서 교육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2. 연구 범위와 한계

교회를 떠난 역삼각형의 구조를 정삼각형의 구조로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써 연구자가 섬기는 교회에서부터 장년부를 중심으로 해왔던 목회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그 후 청소년부가 중심이 되는 목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목회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년부 중심의 목회에서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청소년 사역으로 가는 과정에서 장년부들의 인식의 변화와 필요성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헌신과 노력들을 해야 하는가를 제시할 것이다. 그 방법론으로서 청소년부를 세우기 위해서 대안학교 설립을 통해 학교의 커리큘럼 안에 교회에서 교육해야 했으나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성경교육과 제자훈련, QT, 성품교육, 성경적 경제, 선교의 실제로서 해외 비전트립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적용할 것이다. 학기 중에 전반기와 후반기에 수련회를 통한 신앙의 훈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할 것이다. 학교 내에 청소년만을 위한 청소년 교회를 학교 내에 설립할 것이다. 기존의 교회들이 학교강당을

임대하여 예배 드리는 것과는 다르게 학교와 청소년교회와 밀착되어 학교는 청소년들을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교육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여 기독교의 기본기를 갖추면서 청소년 교회의 멤버십이 되게 한다. 대안학교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의 부모들도 청소년 교회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재정을 후원을 통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대안학교는 현 교육제도에 대한 회의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철저한 기독교적 교육과 삶에 있어서 실천이 되게 할 것이다. 학교를 통한 청소년 목회이기 때문에 사역의 한계를 지을 필요는 없다. 대안학교의 설립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기존의 공교육에 이질감을 가지고 또는 인간이 가진 권리와 자유가 무너진 교육의 현장에서 대안학교를 통해서 기독교의 세계관에 의한 교육으로 참 인간상을 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공교육을 통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정을 위해 충실하게 학문적인 교육을 하게 될 것이다.

3. 이론적 근거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들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위기들을 간파하고 시대를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었다. 시대를 거스르게 됨으로 인해서 나타날 현실적인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세대간 교육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첫째, 성경적 근거에서 언약적인 의미에서의 교육을 보면 시편 145 편 4 절의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라고 했다. 여기서 “대대로” 라는 말씀의 의미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의 교육을 통해 신앙을 전수하는 전통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뿐 아니라 창세기 17 장 7 절에서도 “내가 내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로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의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 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신의 대에서 만이 아닌, 다음세대인 자녀에까지 교육하여 계속해 그 다음세대까지 연결되는 교육을 해야했다. 세대간의 신앙교육의 장소는 가정이었다. 이에대한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6 장 1-9 절을 보면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신 6:2),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 6:7).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자칫 잃어버릴 2 세들에게 철저하게 계명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이 시대에도 비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청소년들과 별 다를 바 없는 행동들을 통해서 세속화되어가고 있다. 이들을 향하여 부지런히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 6:7). 자녀들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쉼 없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한다. 그 핵심은 첫째, 여호와께 오직 유일 하시다는 것을 가르치라(신 6:4).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신 6:5). 셋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도록 가르치라(신 6:5-6). 그 방법으로는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가르치고 묵상하여 순종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다.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초대하면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마 19:13-15), 막 10:13-15, 눅 18:15-17)고 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막 9:36-37, 눅 9:46-48)라고 했다. 이 말씀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함을 여러 번 말씀하였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딤후 3:14).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았다면 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다. 어릴적 배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말씀대로 확신을 갖고 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가라고 말하고 있다(엡 4:15).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는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이 1:4). 배운 말씀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자녀를 보면서 교육의 가치와 영적인 성숙한 삶을 사는 자녀들을 향하여 칭찬할 수 있기까지 해야 한다.

둘째, 역사적인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유대인의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현대목회에서 사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던 청소년 교육이 장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늦게 인식하였다. 한국선교 초기의 선교사들은 기독교 대안학교를 교회들이 설립하도록 하여 청소년 교육부터 시작하였던 1908년 에서 1911년까지의 장로교 독노회 회의록 보고를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역사를 교회사적인 역사에서 볼 수 있다.¹⁴

4. 연구 방법에 대한 진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음세대가 없는 교회들은 향후 10-30년 안에 문을 닫거나 소멸되게 될 교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는 교인들을 향해 적절한 비전과 방법을 제시하고 설득하여 다음세대들을 세우는 사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논문을 완성해 가는데 전문서적과 다양한 저널들과 잡지들을 활용할 것이다. 위의 연구들을 토대로 대안학교가 다음세대를 세우는 새로운 목회시스템으로 제안할 것이다. 연구자가 설립할 대안학교는 기독교 학문적인 기초를 갖게 되지만 학교를 통해서 공교육이라는 제도권 안에 입학이 허락되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독립적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처음 기독교를 만나게 되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정규 커리큘럼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도록 하지만 소그룹모임과 제자훈련과 일대일 제자훈련을 통해서 신앙은 물론 장래를 위한 멘토링을 하여 신앙 안에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할 것이다. 또한 연중 행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교육함과 더불어 영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갈 것이다.

1 장은 서론으로 진행하며, 2 장에서는 청소년의 이론적 배경과 성경적 이해와 심리적 이해를 다루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대안교육의 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를 다룰 것이다. 청소년들이 공교육의 붕괴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방해요소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청소년과 대안학교의 이해와 더불어 대안학교의 필요성과 청소년들의 사역의 위기와 그 성장 방법을

14) 박상진의 4명, 「기독교학교 역사에 길을 묻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3), 17.

제시할 것이다. 3 장에서는 교회가 세운 대안학교들을 연구 분석하고 학교의 일반적인 현황,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특성, 교육 분석, 설립한 학교가 교회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계된 교회의 청소년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사례를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한 방향과 대안학교를 통한 청소년 목회의 성장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제시할 것이며, 대안학교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들과 교육과정을 같이 진행해야 하는 홈스테이 교육으로 말미암아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결과로 학점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신자의 부모들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학교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건강한 청소년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까지는 학부모들을 위한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 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4 장에서는 대안학교를 통한 청소년 목회를 위한 설문을 통한 연구다. 기존의 담임목회자들이 청소년 목회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 사역에 대한 비전과 대안학교 설립을 통한 청소년 교육의 이해를 분석하여 제시할 것이다. 여기서 교차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청소년 목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것이다. 5 장에서는 교회가 대안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론과 더불어 교회가 준비해야 하는 재정과 교사와 운영자들과 설립할 청소년 교회에 대한 고찰을 한다. 6 장에서는 논문 전체를 통한 신학적, 성경적, 목회학적인 측면과 현장목회로서 청소년 사역을 조명하며 결론을 맺게 된다.

5. 문헌 검토

연구를 위한 문헌들을 4 가지로 분리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한국교회의 현재의 위기가 나타나게 된 이유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문헌들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 이해와 대안교육으로서 기독교 교육에 관련된 문헌들이다. 세 번째, 대안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인한 교회 성장사례를 연구한 문헌들이다. 네 번째, 청소년 이해와 청소년 교육에 대한 중요한 성경구절들을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여 연구하고 분석할 문헌들이다.

첫 번째 분류에서 이원규의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이다. 본서는 종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진단하였다.¹⁵ 한국사회의 변화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면들과 희망의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서는 한국교회들의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설문 통계들과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설문 통계들을 소개하면서 다음세대를 회복하게 하는데 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최윤식의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는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인 측면에서 세계가 기대하는 나라에서 소모적 경쟁과 사회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부족으로 위기가운데로 빠져드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 라고 하면서 한국 기독교도 사회적인 부정적인 평가들로 인해서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음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는 앞으로 10년이 중요한 시기임을 말하고 있다. 한국교회 위기 시대에 현상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이다. 본서는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을 조사한 보고서다. Part 1에서 크리스천들의 교회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조사를 하였다. Part 2에서는 목회자의 생활의식을 조사하였으며 그 통계를 조사하였다. Part 3에서는 크리스천 여론 선도층 심층면접 조사한 내용이다. 교회하면 연상되는 이미지, 한국교회의 역할, 한국교회의 현상진단과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설문으로 통계를 조사하였다. 이런 통계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함에 부족함이 없었다.

두 번째 분류는 로이 주크(Roy B. Zuck)의 「교회와 청소년 교육」이다. 본서는 기독교 교육의 전문가 28 명이 저술하였다. 1987년도에 출판되었으나 청소년을 연구한 연구서로서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청소년 이해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책이다. 비록 시대적인 차이는 있으나 청소년에 대한 개념 연구를 하는 데에는 유익한 도움을 주는 책이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시대상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하지만 대안학교를 통한 청소년 목회연구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15) 이원규,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7.

이하운의 「청소년 사역의 새 지평」은 연구하는데 많은 인용은 되지 않았으나 청소년 사역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의 도움을 주는 자료이다. 또한 개혁주의 신학적인 바탕에서 청소년 사역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있다. 또한 사역을 조화롭게 청소년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사역의 목표를 구현하는데 있어서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손종국의 「청소년 교육」은 자신이 청소년 교육선교회를 이끌면서 실제적인 청소년교육을 전반적으로 다룬 책으로서 청소년 수련회와 개 교회 청소년부 교육계획을 도표를 통해 이해를 주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청소년 회복을 이루는데 있어서 사역의 로드맵을 제시해주고 있다는데 대한 목적을 둔다.

김성애는 「기독교 청소년 교육」에서 특별히 기독교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청소년 사역에 성공적인 교회들을 연구하면서 실제적인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다. 1) 청소년 문화에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인터넷 게임과 그들이 좋아하는 대중음악과 영화, 또한 연예인 동경의식과 외모 지상주의, 스마트 폰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청소년 문화와 놀이를 소개하고 있다. 2) 청소년과 건강에서 청소년의 성 의식과 그들만의 식생활, 청소년 비행 음주와 흡연 약물남용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폐해 친구관계에서의 왕따와 폭력, 가출, 자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3) 청소년과 교회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예배 드리기와 설교의 내용과 청소년들의 찬양에 대해서 교육의 대상으로서 청소년, 청소년 상담과 청소년 교사 교육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청소년 캠프 수련회의 프로그램을 정리하였다. 3)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21세기 패러다임의 전환, 문화와 P 세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시작과 과정과 결론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었다.¹⁶ 학자이면서도 사역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면면들인 청소년들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들의 실례를 들어가면서 분석하고 시대상황에 맞는 분석을 함으로써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었다.

16) 김성애, 「기독교 청소년 교육」 (서울: 비전북 하우스, 2014), 12-7.

세 번째 분류의 이병환. 김영순의 공저 「대안교육의 실천과 모색」은 대안교육을 총망라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제 1부와 제 2부는 이병환이, 제 3부는 김영순이 집필했다. 제 1부 1장에서는 ‘왜 하필이면 대안교육인가’라는 질문으로 공교육의 문제와 대안교육을 논하고 있으며 2장에서는 대안교육의 개념과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다. 3장에서는 대안교육의 이념과 동향을 담고 있으며, 4장에서는 신 사회운동으로서 대안교육의 방향과 정체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제 2부에서는 ‘대안교육 어떻게 실천되는가’에서는 대안교육의 실태와 운영현황을 담고 있다.¹⁷ 청소년 문제와 대안교육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제 3부에서는 ‘통합적 대안교육을 위하여’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적인 대안교육의 총론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적인 영역의 대안교육으로서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한다. 통합적인 대안교육으로서 미디어교육과 문화 리터러시를 담고 있다. 본서는 대안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두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교육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을 깊게 책에 담고 있으므로 본 논문의 2장과 3장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박상진은 「기독교학교 교육론」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들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청소년들을 새로운 목회대상으로서 접근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연구를 해왔다. 일반적인 학문으로 짜여진 교과목을 어떻게 하면 기독교와 관련되거나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과목으로 바꾸느냐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독교교육을 통해서 기존의 교과목과 기독교의 과목들의 조화로우름을 이룸으로 새로운 이정표가 될만한 대안학교가 되었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¹⁸ 연구자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연구의 계기가 되었던 책이다.

박상진 외 3인의 공저인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성과를 말한다」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유형과 기독교 대안학교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독교 대안학교들을 평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유형별

17) 이병환, 김영순, 「대안교육의 실천과 모색」 (서울: 학지사, 2009), 4.

18) 박상진, 「기독교학교 교육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6), 10-7.

성과 분석과 영역별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설문을 통한 유형들을 소개하고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에 뜻을 가진 이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책이다. 또한 본서는 대안학교를 세우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치가 되는 내용들이다. 기독교 교육연구소 기획으로 박상진은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다. 그가 기독교 대안학교들에 대해서 남다른 연구와 논리를 가지고 많은 공저에 참여를 하고 있는 이유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공교육이 무너진 이 시대에 다음세대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구자가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데 많은 영향을 준 책 가운데 하나다.

대안학교에서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것이지만 그들의 성장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부모로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독교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하는 현실에서 철저하게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학부모들의 소그룹 모임 교재를 출간하였다. 「기독교 학부모 교실」인데 1과에서는 기독교 학부모로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2과에서는 기독교 학부모의 자녀 이해인데 부모도 자녀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개념을 교육해야 한다고 말한다. 3과에서는 기독교 학부모의 자녀 이해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도록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4과에서는 여호와 경외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5과에서는 자녀의 성품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6과에서는 학업과 은사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한다. 다니엘처럼 한번 뜻을 정했으면 끝까지 그 뜻을 이루기까지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거이다. 7과에서는 기독교 학부모와 학교에 대해서 말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8과에서는 기독교 학부모운동과 하나님나라라는 개념에서 빛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의미에서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재봉외 14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한국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인데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저술하였다. 1장에서는 기독교 교육학적인 의미에서 커리큘럼을 분명히 해야 한다. 2장에서는 기독교 학교의 교육철학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고

하고 있다. 3 장에서는 지식교육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4 장에서는 한국의 근 현대사에서의 기독교 학교 교육을 말하고 있다. 1895 년부터 시작된 교회가 학교설립의 역사를 말하면서 기독교교육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5 장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교육의 역사의 이해를 더하고 있다. 6 장에서는 사회학적인 측면에서의 기독교 교육의 조명을 하고 있다. 7 장에서는 기독교 학교 교육에 대한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8 장에서는 기독교 교육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는 실로 기독교 학교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이다. 실제 교육부인가를 받게 되면 교과과정이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과정들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인가를 외면하는 학교들도 꽤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또한 외면할 수 없는 당연한 과제가 되기도 한다. 9 장에서는 기독교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철학적인 의미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까지 갈려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재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10 장에서는 기독교적 교수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목표하는 곳에까지 최대한 인도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11 장에서는 공동체로서의 학교 조직을 말한다. 학교가 교회처럼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한다. 본서는 연구자의 논문에 직접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으나 5 장에서 본 연구자는 논문을 완성해가는데 제 5 장에서 청소년 목회로서의 대안학교 설립방안을 연구하기까지 그 안에서 녹아 들어있는 중요한 가치의 책이다.

제임스 W. 브래리(James W. Braley)는 「기독교 학교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을 통해서 기독교 학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확인되었다고 전제한다. 교회들이 목회차원에서 예비학교나 유치원을 시작하기도 하며 또 다른 형태로서 재정을 지원하는 교회 사역의 일환으로 학교가 자녀들의 지도와 양육을 제공하기도 하고 있다고 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저자는 본 서에서 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와 학교를 성공적으로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리들과 실천방향과 요소들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별히 이 한 권의 책이면 학교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것들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특별한 질문 없이도 가능하도록 디테일하게 그 방법론을 담고 있다. 학교의 인사 문제들까지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도 담고 있다. 학교의 시설,

교과과정, 설비, 서류양식과 인쇄물들, 조직체계, 학부모, 재정, 학교 홍보하기, 학교의 미래비전까지 담고 있는 기독교의 길라잡이이다.

이종태의 「대안교육 이해하기」는 대안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교육의 실패로 인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그리고 새로운 공교육을 성공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대안학교를 통해서 교육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가치를 말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으로서 변화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탈 근대적인 교육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자세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대안교육에 대한 등장 배경과 대안교육의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대안교육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논한다. 그러나 대안학교의 교육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대안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대안교육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교육의 의미와 교육의 공공성에의 관계에서 대안교육의 공공성까지 나가고 있다. 대안교육의 전망과 과제로서 대안교육의 성과와 대안교육의 현주소와 대안교육의 전망을 하며 나타난 과제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주문을 하고 있다. 세세한 부분까지 연구함으로써 본서를 통해서 연구하게 된 연구자료로서 유용함을 얻었다.

박상진의 4명의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 생태계」는 한국교회 교육의 위기와 진단과 대안의 방향을 기독교교육 생태계적인 접근으로 한국교회 다음세대의 위기의 상황을 사회적인 문제와 교회 교육의 극복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교육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의 가정교육을 강조한다. 현재 한국교회는 교회학교 만으로는 청소년들을 회복하기보다는 더욱 잃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가정에서의 부모와 연계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만 다음세대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다음세대 기독교 교육을 위한 교회와 학교연계를 서둘러야 할 것을 주문한다. 교회와 학교가 연계로 인한 모델을 시급하게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네 번째, 청소년 이해와 청소년 교육에 대한 중요한 성경구절들을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여 연구하고 분석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기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기가 쉽다. 창세기 34 장 25 절 “제 삼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청소년은 스스로 자기 상황을 의식하지 못한다. 창세기 37 장 9-11 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꾸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청소년은 부모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방종하기 쉽다. 잠언 29 장 15 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청소년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여리다. 사사기 8 장 20 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청소년은 학문과 지식을 통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 다니엘서 1 장 17 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청소년은 교육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존재이다. 디모데전서 장 5 장 4 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청소년은 가르치는 이의 행위의 본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 디모데후서 1 장 5 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 하노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자녀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세기 18 장 19 절 “내가 그로 자식들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그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청소년 교육이 가정에서 대안교육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신명기 6 장 7 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의 교육을 성전과

회당에서 성직자에게 위탁하였다. 사무엘상 1 장 28 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부모로부터 대물린 신앙교육을 받았다. 디모데후서 3 장 15 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부모와 자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골로새서 3 장 20-21 절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와 자녀의 상호적인 관계로서의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에베소서 6 장 1 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청소년 이해와 청소년 교육적 의미에서 원어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주해하여 성경적 청소년 교육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기독교 교육의 생태계를 회복하는데 대안적인 ‘품 모델’ 을 찾고 개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자는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 이외에도 연구를 위해서 전문서적과 다양한 저널과 잡지들을 통한 문헌을 발굴해내고 활용할 것이다.

제 2 장

청소년사역과 대안학교에 대한 이해

1. 청소년에 대한 이해

위기의 한국교회 청소년들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청소년들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신학과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이해하여, 이들에게 여러가지 좋은 방법의 사역들이 있겠지만 대안학교라는 제도권내에서 공교육은 물론 기독교 교육을 통한 청소년 회복을 위한 사역의 내용을 제안할 것이다.

1) 사전적 정의

국어사전에서는 청소년기를 11-13 세부터 시작하여 사고의 능력과 자아 정체감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18-20 세까지를 청소년기로 정의하고, 사회 통념상으로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일컫는다.¹⁹ UN 을 비롯한 국제 기구들과 각국 정부들은 청소년 범주를 넓혀 잡고 지원하려는 국가들도 많다. UN 에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을 9-24 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7-30 세를, 그리스, 스페인, 핀란드, 이란, 인도, 방글라데시는 30 세까지를 스위스와 헝가리는 35 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정하고 국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²⁰

‘청소년’이란 용어는 신체적인 성장이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현상으로서 ‘성장하다’(to grow up), 혹은 ‘성숙하다’(to grow to maturity)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²¹ 청소년이라는 용어(adolescence)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스탠리 홀(S. Hall)이 처음 사용하였는데 이 뜻은

19) 동아국어사전연구회, 「동아 새 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2), 2304.

20) 이 자료는 세계 청소년의 해(IYY)에 즈음한 ‘법률회의 결과보고서’(85.9)와,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안)’에 관련된 제 43차 UN인권위원회의 회의 자료(89.4)를 참고한 것이다: 이하운, 「청소년 사역의 새 지평」 (서울: SFC, 2012), 78-9. 재인용.

21) 정인석, 「청소년 심리학」 (서울: 재동문화사, 1996), 27.

사춘기를 의미한다. 사춘기인 청소년은 성인으로 가기 위해서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갈등과 불안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²²

루소(Jean Jacques Rousseau)는 청소년을 ‘제 2의 탄생기’로 정의하면서 청소년들은 많은 고민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로 거듭난다고 하였다. 기독교적 청소년 이해에 E. 스타부크(E. Starbuck)는 ‘종교적 회심의 시기’라고 정의하고 있다.²³ 청소년기를 맞이하기까지 타인을 의존하여 아동기를 지나서 청소년기에 이르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독립을 위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적인 것과 내적인 면에서 질제력과 객관성의 결여로 인해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한다.

청소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첫째, 한 인간으로서의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와 환경 속에서의 청소년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청소년 이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다양화되어가고 있다. 이는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측면이 다양화될 수밖에 없다. 다양화된 사회와 문화와 환경을 따라가려는 청소년들을 향하여 기독교적인 이해로써 회의론을 갖기보다 더욱 청소년들을 이해하려는 측면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됨으로 한국교회가 침체에까지 이르는 한 요소가 되게 된 것이다.

2) 성경에 나타난 청소년에 대한 이해

청소년에 해당되는 단어인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타나는 ‘아이’가 ‘파이다리온’(παῖδάριον)이다. 영어로는 ‘boy’로 기록되었다. 이는 유아를 가리키는 ‘파이디온’ 보다는 더 나이가 있는 10대 ‘소년’을 가리킨다.²⁴ 성경적인 배경인 오병이어의 기적적인 역사는 소년의 손에 들려 있던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축사할 때 사용된 단어인 누가복음 2장 43절의 ‘파이스’(παῖς)이다. 성경의 배경은 예수님이 ‘아이’, ‘소년’, ‘종’으로 나이가 먹어가면서 성장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²⁵

22) 김국환, 「기독교 교육 사역론」 (서울: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93), 113.

23) 윤신영, “관계와 만남으로서의 소그룹 청소년 교육,” 「기독교교육」, 300호(1993): 51.

24) G. R. Beasley-Murray, 「36 요한복음」, 이덕신 역 (서울: 솔로몬, 2001), 254.

25) John Nolland, 「35 누가복음」, 김경진 역 (서울: 솔로몬, 2001), 298.

구약에서는 창세기 21 장 17 절의 “아이”를 ‘한나아르’(הננא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장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아들’(son), ‘아이’(lad), 혹은 ‘자식’(child)으로 기술하고 있다.²⁶ 성경적인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표현 가운데 사용된 단어이다.²⁷ 창세기 22 장 5 절 말씀의 ‘웨힌나아르’(והננאר)라는 단어는 ‘아이’(lad)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²⁸ 성경적 배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갔던 이삭을 지칭한 단어이다. 청소년에 해당되는 성구를 중심으로 청소년 이해와 청소년 교육의 실체를 찾아서 재조명함으로써 대안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할 것이다.

(1) 구약성경에 나타난 청소년 이해

i) 청소년들은 자기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기가 쉽다

창세기 34 장 25 절을 보면 “제 삼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라고 했다.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세겜성의 남성들을 모조리 살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겜의 남성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주문하였다. 명목상으로는 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할례 후 이들을 살육하기 위한 방법이였다(창 34:7). 주경 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 당시 디나의 나이는 13 세에서 15 세 사이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디나의 오빠들도 청소년기에 흔하게 나타나게 되는 절제할 수 없는 자기 감정으로 인해서 분을 삼키지 못함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은 유대사회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원시적인 복수의

26) Gordon J. Wenham, 「2 창세기」, 윤상문·황수철 역 (서울: 솔로몬, 2001), 196-7.

27) Ibid, 231.

28) John Joseph Owens, 「구약 장절 원어분해 성경 1, 창세기」, 유계석·최봉환 역 (서울: 로고스, 1994), 190.

원칙은 가족이나 친족의 복수가 의무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선민이라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잘못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행동은 자기 감정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려는 강한 충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상대방을 고려하거나 배려할 수 없는 지독한 이기주의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인적인 문제가 집단적인 문제로 발전해 가게도 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원인이 되지만, 청소년들은 스스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ii) 자기의 상황을 의식하지 못한다

창세기 37 장 9-11 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꾸 꾸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고 했다. 여기서 ‘시기하다’는 ‘카나’(קָנָה)인데 문맥상, 이것은 “미움”(5, 8 절)보다 더 강하고 걱정적인 뜻이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라는 말은 불길한 것이며 그들이 복수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한다.²⁹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어려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해 계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랑을 할 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헤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꾸짖음이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꾸 꾸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라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의 구체성을 흐려지게 한다. 그러나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비전을 요셉이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었다. 요셉이 꾸 꾸 두 번째의 꿈이었다. 이 꿈은 형들만이 아닌 아버지 야곱까지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알았다는 의미이다. 야곱의 이러한 특별한 이해는 자신이 예서의 장자권을

29) Gordon J. Wenham, 「2 창세기」, 619.

사기로 빼앗고 외가집 밭단 아람으로 도망치던 길에 뽀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숙하게 되었다. 그때 야콥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꿈으로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창 28:12; 31:11).

요셉은 이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 미움이 결국은 형제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가는 마음을 갖도록 하였다. 창세기 37 장 27 절을 보면 ‘웨니므케렌누’(וַיְמַכְּרֵנּוּ)라고 하는데 그 뜻은 ‘그리고 우리가 그를 팔자’라는 뜻이다.³⁰ 이렇게 요셉의 두 번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형제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되었고 이에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짐승들을 이끌고 목초지를 찾아 다니는 형제들이 머무는 곳을 찾아왔던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를 묶어서 이스마엘 노예상에게 팔게 되었다.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 청소년들은 자기중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편협함 때문에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의 평안도 깨뜨릴 수 있다.³¹

iii) 가르침 가운데서도 방종하기 쉽다

잠언 29 장 15 절을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고 했다. ‘메술라흐’(מְסֻלָּח)는 ‘방치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웨나아르’(עָרֵל)는 ‘어린아이’라는 의미이다.³² 이는 ‘방치된 어린아이’를 말한다. 즉 청소년기에 부모의 채찍은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청소년기에 교육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하게 버려두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방종할 때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³³ 청소년기의 자녀와 부모는 일심동체와 같다. 자녀가 잘하면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자랑거리가 되지만, 역설적으로 자녀가 잘못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면 부모도 같이 지탄의 대상이 되게 되는

30) Ibid, 604.

31) 윤신영, “관계와 만남으로서의 소그룹 청소년 교육,” 300호 「기독교교육」, 97.

32) John Joseph Owens, 「구약장절 원어분해 성경 10, 잠언」, 최봉환 역 (서울: 로고스, 1996), 269.

33) Roland E. Murphy, 「22 잠언」, 박문재 역 (서울: 솔로몬, 2001), 363.

것이다. 그렇다고 부모는 자녀가 한번 잘했다고 해서 더 이상의 교육을 멈추고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부모가 욕을 들어먹게 된다. 부모의 자녀교육은 그가 사회인이 되어서 사회성을 가지고 충분히 홀로서기를 할 때까지 관찰하고 칭찬하며 용기를 북돋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채찍이 교육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게도 한다.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유익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뒤로한 채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방종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된다. 자신의 방종으로 인해서 징계받을 것을 알면서도 순간의 쾌락과 즉흥적인 것을 위해서 방종을 선택하게 된다. 잠언 29 장 17 절 말씀에는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징계의 필요성을 역설한다(잠 19:18; 23:13).³⁴ 자녀교육 문제로 인해서 부모들이 일상이 편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 대해서 온전한 교육을 하고자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교육은 자녀만이 아닌 부모의 영적인 일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ix) 감수성이 풍부하고 여리다

사사기 8 장 20 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맏아들 여텔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한나아르’(חַנְיָאֵר)인데 ‘소년’을 의미한다.³⁵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을 처형하는데 소년인 자신의 아들을 선택하여 칼로 죽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처형을 하는데 있어서 아들은 두려워하게 되었다. 기드온의 아들 여텔은 탁월한 아버지를 두었으나 그 아버지의 요구를 두려움으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했다. 그 두려움의 이면에는 훈련받지 못함으로 인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적과 아군이 무기를 가지고 창과 칼이 맞부딪치고 그로인해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자신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을 수 있겠다고 판단이

34) Ibid, 363.

35) John Joseph Owens, 「구약장절 원어분해 성경 4, 사사기」, 유계섭, 최봉환 역 (서울: 로고스, 1995), 379-80.

될 때 비로소 자신이 살기 위해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방어적 의미에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었던 여델은 순간의 감정으로 사람을 칼로 죽일 수 없었다. 청소년기에는 개인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가능성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쉽게 좌절도 하게 된다. 그러나 가족의 요구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여야 하는 것은 물론 공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살해해야 하는 일에는 장년이라도 어려운 일이다.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청소년에 맞는 행동양식과 청소년으로서 의식을 할 뿐이다. 그 이상의 요구는 여기서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v) 학문과 지식을 통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

다니엘서 1 장 17 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네 명의 소년들은 초자연적으로 계시된 지식(예언적 지혜)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사로서 습득하는데 특별하였고 습득한 지식을 사용하는데도 탁월했다. ‘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구절의 문자적인 의미는 ‘지혜와 식별’이다. 지혜는 객관적인 지혜로서 지식의 여러 분야에서 작용하는 지혜일 뿐 아니라 과학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식을 습득하는데 가장 좋은 연령층이 청소년기이다. 이 네 소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사로 말미암아 허락된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탁월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청소년기에는 학문이나 또는 문화와 같은 것을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탁월하다. 하지만 이 네 소년들에게 허락된 은사는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청소년기에는 배움을 통한 삶의 지혜와 명철을 얻어가는 시기이다.

(2) 신약에 나타난 청소년 이해

i) 교육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존재이다

디모데전서 장 5 장 4 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과부’라는 헬라어는 ‘케라’(χήρα)인데 디모테전서 5 장 3 절의 과부와는 다른 의미의 단어이다.³⁶ ‘케라’라는 단어는 자손들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과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과부는 나이로 인한 연로함이나, 또는 육신의 장애로 인한 지체가 부자유스러움이나, 또는 부분적인 기능을 상실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 기력이 떨어진 과부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본 절에서 과부를 도울 수 있는 연고자들이 있을 때는 그들의 생계를 굳이 교회가 도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첫째, 가족들 가운데 과부를 도울 수 있는 자녀들이 있을 때 그들의 부모에게 보답으로 돌려주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것이다. ‘보답하기를’이라는 단어는 ‘아모이바스 아포디도나이’(ἀμοιβὰς ἀποδιδόναι)인데 그 뜻은 ‘보답들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직역된다.³⁷ 여기서 자녀들이 과부 어머니에게 일시적인 보답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답을 하라는 의미이다.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보살핌은 물질적인 것과 또한 육체적인 보살핌, 또는 직접적으로 같은 집에서 기거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에게서 홀로서기까지 부모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부모에게 되돌려주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이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과부의 자손으로서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부모를 향하여 물심양면으로 효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교육해야 한다. 청소년시기에는 학교와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교육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청소년들은 교육을 통해서 신앙과 인격적인 변화와 지혜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대상이다.

ii) 부모를 통한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디모테후서 1 장 5 절의 말씀에서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 하노라” 디모테가 가진 “거짓 없는 믿음”은 ‘아니포크리투 피스테오스’(ἀνιποκρίτου πίστεως)인데 의미는

36) 번역위원회, 「신. 구약 원어 연구해설」(서울: 뽀엘성서간행사, 1996), 420.

37) 라형택, 「신약장절 원어분해 성경 5, 디모테전. 후서」(서울: 로고스, 1999), 443.

‘성실한’, ‘진실의’, ‘성심 성의’등을 뜻한다.³⁸ 디모테의 믿음은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신실한 삶을 통한 교육에서 비롯되었다고 바울은 증언한다. 바울은 영적인 유산, 즉 데모테의 삶으로 전이된 유산을 디모테에게 상기시킴으로써 그의 믿음을 복돋는다.³⁹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믿음을 이익을 방편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부모들의 거짓 없는 신앙의 행위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은 믿으라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데모테에게 있는 믿음은 디모테의 믿음이지만,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의 행동의 본을 통해서 교육된 믿음이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되어 있다(롬 10:17). 디모테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믿음이지만 그 바탕에서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 부터 믿음의 행위들로 인해 본받는 교육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교육으로된 신실한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된다.

청소년기의 비뚤어지는 신앙은 외부에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겠으나,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부모들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을 통한 신앙의 행위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보는 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도 받게 되지만 반면 긍정적인 영향도 받게 된다. 특별히 청소년기에는 듣고 보는 것으로부터 전해지는 영향력은 교육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성경에 나타난 청소년 교육

유대인들의 교육은 가르치는 이와 가르침을 받는 존재가 분명하다. 아버지와 자녀들로 구성이 된다. 특히 일대 일의 교육의 탁월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유대인의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함은 물론

38) Ibid, 443.

39) William D. Bounce, 「46 목회서신」, 채천석, 이덕신 역 (서울: 솔로몬, 2001), 917.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교육은 청소년기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자는 구약과 신약 여러 곳에서 비롯된 교육을 찾아 연구하고 분석하였다.

(1) 구약에 나타난 청소년 교육

i) 언약의 성취를 위한 교육

유대인의 교육하면 간 세대 교육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 대대로 교육하고 교육받은 청소년들로 이해할 수 있다. 유대인은 가정에서 부모가 혈통적 자녀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을 통해 전수함으로 자녀들은 ‘말씀을 맡은자’(롬 3:2)로 성장시킴으로 선민의 교육을 가장 잘 실천하는 민족이 된 것이다.

창세기 18 장 19 절 “내가 그로 자식들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창 18:19, 표준 새 번역).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허락해주신 것이다. 즉 구약에서의 유대인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인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다’, ‘뽑다’에 대한 의미로 ‘알다’(יָדָע)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선택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18 절)에서 비롯된 것으로서⁴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을 히브리어로 ‘키 예다타우’(כִּי יֵדָעְתָּ)인데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치기 위함이다”(창 18:19 상반절)⁴¹라고 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현실적인 축복을 주겠다는 의미로만 선택하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이 복을 받기도 하겠으나 언약된 하나님의 복을 자손대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식들과 자손들”을

40) Gordon J. Wenham, 「2 창세기」, 141.

41) Ibid, 201.

분리해서 말씀하셨다. “자식”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실 자식인 이삭을 말함이고, 자손들은 이삭 이후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자손들인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 이후를 지칭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서 태어날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되 이삭이 그 자녀들에게 교육을 전수해줄 수 있도록 분명하고 확실한 자녀교육을 하라는 의미이다.

아브라함은 가정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는 교육만이 아니라 순종하여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명령에 대해서, 자녀에게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본을 보이기도 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창 22:1-2). 이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게 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장작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창 22:9-10)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녀인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교육을 마음에 새기게 된 것이다.

ii) 청소년 교육의 대안학교

구약에 있어서 유대인의 교육장소는 가정이며, 성경이 교육의 교재가 되었다. 신명기 6 장 7 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며”에 관련된 히브리어 ‘웨쵸난탐’(עָנַן)은 ‘마음에 새기다’, ‘반복하여 가르치다’, ‘찢어 넣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샤난’(שָׁנַן)의 ‘예리하게 하다’, ‘날카로운 말로 공격하다’(신 32:41)에서 파생되었는데 본문에서는 능동태로서 ‘되풀이하다’, ‘반복하여 말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⁴² 여기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자녀의 ‘지혜를 날카롭게 하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되풀이하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42) John Joseph Owens, 「구약 원어 분해 성경 3, 신명기」, 유계섭, 최봉환 역 (서울: 로고스, 1995), 477.

보게 되면 ‘너는 네 자녀들을 되풀이하여 가르치라’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있어서 진도 위주의 가르침을 삼가 하라는 말도 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으로 자녀의 인식을 날카롭게 해주어야 함은 물론, 또한 되풀이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다. 세상의 교육에 있어서 반복학습은 지루하거나 권태로움을 만드는 것이겠으나 기독교의 전통적인 학습은 반복함으로 지루함이나 또는 학습에 대한 권태로움 따위를 느낄 수 있거나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한가로운 학습이 아니다. 이는 인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 마음에 충격이 갈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이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오래 전부터 시청각 교육을 해왔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신 6:8).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신 6:8).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신 6:9) 이렇게 교육해왔다. 이는 보고 듣는 교육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것에 대한 학습적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모는 이와 같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때와 상황과 여건을 가리지 않고 자녀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임과 동시에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감당하였다.

iii) 식탁에서의 절기교육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 식탁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했다.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예는 유월절 만찬(출 12:5-11)에 대한 교육이다. 첫째, 부모는 자녀들에게 절기에 드릴 제물로써 어린양을 고르는 법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친다. “너희 어린양은 흠 없고 일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출 12:5).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고르는 방법을 가르친다. 둘째, 이달 십사 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양을 잡으라고 가르친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출 12:6). 부모가 식탁에서 돌아오는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과 더불어 양을 잡는 것과 날짜를 지키는 것을 보며 심비에 새겨두는 것이다. 셋째,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출 12:7), 유월절 규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열 번째

제앙이 내릴 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했던 것과 같이 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것이다. 넷째,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출 12:9). 다섯째,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며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출 12:10). 이렇게 부모들은 식탁에 앉아서 자녀들에게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과 절기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되 마음에 새기도록 몇 날 몇 일이고 심비에 새겨질 때까지 가르친다.

특히 유월절 만찬 식탁에서 절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곤 했다. “왜 이 밤은 다른 밤과 구별되지요?”, “왜 우리는 절을 해야 하나요?”, “왜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야 하나요?”, “왜 우리는 쓴 나물을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부모는 성경에 기초하여 대답해 주었고, 밥을 먹는 동안 종교적 의미를 상징하는 많은 신체적 움직임과 의식을 가르쳐 주었다. 매년 반복되는 유월절 만찬 식탁이나 절기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고 배우는 도구로써 매우 구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⁴³

iv) 자녀의 교육을 성전과 회당에 위탁하였다

구약에서는 가정만이 아닌 회당에서 말씀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중심이며 삶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이곳은 예배와 친교를 위한 장소이기도 하였다. 사무엘상 1 장 28 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음으로 자신도 드릴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드리겠다고 말한다. 여기서 ‘드리되’에 해당하는 ‘히쉬일르티후’(הִשִּׁילֵרְתִּיָּהוּ)는 ‘샤알’(שָׂאֵל)이라는 동사의 사역형 능동태(Hiphil)완료 1 인칭 공성 단수에 3 인칭 남성 단수 접미어가 붙은 형태로 ‘내가 빌려주었다’라는 뜻이다. ‘샤알’이라는 동사는 ‘부탁하다’, ‘빌려주다’라는 뜻인데(창 32:17; 잠 20:4), 여기에서 ‘차용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⁴⁴ 이렇게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지고 드러진 아이를 제사장인 엘리는 사무엘을 맡아서 지도권을 갖게 됨으로 그에게 필요한 율법에 관한 교육을

43) 정웅섭, 「현대 교육목회의 전개」 (서울: 한국신학 연구소, 2010), 180.

44) John Joseph Owens, 「구약 원어 분해 성경 5, 사무엘상」, 라형택 역 (서울: 로고스, 1995), 40.

시키게 되었다. 사무엘상 2 장 26 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엘리제사장의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⁴⁵ 엘리제사장은 사무엘을 12 세까지 회당에서 가르치며 같이 기거하게 된다(삼상 3:1-11).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하였으나 특별한 경우 구별된 아이들은 제사장에게 맡겨져 일찍부터 말씀교육을 받게 하였다. 특별히 나실인들을 그렇게 교육하였다.

(2) 신약에 나타난 청소년 교육

예수님은 이 땅에 가르치러 오셨다. 33 년의 생애 전부가 직간접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민족”(눅 12:3), “그리스도안에서 하나”(갈 3:28)된 인간,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계층이나 이성의 구별이나, 사회적 계층과 나이를 넘어서서 모든 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하여 오셨다.

i) 대물린 신앙교육

디모데후서 3 장 15 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어려서 부터”는 헬라어로 아포 브레푸스’(ἀπὸ βρέφους)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⁴⁶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구약성경부터 배우게 되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디모데가 실제 5 세 때부터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5 세 때부터 자신의 어릴 때를 회상할 수 있는 현재까지의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구약성경을 배울 때 대부분 율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배웠다. 또한 교육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것이었다(잠 1:7). 부모의 훈계를 따르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 계명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디모데는 유아기부터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45) Ralph W. Klein, 「10 사무엘상」, 김경열 역 (서울: 솔로몬, 2004), 50.

46) 라형택, 「신약 장 절 원어분해성경 5, 디모데후서」 (서울: 로고스, 1999), 471.

거쳐서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게 되었다. 그 결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되었다. 신약에서도 성경말씀 교육은 유대인들에게 꾸준히 행해왔던 교육이다.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직접적인 연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었다.

ii) 부모와 자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교육

골로새서 3장 20-21 절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두절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원리가 제시되어 있다. 첫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ὑπακούετε’(ὕπακούετε)는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절대적이며 지속적인 순종’을 의미한다.⁴⁷ 종에 대한 명령처럼 자녀들에 대한 명령은 아내에 대한 명령보다 다소 강력하게 진술되고 있다. 자녀들과 종에 대한 권면은 절대적인 명령을 암시하는 능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⁴⁸

골로새서 3장 21 절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둘째로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μη ἐρεθίζετε’(μη ἐρεθίζετε)인데 ‘홍분시키다’를 의미하는 고대 동사 ‘에레티조’(ἐρεθώ)의 현재 명령법이다. 의미는 ‘일으키다’, ‘성나게하다’, ‘유발시키다’, ‘격앙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⁴⁹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두 가지 상호적 원리를 가지고 교육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인 순종만을 요구하는 교육으로 인해서 자녀를 홍분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교육은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반발도, 그 어떤 이유를 달아서도 안되도록 순종을 요구하여 상호 교육하는 부모와 교육을 받는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였듯이 하나님의

47) Ibid, 288-9.

48) Peter T. O'Brien, 「44 골로새서」, 정일오 역 (서울: 솔로몬, 2008), 400.

49) 라형택, 「신약 장절 원어분해 성경 5, 골로새서」 (서울: 로고스, 1999), 289.

언약을 물려받도록 하기 위하여 순기능으로 교육받도록 하였다(창 18:19). 또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iii) 부모와 자녀의 상호적인 관계로서의 교육

에베소서 6 장 1 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원어로 ‘퀴리오 엔 훔아쿠에테’(Κυρίῳ ἐν ὑπακούετε)이다.⁵⁰ 부모와의 관계 이전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해 가르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녀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일부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주께 하듯 하며’(엡 5:22)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⁵¹ 이 말씀은 자녀에게만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 부모와 자녀에게 공히 요구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6 장 2 절에서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출애굽기 20:12 절과 신명기 5 장 16 절에서 십계명 가운데 제 5 계명을 언급한 것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는 부모로부터 내려서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였던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언약)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창 18:19)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다. 6 장 3 절에 보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아버지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6 장 4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소극적인 면에서 지나친 부모의 엄격함과 가혹함과 편애를 통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이다. 양자에게는 복종만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무로도 해야 한다.⁵² 유대 문헌들에 보면 자녀들의 교육에 책임을 지니고 있는

50) Ibid, 184.

51) Andrew T. Lincoln, 「42 에베소서」, 배용덕 역 (서울: 솔로몬, 2006), 750.

52) Ibid, 755.

사람은 무엇보다도 아버지라는 것이다. 에베소서가 이러한 사고방식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성경말씀을 통한 가르침을 통해서 성화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하나님의 대행 자이다.

2. 발달 심리학적 이해

청소년기의 11-12 세가 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동기의 특성들에서 벗어나게 된다. 특히 발달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이를 청소년기라고 정의하게 된다. 이시기는 아동기도 아니고 청년기도 아닌 채 정신적 육체적인 정도의 성숙함을 요구받게 된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자아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불균형으로 인한 혼란기를 통과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면서 점차 자아의식이 고양되면서 청년기를 거쳐서 성인기로 나가게 된다.⁵³

예수님께서서는 12 세때 청소년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 예수님의 성장과정을 통해서 청소년의 발달심리적 성장을 엿볼 수 있다. “지혜가 자라감에서 지적 발달을, 키가 자라감에서 신체적 발달을,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감에 영적 발달을,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감에서 사회적 발달을 찾을 수 있다. 학자들의 연구 영역을 통해서 세분화하면 신체적 발달, 지적 발달(인지발달과 정서 발달), 사회적 발달(자아정체감 발달, 인간관계 발달, 도덕감 발달), 영적 발달로 구분할 수 있다.”⁵⁴

1) 신체적 발달의 청소년

청소년기에 신체 성장이 가장 왕성한 시기다. 청소년기에 신체 성장은 거의 끝이 난다고 본다. 신체 성장은 인간이 가진 심리적이며 정신적 부분과 영적인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체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성인 남성의 평균키가 174cm 여자의 키가 160.5cm 인데 비해 중학교 때

53) 손종국, “청소년교육의 준거와 사역의 원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20-1.

54) 손종국, 「심리 이해와 지도」 (서울: 청소년교육선교회, 2006), 58.

남자 169.7cm, 여성 159.8cm, 고등학교 때 남성 173.5cm, 여성 160.9cm 으로 조사되었다.⁵⁵

신체성장은 인간의 발달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많은 변화로 인해서 신체적인 경험과 정신적인 경험, 심리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기간이다.

이로 인해서 성적으로 눈을 뜨는 시기이고, 그에 대한 관심사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시기이다. 자위행위나 또는 포르노와 같은 영상물로 눈을 놀리게 되는 시기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육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다. 이로 인해서 비교의식으로 인해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고 우월의식을 갖기도 한다. 또한 남을 놀리기도 한다.⁵⁶

2) 지적 발달의 청소년

청소년기에는 아동기를 극복하고 논리적이고, 추상적이며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 지적 성장의 기초에는 개인적인 욕구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 자아를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기 시작한다. 자아의 만족은 발견한 세계와 관련을 맺게 됨으로 인해서 배우게 된다. 이런 관심의 성장은 증가된 자발성과 배움의 수용성을 동반하게 된다.⁵⁷ 또한 이 시기에는 경험보다는 생각이 풍성해지는 시기이다. 그 결과로 폭넓은 통찰력과 통전성을 갖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아동기 때 보다는 순종적이지 않다. 이는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아동기 때 보다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민이 많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함을 갖게 된다. 포스트모더니즘세대는 절대적인 권위와 권력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모더니즘의 세대들과는 다른 태도를 갖게 된다.⁵⁸

55) 여성가족부, 「2013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2013), 185-6.

56) 손종국, 「청소년 교육」 (서울: 예루살렘, 2000), 71-84.

57) Roy B. Zuck, 「교회와 청소년 교육」,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125.

58) 손종국, 「청소년 교육」, 66-85.

3) 정서적 발달의 청소년

청소년기에는 대부분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드러내는 시기다. 일상의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학교생활에서도 감정적으로 대하려 하기 때문에 쉽게 흥분하고 소리지르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된다. 그들은 독립을 간절하게 원한다. 그러면서도 두려움을 쉽게 느끼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역울함의 정서를 갖게 된다. 이 시기의 감정은 이렇게 매우 불완전하게 나타난다. 청소년의 시기에 자신을 절제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성인이라는 두 세계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대부분 분주하고 행복하게 느끼게 된다. 자신의 주변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이성보다는 감정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시기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하여 하게 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⁵⁹⁾

4) 자아정체성 발달의 청소년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으로 발달하게 됨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사춘기를 겪게 되는데 아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인도 아닌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모순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 손종국은 청소년 자아 정체감의 발달이 5 단계를 걸쳐서 발달하게 된다고 한다. 1 단계에서는 기본 신뢰감 대 불신감이 형성되는 시기로 부모와 대인관계를 배우기 시작한다. 이때 부모가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신뢰감의 형성과 불신감이 형성되게 된다. 2 단계에서는 자율성 수치와 회의가 형성되는 시기로 선택 사이에서 자율성을 통한 자신의 의지를 연습하는 시기다. 3 단계로 주도성 대 죄의식이 형성되는 시기다. 또래와 놀이를 통해서 주도권을 발휘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4 단계에서는 근면성 대 열등감이 형성되는 시기다. 초등학생에 해당되는 시기로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생활을 습득하게 된다. 여기서 얻어지는 것으로 근면성과 유능성을 갖게 되며 반대로 실패를 통해서 열등감을 갖게 된다. 5 단계로 자아정체성 대 정체감의 혼미한 시기다. 이 시기가 청소년이 속한 시기다. 1 단계에서부터

59) Ibid, 112.

4 단계까지 성숙함을 혼란해왔다. 이는 자아상이 형성되어왔다는 것이다. 자아상은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서 형성되어 왔다. 이 시기에 자아 정체감 형성이 의식적인 수준으로 표면화됨으로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다.⁶⁰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요인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자아개념’(self-concept)이다. 자아개념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자기인식’(looking glass self)에 기초하여 형성되게 된다.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지적 능력, 신체적 매력, 신체적 특기, 사교적 매력, 리더십, 도덕적 자질, 유머 감각 등이 있다. 자아 정체감과 자아 개념을 구성하게 되는 요소로는 자존감을 들 수 있다. 자존감이란 자신을 향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말한다. 낮은 자존감은 부정적으로 보고, 반대로 높은 자존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자존감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게 된다.⁶¹

자아 정체성이 형성될 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존재가 부모다. 그 외 영향력이 있는 교사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이나 평소 존경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자아 정체성은 타인의 영향도 받게 되지만 자신의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성을 갖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대안학교 교육의 교회사적 이해

1) 외국 대안학교 이해

외국의 대안학교의 출발은 계몽주의 시대의 새로운 교육 사조에서 그 뿌리들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면들의 교육은 국가가 추구하는 교육 방향과 학교의 설립 이념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화되어 대안학교가 시작되었고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60) Ibid, 77-8.

61) Ibid, 78.

(1) 영국 대안학교 교육 이해

영국은 고전중심의 교육에서 새로운 교육형태로 나가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운동의 첫번째, 교육 운동은 신교육 운동으로서 1889년 세실 레디(C. Reddie)가 설립한 애보츠 홀름(Abbotsholme) 대안학교였다. 이 학교는 전원 기숙사 학교였다. 레디의 같은 영향을 깊이 받았던 배들리(John. H. Bedales)는 1893년에 비슷한 전원 기숙사형의 비데일스(Bedales)학교를 설립하였다. 애보츠 홀름학교나 비데일스학교와 같은 전원 기숙사학교는 전원의 생활자체가 학습의 장이 되게 하였다. 학생들로 다양한 노작활동이나 또는 체험중심의 학습, 대인관계를 통한 협력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학교의 모델은 유럽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신교육 운동은 영국의 비 권위주의 교육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선구자적인 역할은 홈스(Edmond Holmes)였다. 이는 교육자로서 현장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다. 홈스의 뒤를 따라 계속해서 신교육의 씨를 뿌린 사람이 호머 레인(Homer Lane)이었다. 두번째, 교육운동이었던 비 권위주의 교육운동이었던 1920년 급진적인 비 권위주의 학교인 서머힐학교를 설립한 알렉산더 S. 닐(A. S. Neill)이었다. 그의 교육의 본질은 죄와 불안과 공포의식에서 자유를 의미했다.⁶² 기존의 공교육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시작하게 된 대안교육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그러나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왕성한 대안교육 운동이 펼쳐지게 된다. 1970년대 들어 가속화되었다. 1930년대에 소스틴(Thorstein)에 마을학교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당시 많은 교육자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도 커다란 학교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의 문제점들을 간파하였고 학생들을 가르쳐 내보내는 것이 마치 공장에서 제품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처럼 비교육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에 청소년들의 나이와 신장에 맞는 교육을 새롭게 재편해야 하겠다는 생각들이 모여서 큰 학교들이 아닌 ‘작은 학교’, 미니 대안학교들이 설립되게 되었다.⁶³

영국의 대안학교의 현황으로서 첫째, 급진적인 대안학교로서, 기존의 일반학교들의 대안적인 학교이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와 수업 여부, 출, 결석 관계, 수업 방식, 학생의 학교생활의 모든 것이

62) Alexander. S. Neil, 「Summerhill」, 박창현 역 (서울: 거암, 1989), 21.

63) 이관춘, “생명가치구현을 위한 영국의 대안교육: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Schmacher학회 6」 (1996): 2: 이병환, 김영순, 「대안교육의 실천과 모색」 (서울: 학지사, 2009), 92-3. 재인용.

학생자율에 맡겨져 있다. 둘째, 중도적 대안학교로서 운영방식은 기존의 일반 학교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일반학교에 대안성을 가진 학교들이다. 셋째, 인간중심 대안학교로서 교육의 주된 관심사가 학업을 통한 성적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통한 대안학교이다. 넷째, 프로그램 중심의 대안학교가 있다. 이런 학교는 기존의 일반학교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들에 대안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다.⁶⁴

(2) 독일의 대안학교교육 이해

정유성은 그의 저서 「대안교육이란 무엇인가」에서 독일의 대안학교교육에서 대표적인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슈타이너(Steiner)가 설립한 발도르프 학교(Waldorf Schule)는 당시 공교육을 지향하는 일반학교들과는 달리 새로운 교육과정으로서 국가가 인정하는 직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설립하였다. 직업학교로서 대안학교였던 것이다. 발도르프 학교의 모델은 산업화를 이루려는 전세계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많은 학교를 설립하였다. 발도르프 학교는 독일은 물론 공교육의 대안성을 가진 직업학교들이 세계 여러나라에 설립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⁶⁵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영국의 신교육운동이 불어 닥칠 때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독일의 대안학교의 배경에는 첫째, 개혁교육학운동이 있었다. 새로운 세계를 갈망하는 미래지향적이며 유토피아적 이상 등을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에서 탈피하려는 교육운동이 배경에 있었다. 독일의 개혁교육학운동으로 설립된 대안학교는 영국의 신교육운동의 영향을 받은 헤르만 리츠(Hermann Lietz)의 ‘전원기숙학교’를 설립하는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다. 이 학교들은 노작, 체험, 교육이 삶과 일치성을 이루고 자연과 합일, 전인 교육 등을 추구했다. 둘째, 자유대안학교인데 발도르프학교가 그 대표적인 학교이다. 교수법보다는 학습법의 강조, 체험학습, 인지학습, 사회학습의 조화, 업적주의 평가의 포기과 같은 독특한 형태를 가졌다.⁶⁶

64) Ibid, 95-6.

65) 정유성, 「대안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7), 131-45.

66) Johannes Kiersch 외 11명, 「루드 루돌프 슈타이너학교」, 김용한 역 (서울: 밝은 누리, 1999), 58.

(3) 미국의 대안학교교육 이해

미국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의미에서 대안학교가 시작되었다. 여기에 포드재단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대안학교 배경은 첫째, 인종적인 이유로 인한 이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마그넷스쿨이 있다. 흑인들이 싫어서 백인들만 있는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가진 일반학교 형의 대안학교이다. 둘째, 차터스쿨인데 1980년대 이후 공립학교의 질적 개선을 위한 개혁적인 논의 끝에 등장한 학교이며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교이다. 교육과정, 재정, 인사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다. 셋째, 학교 연합에 의한 학교,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개혁모델이다. 자율적이며 초점을 맞춘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종합학교 모델을 가지고 있다.⁶⁷

미국의 기독교 학교의 부흥기는 1960-1980 년대에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다. 대개 복음주의적 교회들이 설립한 학교들이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 학교가 상호 협력하는 대안학교로서 공동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첫째, 루터학교, 1752년 미국에서 첫 학교가 설립된 이후 1820년에는 700 개의 루터교회가 342 학교를 운영했다. 2010년 기준 미국에서만 17 만명이 재학 중에 있다. 루터교가 세운 학교는 신앙에 부합하는 지식을 전수하고 교리에 대해서 가르친다. 학교교사는 교회의 목회자와 비슷한 사역을 하기도 한다. 학교는 교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지역교회들과 연결되어 있다.⁶⁸

둘째, 개혁주의 기독교 학교, 개혁주의 기독교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 2010년 기준으로 7만 5000명이다. 개혁주의 교회들은 환란의 이민자들이 세운 교회들이 세운 학교들이다. 이들은 언약 사상과 영역주권론을 중요한 신학적 토대로 삼는다. 교회가 학교를 설립하여 세우지만 교회에서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학교의 운영은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다. 지역교회들은

67) 김영화, “미국 공립 대안교육의 실제” 「교육연구논총 18」(2001): 185-215.

68) 강영택, “기독교 학교 설립과 운영에서 교회의 역할,” 「목회와 신학」, 311호(2015): 47-8.

교인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등록금을 보조하고 있다. 교사양성은 교단대학교에 교육과를 두어 배출하고 있다.⁶⁹

셋째, 근본주의 기독교학교, 보수주의 교회들이 1960년대 이후 기독교학교를 일으켰다. 복음주의 기독교 학교들은 미국의 주류를 차지한다. 재학 중에 있는 학생수는 2010년 기준으로 144만명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부모가 성경에 근거해서 자녀의 교육을 담당한다. 국가가 학교를 규제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고 부모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중요시한다. 교회의 특성이 학교 교육에 깊이 반영되도록 한다. 교회가 학교를 물질적인 지원을 하지만 그리 크지 않다.⁷⁰

2) 한국의 대안학교 교회사적 이해

(1) 기독교 초기 대안학교 설립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한 주일학교는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와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1884년 6월 24일에 황해도 소래에 세워지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주일학교의 필요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주일학교도 같이 시작되도록 했다.⁷¹ 선교사들은 주일학교를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8월 3일에 서울에 배재학당을 설립함으로써 기독교를 통한 근대교육의 시작의 단초가 되었다.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이 친히 지은 배재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스크랜튼(Mary Scranton) 선교사는 1886년 5월 30일 여자 교육을 위해서 정동에 이화학당을 설립함으로써 여성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에 신호탄을 알렸다.⁷² 기독교가 세운 학교는 독립운동과 민족 계몽운동이 교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1896년 배재학당 교장인 아펜젤러는 서재필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하였다. 그의 영향으로 강의 6개월만에 기독교 청년학생회, '협성회'가 만들어지게

69) Ibid, 48-9.

70) Ibid, 49-50.

71) Ibid, 62.

72) 정정숙, 「기독교교육사」 (서울: 베다니, 1999), 382.

되었다. 그후 매주 토요일 공개토론을 열기에 이르게 된다. 토론회를 통해서 사용되었던 구두표결 진행방식인 “가하면 ‘예’하시오. 부하면 ‘아니오’ 하시오”라는 가부를 묻는 회의 방식이 이때 사용되었던 것들이다.⁷³

학교를 통한 기독교 청소년들은 1909년 평양 숭실학교 학생회 때 당시 3학년생이던 김형제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신앙과 자유를 배우고 민족주의 운동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10년 ‘105인사건’을 사건화 하여 기독교를 탄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05인 사건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전세계에 알리는 최초의 사건으로 승화됐다.⁷⁴

(2) 근대에서 현대 대안학교 설립

실질적인 대안학교의 최초 시작은 1953년 6월 경남 거창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⁷⁵ 그 후 1980년대부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다. 이 운동이 1981년에 기독교 ‘대학설립 동역회’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활동하던 중 1996년부터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교육을 위한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이 붓물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1997년 대안학교로서 최초 전일제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이다. 위탁형 대안학교로서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같은 년도에 중도 포기 학생들을 위탁하여 교육하는 성지학교, 원경학교, 양업학교가 개교하였다. 1998년에는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 제 1항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법제화 되었다.⁷⁶ 이로 인해서 특성화 대안학교로서 1998년에 동명고등학교가 개교하였으며, 한빛고등학교가 개교하였다. 1999년에는 두레자연고등학교, 세인고등학교와 같은 대안형의 학교들이 차례로 개교하였다. 미인가 대안학교로서는 1998년 기숙형의 꿈의 학교와 2000년 도시형 초등학교로서 로고스초등학교가 개교하였으며, 2001년 선교사 자녀들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학교로서

73) 조병호, 「한국기독교청년 학생운동 100년사 산책」 (서울: 땅에 쓴 글씨, 2005), 21-3.

74) 손종국, “청소년교육의 준거와 사역원리” (서울: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56.

75) 배평모, 「울타리 없는 학교 거창고등학교 이야기」 (서울: 한결음, 2000), 15.

76) 김명자, “기독교대안학교 교사의 교육체험에 대한 질적 연구” (충남: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10.

한동글로벌학교가 개교하였다. 2002년 교회가 설립한 초등학교 과정인 사랑방 공동체학교가 설립되게 되었다.⁷⁷ 도시형 기독교 독수리기독교학교가 시작되었다. 2003년 영어권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교가 충북 음성에 글로벌비전크리스천스쿨(GVCS)이 설립 개교되었다. 이후 영어권대학에 진학을 위한 국제학교들이 붓물을 이루는 설립 러시를 이루었다. 그 가운데 2004년 한국크리스천학교가 설립되었다. 같은 해에 전인기독교학교가 개교하였다. 삼광국제학교가 개교하였다. 2005년 두레학교가 개교하였다. 2006년에는 대형교회들이 기독교대안학교들을 많이 설립하였다. 분당 샘물교회가 설립한 샘물초등학교가 개교하였다. 일산 광성교회가 설립한 광성드림학교가 개교하였다. 꽃동산교회가 설립한 웨마기독교학교가 개교하였다. 등대 국제학교가 개교하였다. 2007년 굿뉴스사관학교가 개교하였다. 2009년 예일교회가 설립한 예일크리스천학교가 개교하였다. 2011년 밀알두레학교가 개교하였다.⁷⁸ 2014년 우리기독교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대안학교가 설립되게 되었다.⁷⁹ 이렇게 시작된 대안학교는 2017년 현재 500여개에 달하게 되었다. 이중 비인가 대안학교는 32개교 미인가 대안학교는 22개이다.⁸⁰ 기독교 대안학교를 가장 많이 설립하는 주체는 교회이다. 2006년 통계에서는 39.5 퍼센트, 2015년 통계에서는 교회가 41.7 퍼센트, 법인 20.2 퍼센트, 특정개인 15.5 퍼센트 학교법인 11.9 퍼센트, 법인이 아닌 단체 10.7 퍼센트로 밝혀진 통계로 볼 때 교회가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⁸¹ 그러나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소속한 대안학교 연합회들이 우후죽순처럼 나뉘어짐으로 인해서 매해에 설립된 학교들의 숫자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77) 김지현, “육하원칙으로 살펴본 기독교 학교의 현주소,” 「목회와 신학」, 311호(2015): 52.

78)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교대안학교 가이드」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98-167.

79)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 「문화를 알면 교육이 보인다」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111-20.

80) 기독교연합신문, “정부도 알지못하는 대안학교 통계” [온라인자료]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2&sc_sub_section_code=S2N8&view_type=sm 2017년 8월 1일 접속.

81) 김지현, “육하원칙으로 살펴본 기독교 학교의 현주소” 「목회와 신학」, 311호(2015): 53.

4. 대안교육의 필요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공교육 부재로 인한 심각한 중·고등부의 문제들과 더욱 심화될 미래의 문제들을 극복하여 현상유지가 아닌 다시 청소년부의 성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써 대안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많은 교회들이 유년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사라져 가는 현실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교회들은 비례적으로 중·고등부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정도 실행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소형교회는 더 이상 주일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신앙교육과 전문적인 기독교 교육, 기독교인으로서 훈련할 수 있는 대안학교 교육이 하나의 방법이다.

1) 대안교육의 역사

(1) 대안학교는 초기 선교사들로부터 출발되었다

기독교의 대안교육의 역사는 선교사들의 선교 초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구한말에 철저하게 쇄국정책을 펼쳐왔던 외교정책에서 문호개방을 하면서 근대화의 길로 들었다.⁸² 그 무렵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1884년 9월 22일 미국 북장로교 의료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어 미 북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와 스크랜튼(Mary Scranton)부인이 입국하게 되었다.⁸³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1890년부터 1910년 사이의 어간이 기독교 학교와 깊은 연계성을 가진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⁸⁴ 한국교회에 의한 학교설립은 네비우스선교정책(Nevius Mission Plan)에 따른 것이었다.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는 중국지부에서 사역하였던 네비우스(John

82) 박상진의 14명, 「학교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2010), 108.

83) 박상진, 「기독교 학교 교육론」, 135.

84) 박상진의 4명, 「기독교학교, 역사에 길을 묻다」, 13.

Livingston Nevius)를 1890년 6월에 초빙하며 “자립, 자조, 자주치리”에 의한 토착교회 설립 방법에 대한 권면을 듣고 이를 선교지에 정착시키려 노력하였다.⁸⁵

(2) 대안학교 설립은 선교를 토착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10대 선교방침”을 1893년에 확정하게 되었는데, 그 중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섯 가지 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도의 목표를 상류층보다 근로계급의 층에 두는 것이 낫다. 둘째, 모성은 후대의 양육에 중요한 영향력을 주므로 부녀자와 청소년의 교육을 특수목적으로 한다. 셋째, 군소재지에 기독교를 설치함으로써 기독교 교육에 성과가 많을 것이니 선교부 소관학교에 재학한 남학생들을 교사로 양성하여 각지방에 파송한다. 넷째, 교육받은 교역자를 배출하는 희망도 우리 교육기관에서 실현될 것이니 이 점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모든 문서사업에는 한자의 구속을 벗어나 순 한글을 사용함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 따라서 전도를 위해 우리 자신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전도자의 교육에 전력해야 한다.⁸⁶

선교사들의 주력 선교사업은 교육하는 것이었다. 선교사가 직접 전도하는 것 보다는 조선사람을 전도하여 그들에게 전도교육을 시켜서 토착화된 전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교회가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독교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William M. Baird)는 1897년 8월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부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네비우스 선교정책을 입안하여 “우리의 교육정책(Our educational policy)”이 심의되고 채택된 것이다.⁸⁷ 윌리엄 베어드는 선교부의 선교정책인 네비우스 방법을 교육정책으로 적용하고자 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였다:⁸⁸

기독교학교 설립과 운영의 기본이념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문들을 다양하게 가르침으로서 국가나 사회에 기여하는 일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또한 신앙의 증진을 통해서 교육해야 할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이 학생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어 토착교회를 이루게 하기

85)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기독교출판사, 1983), 191-5; 박상진 외 4명, 「기독교학교, 역사에 길을 묻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3), 13-4. 재인용.

86)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기독교출판사, 1983), 191-5.

87) 박상진, 「기독교학교, 역사에 길을 묻다」, 15.

88)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과 기독교학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85.

위함이었다.⁸⁹교회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지역의 유지들이나 또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시설물이나 또는 학교부지들을 기증함으로써 학교 설립하는 것이 붐을 이루기도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맥팔랜드(Mrs. McFariand)선교사는 대구 선교구를 담당하면서 학교설립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했다. ‘학교에 대한 열망이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 약 세 학교 내지 네 학교가 설립되었다. 교육에 대한 한국인 들의 열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어떤 규모의 교회이든지 머지않아 그 자체의 남녀 학교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올해 우리 시골지역에서만 49 개 초등학교에 433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3) 대안학교에 대한 일제의 탄압

초기 대안학교의 설립 이념은 기독교의 복음전파와 인간가치의 증진, 여권신장, 신식 생활방식의 보급, 그리고 자주정신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두었다.⁹⁰ 당시 대안학교가 우후죽순처럼 세워질 시기가 일본이 지배하던 시기였다. 초기 선교사들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게 된 것은 선교에 목적을 두었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기독교 대안학교는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창구가 아닌 한국인으로서의 기독교의 토착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대안교육을 통해서 추구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를 위해서였고, 다음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이었다. 또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의식의 고양을 위한 것이었다. 이는 일제의 침략을 통해서 압제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염원하는 몸부림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저항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일제는 ‘종교와 교육의 분리’라는 논리를 들고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대안교육은 표면적으로 신앙과 자주적인 의식들의 토착화를 위한 것이었다. 일본은 1905년 교육을 통한 항일운동이 확산되게 되자 교회와 기독교 사립학교의 교육을 분리하기 위해 1911년 8월에 분리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종교와 교육을 분리하도록 했으며 종교와 정치도 분리할 것을 종용하였다. 1908년 8월 26일 사립학교령이 발표되게 되었다.⁹¹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제한하고 기존의 학교들에게는 발표된 령을 받도록 하였다. 이뿐 아니다.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교과서도 1908년

89) Ibid, 15.

90) 손인수, 「한국교육사연구(하)」 (서울: 문음사, 1998), 241.

91) 박상진, 「기독교 학교 교육론」, 145.

8월 28일에 검정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기독교의 교과목은 첫째가 성경교육이었다. 1900년에 신약이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1911년에 구약성경이 번역됨으로 본격적인 성경교육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최초에는 선교사가 성경을 가르쳤으나 서서히 한국인으로 바뀌어갔다. 둘째로 국어교육을 하였다. 국어교육은 글자를 알게 함으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한 글자를 알지 못하여 억울함을 당하거나 알지 못하여 행하지 못하는 것을 극복하고 민족의 정기와 한국인으로서의 의식을 갖게 하고 애국하는 것을 배웠다. 1889년부터 읽기, 쓰기 작문, 편지쓰기 등을 경신학교, 한영서원, 배재학당 등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⁹² 셋째로는 음악교육을 하였다. 1885년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함께 찬송가를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찬송도 함께 가르쳤다.⁹³ 이렇게 배우게 된 음악은 교회의 음악에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은 물론 밖으로는 일제를 저항하는 음악을 만들어 독립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넷째로 체육교육을 하였다. 체육이라는 용어보다는 체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교육의 내용은 지. 덕. 체가 균형잡힌 전인적인 교육을 목표로 했다. 체육교사들은 대부분이 무관들이었기 때문에 목총을 메고 군대식의 군사 훈련을 받았다. 군사훈련을 동시에 받았던 사람들은 일제가 강제로 군대를 해산했을 당시 이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학교의 교련 교사가 되었던 것이다.⁹⁴

(4) 1908년 전국 대안학교 통계

190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노회 보고로써 대안학교들의 숫자가 보고되었다. 이 보고는 현재 기독교에 놀라운 도전과 청소년부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다:

1905년에 전국 장로교회가 운영한 소학교는 138개였으며, 학생수는 2,730명이었고, 1906년에는 238개, 학생수는 5,124명이었다. 1907년에는 학교수가 405개, 학생수는 8,615명이었다. 1908년도 장로공의회 통계보고를 보면 첫째, 경기도 예배당수 99개, 소학교 39개, 남 학생수는 647명, 여학생 수 205명, 중학교수는 남자 중학교가 1개 여자중학교 2개, 남학생수 126명, 여학생 수 65명, 대학교수 1개, 대학생수는 14명으로 보고되었다.

92) Ibid. 151.

93) 조용만 외 2인, 「일제하의 문화운동사」 (서울: 민중서관, 1970), 64; 박상진, 「기독교 학교 교육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6), 153. 재인용.

94) Ibid, 155-6.

둘째, 평안남도 예배당수 168, 소학교수 110 개, 남학생수 3021 명, 여학생수 790 명, 남자중학교수 2 개, 여자중학교수 1 개, 남학생수 295 명, 여학생수 100 명, 대학교수 1 개, 학생수 15 명으로 보고되었다. 셋째, 평안북도 예배당수 104 개, 소학교수 148 개, 남학생수 3100 명, 여학생수 621 명, 남자중학교수 1 개, 여자중학교수 1 개, 학생수는 보고되지 않았다. 넷째, 황해도 예배당수 95 개, 소학교수 83 개, 남학생수 1700 명, 여학생수 328 명으로 보고되었다. 다섯째, 전라남도 예배당수 63 개, 소학교 27 개, 남학생수 386 명, 여학생수 52 명, 남자중학교수 1 개, 남학생수 84 명으로 보고되었다. 여섯째, 전라북도 예배당수 105 개, 소학교 30 개, 남학생수 400 명, 여학생수 35 명, 남자중학교수 2 개, 여자중학교 1 개, 남학생수 62 명, 여학생수 39 명, 대학생수 1 명으로 보고되었다. 일곱째, 경상도 예배당수 203 개, 소학교수 85 개, 남학생수 1010 명, 여학생수 468 명, 남자중학교수 1 개, 여자중학교수 1 개, 남학생수 68 명, 여학생수 7 명으로 보고되었다. 여덟째, 함경도 예배당수 33 개, 소학교수 20 개, 남학생수 237 명, 여학생수 35 명, 남자중학교수 3 개, 남학생수 48 명으로 보고되었다. 전체예배당수 897 개, 소학교 합계 542 개교, 남학생수 10501 명, 여학생수 2646 명, 남자중학교수 11 개교, 여자중학교수 6 개교, 남자중학생수 683 명, 여자중학생수 211 명, 대학교수 2 개교, 학생수는 30 명이였다.⁹⁵

각 개 교회가 소학교와 중학교를 세워서 기독교인은 일반인들보다는 더 높은 교육열의와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음으로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특별히 교회수 대비 학교수를 비교해보면 3 개 교회당 한 개의 소학교를 설립했다는 통계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한글을 모름으로 성경을 배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배우게 하고 학교를 설립함으로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었으며 궁극의 목표인 선교를 할 수 있는 출구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2) 대안교육의 형태

기독교적 대안교육의 태동이 최초의 대안학교는 토착화를 이루려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선교와 암울한 시대를 일깨워 민족적인 정기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시대의 대안 교육의 형태는 기존의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입시위주의 교육방법으로써 학교 교육과 겹치기로 학원교육을 해야 하는 환경에서 기존의 신앙을 가진 청소년들이 주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95) Ibid, 121.

한국 교회 교회학교가 많은 문제들을 갖고, 시대조류에 따라 출산율이 급감하는 상황도 대안교육이 그 대안으로 제시된 이유이다.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은 물론 신앙과 기독교 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쳐 전인적인 교육의 형태로 교육의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노력이다.

(1) 기독교 대안학교 태동의 상황

공교육의 붕괴로 인해서 1997년 간디 청소년 학교가 개교하게 되었다. 이 학교는 비인가 중·고등학교로 설립되게 되었다. 이 학교의 설립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시작되게 되었다. 첫째, 최초의 전일제 대안학교이다. 둘째, 정부의 승인 없는 비인가 학교로 초법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비인가 대안학교로 누구나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대안학교 설립을 이루게 되었다. 1998년 아가피아의 꿈의 학교가 설립되게 된다.⁹⁶

1998년 2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 조인 특성화교육법은 대안학교가 가능하게 되는 최초의 법령이다. 이 법령을 근거로 6개의 특성화 대안학교가 설립되게 된다.⁹⁷ 이 법령은 1996년에 기존의 일반학교에서 중도 포기자, 학교 부적응자들을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법령이다. 이 후 1997년 민간이 설립하는 대안학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이후 2005년 3월 초·중등교육법 제 60조 3항의 ‘대안학교’법이 통과 되었다.⁹⁸

대안학교는 기존의 인가를 받은 학교를 다니던 중, 비인가 대안학교로 전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선교초기부터 시작된 기독교학교들은 서울 대광고등학교 강의석학생이 종교교육에 대한 반발로 법원 1심과 2심을 거쳐서 대법원에서의 최종판결이 뒤바뀌면서 미션스쿨일지라도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⁹⁹ 그동안 미션스쿨은 선교의 황금어장이라는 인식을 해왔었다. 그러했기에 기독교는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 후 미션스쿨이 아닌 교회를 중심으로 한

96) 정병완,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원리와 그 실천방안”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2009): 65.

9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 특성화교육법”은 학교의 최소규모로서 한 학급에 학생수 20명, 3개 학년 60명을 전교생으로 하는 교육법.

98) 김태연,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정책」 (차주: 한국학술정보(주), 2008), 25.

99) 서울중앙지법 2007, 10, 5 선고 2005가 단 305176 판결: 항소(손해배상), 각공 2007하, 2497.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더욱 활발하게 세워지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다. 대안교육은 기존의 공교육의 반작용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규 학교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닌 인성교육중심의 대안학교, 독서중심의 대안학교, 문화중심의 대안학교, 음악중심의 학교, 소규모의 대안학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대안학교 교육에서는 현재 공교육에서 불가능한 3 가지 측면을 더할 수 있다. 첫째,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이다. 이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¹⁰⁰ 둘째, 교육의 효과적인 면이다. 교육의 효과는 개인적인 효과, 사회적인 효과 비경제적인 효과,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⁰¹ 셋째, 가정과 사회의 요구가 수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과 사회적인 요청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⁰² 이러한 필요성이 공교육을 통해서 충족되지 못하고 교육의 위기를 불러오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는 학생들이 기존의 학교를 떠나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공교육의 한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서 대안교육으로 연결되게 된 것이다. 대안학교는 공교육이 지배적이고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자율성과 창조성을 살려주지 못하게 되자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충족을 가져다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교육의 대안으로 찾게 된 것이다. 기독교 대안학교도 이러한 교육현상으로 인해 기독교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학교로서 대안학교를 자율성과 창조성과 거기에 전인적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독교내의 각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설립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 이유는 기독교성이 결여된 학문에서 ‘기독교적 특성’을 더하게 됨으로 인해서 ‘고유이념 추구형 대안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대안학교’는 기존의 공교육을 대안 하려는 목적을 추구하지만 않는다. 그 대안이 기독교적이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다.

100) 정병완,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원리와 그 실천 방안”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2009): 39.

101) Ibid., 39.

102) Ibid.

(2) 대안교육의 현황¹⁰³

기독교 대안학교로서 인가 비인가를 통틀어 2014년 통계로는 전국에 207개교가 운영되고 있다.¹⁰⁴ 학교 평균 학생수는 56.8명에 이르고 있다.¹⁰⁵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교회와 같이 기독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기독교 학교들처럼 신앙을 갖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들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교육하면 더 많은 선교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홍보를 위한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며 지나친 경쟁 때문이다.

i) 전일제 형태의 대안학교

대안학교 초기인 1996년 10월 ‘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안학교 설립을 발표했다. 이후 1997년 학교설립을 완화하기 위해서 ‘고교설립준칙주의’를 발표했다. 이것이 1998년 2월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특정분양의 인재양성’(직업분야) 또는 ‘체험위주교육’(대안교육분야)을 할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제화되었다. 그렇게 하여 1998년 6개 학교 성지, 간디, 원경, 화랑, 양업, 한빛고등학교가 시작되었다.¹⁰⁶ 현재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요리, 영상제작, 관광, 통역, 금은보석세공, 인터넷, 멀티미디어, 원예, 골프, 공예, 디자인, 도예등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로 나뉘어 기독교 계통이 아닌 일반학교들도 많이 세워지게 되었다. 전일제학교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학교에 등교하여 오후까지 교육을 하는 것인데,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비정규 대안학교는 전일제 학교 형태로 운영되면서도 정규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학교들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¹⁰⁷ 기독교 대안학교는 실제 인가를 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103) 이종태, 「대안교육 이해하기」 (서울: 민들레, 2008), 134.

104) 김창완 외 4명, 「기독교학교의 미래전망」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5), 41.

105) Ibid., 51.

106) Ibid., 135.

107) 이종태, 「대안교육 이해하기」, 136.

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의 만족을 위해서 비 인가 대안학교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인가를 받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추구하는 커리큘럼과 교육부에서 원하는 커리큘럼과 충돌이 되기 때문이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전인적인 신앙교육과 일반학문을 함께 교육하는 고유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목표가 있다.

둘째, 위탁 대안교육기관은 2000년대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대안교육 현장이다. ‘위탁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생이 결석일 수 누적이나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나머지를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이다.¹⁰⁸

ii) 프로그램 형태의 대안교육¹⁰⁹

첫째, 계절학교는 전일제 학교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특정한 계절에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계절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수하게 된다.¹¹⁰ 이런 계절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확산되어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계절학교는 대안학교에 진학할 학생들에게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방학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방과 후 또는 주말학교는 기존의 학교의 수업을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¹¹¹ 지역에 속한 교회가 청소년들을 방과 후에 교회로 모이게 하여 부족한 학업을 지도하여 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주 5일제가 확대되면서 주말학교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 교회들이 방과 후 학교나 주말학교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깊은 유대관계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선교를 목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학교들을 여러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인가와 비인가, 인가를 받은 학교들은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다. 비인가 학교들은 학교 설립자의 정신을 따라서 교과목을 자유롭게 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둘째, 기독교성

108) Ibid., 137.

109) Ibid., 138.

110) Ibid., 138-9.

111) Ibid., 139

대안성, 기독교성의 학교들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지만 대안성을 가진 학교는 생태 학교형, 재 적응학교, 고유 이념추구를 하게 된다. 셋째, 국제 학교형과 국내 학교형이 있다. 기독교학교는 대부분이 국제학교형을 지향하고 있다. 학교의 이름에 국제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국내를 지향하는 학교는 국내학교를 목표로 기존의 고등학교나 또는 대학교를 가기 위한 교과목들을 공부하게 된다. 특별히 비 인가학교는 검정고시 반을 운영하여 상급학교 진학을 돕고 있다. 넷째, 도시형 전원형의 학교가 있다. 도시형 학교는 일상적인 삶과 문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하는 반면, 전원형 학교는 생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을 주로 하게 된다. 다섯째, 기숙형 학교와 비 기숙형 학교가 있다. 여기서는 도시형일 때 대부분이 비 기숙형이고 전원형의 학교들은 기숙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원형의 학교는 통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¹¹²

5. 기독교교육으로서의 대안교육

존 칼빈(John Calvin)은 교육의 영역을 가정과 교회, 학교 그리고 국가로 보았다.¹¹³ 현재 국가와 학교는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그렇다면 교회와 가정이 자녀들의 신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비인가 대안학교로서 기독교 교육을 학교 내에서 커리큘럼을 적용함으로써 학점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대안학교는 기독교 교육만이 아닌 국가가 상급학교에 진학을 위해서 요구하는 공교육 과목을 이수하여 비인가 대한학교 일 때 검정고시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대부분이 오전에는 공교육을 오후에는 기독교 교육과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다.

112) 박상진 외 3명,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육성과를 말한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31-40.

113) J. Chr. Coetzee, “Calvin and the School” John Calvin-Contemporary Prophet, Jacob T. Hoogstra Ed. (Grand Rapids : Eerdmans, 1957): 224. 정병완,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원리와 그 실천방안”, 98. 재인용.

1) 대안교육의 내용

대안학교가 무엇을 통해서 교회교육의 대안을 이루어갈 수 있을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육의 내용의 기초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배가 있다. 학생은 누구나 예배에 참여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둘째, 교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성경공부가 아니라 청소년들에 맞춘 신학이 가미된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하게 된다. 셋째,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게 된다. 넷째, 성경에 기초한 습관과 균형잡힌 전인적인 교육을 하게 된다. 넷째, 매일의 QT를 통한 묵상과 기도를 하게 된다. 다섯째, 기독교 가치관과 목적을 가르치게 된다. 이외의 방과후 교육으로서 소그룹 제자훈련, 기독교인의 성품과 인격훈련, 경건훈련 등을 하게 된다.

2) 대안교육의 과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교육을 하게 되는 정규 커리큘럼을 의미한다.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이념을 통해서 교육의 방향이 설정되게 된다.

(1) 예배와 성경 교육과정

대안학교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매일 공교육 과목과 같이 오후에는 커리큘럼 시간표대로 교육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기독교인으로서 기초적인 과정으로 예배가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매일 QT가 있다.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교리공부, 성경공부, 제자훈련이 교육과정이 된다.

(2) 공통필수 과정 및 필수 과정

대안학교는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모든 과정들을 교육하게 된다. 일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목들도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로 인한 목적과 가치관을 갖게 한다. 대부분의 기독교 대안학교들은 일반 공통필수 과목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교재들이 모든 과목들이 완성해가고 있으며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서 교육하며 연구하고 있다.

(3) 전인적인 교육 과정

전인적인 교육과정에서는 성품과 인격훈련을 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다. 또한 기독교적인 윤리와 정서적, 육체적인 훈련과정을 통해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을 하게 된다. 사회봉사와 해외 봉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4) 특성화 교육과정

1인 1악기를 전문 강사를 통해서 교육함으로써 학교가 추구하는 특성화 과정을 통한 자기개발을 하도록 한다. 독서과정을 통해서 발표하고 나눔의 과정을 마칠 때 그 동안 독서한 글쓰기들을 책으로 묶어 나누도록 한다. 이런 특성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소질을 발견하고 음대에 진학하는 학생과 문예 창작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

(5) 자율학습 교육 과정

자율학습은 개인의 학업성취도에 따라서 개인이 자율학습의 기본지침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미진한 과목들을 담당 교사가 개인지도 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 자신들이 부족한 과목이 공교육 과목일 수도 있고 기독교 과목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학업 성취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한다.

(6) 홈스쿨링 부모 교육과정

기독교 대안학교는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홈스쿨링 과목이 있다. 이는 성경과목으로 교육이나 교사들에게 매주 월요일 오전에 학교에서 어머니 기도회를 마치고 교육을 받게 된다. 여기서 배운

것을 자녀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부모에게 배우고 부모로부터 학점을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과정은 학생에게도 유익한 과목이 되지만,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부모님들이 신앙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다.

3) 대안학교의 교육체계

기독교 대안학교는 학교 설립 이념이나 정신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체계를 갖게 된다. 그러나 기독교 대안학교는 교육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공교육을 하게 됨으로 기존의 일반학교를 통해서 이루려는 상급학교의 진학을, 검정고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공교육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교육체계의 붕괴로 인해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었던 환경을 바꾸어 기존의 입시제도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체계 있는 기독교 교육을 충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신앙과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대안교육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출발하게 된다

기독교 대안학교 과정은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출발하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는 말씀처럼 대안학교 교육과정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공교육과 기독교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실현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과정들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기독교의 대안학교는 그리스도안에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됨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교육이다. 학생들에게 이를 준비시키는 곳이 대안학교다. 교육과정의 목표는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¹¹⁴ 여기서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비전과 사명을 품고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발견하고 계발함으로써 세계화에 걸 맞는 인재가 되도록 하는 곳이다. 기독교적 가치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그 가치 위에서 목적을 추구한다.

114) 조안진,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목회와 신학」, 311호(2015): 60-1.

(2) 대안교육은 공교육과 같이 가야 한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일반 교육과정은 같으나 전혀 다른 이해에 서게 되는 준거를 가지고 있다. 첫째, 기독교 대안학교는 공교육 과정을 기본적으로 교육한다. 이외의 기독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기독교 대안학교의 기본 설립이념을 성취해가게 된다. 둘째, 기독교 대안학교는 공교육 과정을 기본적으로 교육하되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재구성하여 교육하게 된다. 셋째, 외국 기독교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차용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인 서구식 교육과정 모델이 있다. 넷째, 각 학교의 교육이념에 맞게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인 독자적 교육과정 모델이 있다.¹¹⁵

(3) 대안교육의 수준별 교육운명을 해야 한다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로 우선해야 할 사항은 수준별 교육이다. 교육과정에서 개인차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개인들에게 각기 다르게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공교육의 실패 원인이 획일적인 교육의 운영에 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롬 12:6),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엡 4:7)라고 했는데 이것에 고려되지 않는 획일적인 교육은 대안성을 잃는 것이 된다. 대안은 개인의 특성을 살려주는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획일성보다는 다양성, 경쟁 보다는 협동,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성을 중요시하는 교육의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¹¹⁶

대안교육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인에 대한 존엄성과 인격적인 면면을 중요시하며 교육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공교육의 실패의 원인을 부분적으로 답습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공교육 이외의 시간들을 학생들과 기독교 교육을 해야

115) James W. Braley, 「기독교학교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한국기독교교육진흥원 역 (서울: CUP, 2006), 245-8.

116) 조안진,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목회와 신학」, 61.

하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기대가 더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운영만이 아니라 학교운영이 교육과정과 맞물려 돌아가는 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한다.

6. 소결론

한국교회가 청소년들이 사라지는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위기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청소년들은 학교의 공교육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사교육인 학원교육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잃게 되었다. 그결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잃게 된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자신의 공부에도 불만족하게 되고 신앙생활에도 불만족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대안학교가 탄생하게 된것이다. 공교육이 놓친 교육을 회복함으로 상급학교 진학하려는 학문적인 목표를 채워줌과 동시에 기독교 교육을 함으로 신앙은 물론 기독교 인재들을 발굴하려는 것이다. 대안교육의 필요는 공교육에서 원하는 학문과 기독교 교육을 통한 다음세대 선교적인 목적을 성취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

제 3 장

대안학교 설립을 통한 교회성장 사례 연구

선교초기 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기독교 대안학교였다. 이와 같이 대안학교 설립은 학교의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안학교는 학문과 인재양성과 성경진리를 통한 신앙성장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과 인격함양을 통한 선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제임스 W. 브래리(James W. Braley)는 대안학교의 시작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성령이 일으키시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일들 중 하나는 바로 성경에 기초하여 설립되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지역 교회 또는 선교단체의 선교 일환으로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을 인도하시고 있다.¹¹⁷⁾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통로이다. 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개교함으로 청소년들은 물론 전 세대를 선교하기 위함이다. 3 장에서 연구자는 기독교 대안학교설립으로 교회성장을 경험한 교회들의 사례를 통해 연구 분석하여 다시금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데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를 피력할 것이다.

3 장에서 연구하게 될 4 개 대안학교는 각 학교마다 추구하는 목적은 같으나 교육의 목표를 이루는데 있어서는 각기 다른 방법들을 취하고 있다.

첫째, 우리기독교학교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초등학교 과정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저학년으로 내려 갈수록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거둘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논문에서 초등학교부터 설립했을 때의 한 유형을 연구하기 위해서 선택하였다. 둘째,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학교 이전의 과정을 모두 두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대학교 이전의 모든 과정의 학교들을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기독교학교로서의 장단점과 중, 소도시에서 대안학교를 통한 교회의 성장에 미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선택하게 되었다. 셋째,

117) James W. Braley, 「기독교학교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19.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전 과정을 가진 학교이다. 이 학교는 국제학교로서 영어권의 학교들을 목표로 하여 영어로 수업을 하는 학교다. 한국 크리스천 스쿨을 논문의 연구대상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대안학교로서 영어권의 학교에 진학하게 하기 위한 학교였으며 학교 설립 이후 학부모들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고 성장해가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연구대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넷째, 자유기독교학교는 교회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독이지만 학교 교사를 상가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학교로서 그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이 학교는 소수정예를 지향한다. 특별히 자유기독교학교의 모체인 대광교회의 모든 교인들의 자녀가 아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인들의 자녀들만을 선택해서 부모와 새벽예배까지 드린다는 의미에서 선택하였다. 이렇게 4 개의 기독교 대안학교를 선택하게된 이유는 다양한 학제와 다양한 시설과 다양한 목적성을 가지고 연구대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1. 와우리교회의 우리기독교학교

1) 일반적인 현황

우리기독교학교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역말길 115 에 소재하고 있다. 우리초등학교라는 학교명은 교회이름이 와! 우리교회의 이름을 따서 앞의 ‘와!’ 자를 떼고 우리기독교학교라 명명하였다. 2013 년부터 학부모들의 독서모임을 시작으로 하여 1 기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학교가 2014 년 1 월부터 진행되었다. 2014 년 3 월 개교 및 입학 감사예배로 첫 학기가 시작되게 되었다. 당시 초등학교 3 학년까지 학생들을 모집하였고 현재는 그 학생들이 2018 년이 되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된다.¹¹⁸ 2018 년에는 중학교를 개교하게 된다. 설립자는 최초에는 고등학교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기독교 세계관을 갖도록 하는데 있어서 가장 골든타임은 어릴수록 더욱 좋다는 것을 받아들여 초등학교부터 설립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중학교 과정에 입학하여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진학하는 학생들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기독교학교는 초등학교를

118) 김신아, “와 우리교회 Vision Plan”, 1976-2016년 40주년 기념, 비전플랜, 10.

시작한 이래로 초등 6학년 12학급으로 15명씩 운영되고 있다. 학생수는 160명이고 교사 수는 강사까지 포함해서 27명이다. 급식 2명, 행정 1명이 근무하고 있다.¹¹⁹⁾

(1) 인원 현황¹²⁰⁾

<표 1> 우리기독교학교 인원 현황¹²¹⁾

과정별	학급수	학생수	반수	교사수(교사/강사)	기타
초등	6	160	12	27(17/10)	급식 2 행정 1 악기 7 태권도 3

(2) 시설 현황¹²²⁾

<표 2> 우리기독교학교 시설 현황¹²³⁾

항목	교육지원	교실	교장실	대강당	다용도실	도서관	식당	운동장	음악실	기타
개수	1	16	1	1	5	1	1	1	2	

2) 교육 목표¹²⁴⁾

우리기독교학교의 교육 목표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학생들에게 진리의 지평을 열어주기 위해서 설립된 기독교학교는 대안학교로서의 본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학교는 중·고등학교까지 시설을 준비해가지고 있으나 현재는 초등학교 과정만 운영되고 있다. 그 이유는

119) Ibid, 10.

120) 우리기독교학교, “학교소개” [온라인자료] <http://urischool.or.kr/> 2017년 9월 2일 접속.

121) 우리기독교학교, “학교소개” [온라인자료] <http://urischool.or.kr/> 2017년 9월 2일 접속.

122) Ibid.

123) Ibid.

124) 박만규, 「우리마음 N 꿈」 (경기도: 우리기독교학교, 2017), 40.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목표와 세계관을 분명하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판단으로 인해서다. 그래서 비 기독교인들보다는 신앙을 가진 학생들만을 선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교육하게 된 이유는 기독교적 교육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용이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리기독교학교는 4 가지의 교육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첫째, 전인성 둘째, 탁월성, 셋째, 기독교성 넷째, 중첩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네 가지의 교육 목표는 어떤 일반과목을 공부하더라도 목표로 하고 있다.

(1) 전인성(Wholeness)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전인적인 통합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치원인 6-7 세 과정부터 시작하여 8 세부터 시작되는 초등학교 과정에 있어서 어릴 적부터 신앙을 배우고 실천하여 현실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위가 일치하는 전인적인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전인성을 가진 교사들부터 제자훈련을 매주 받고 있다. 교육을 통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는 것을 믿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통해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전인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2) 탁월성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글로벌 인재로서 교육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사회인으로서 탁월함을 갖도록 교육하여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존재로서 그 비전의 성취를 현실에 이루게 됨으로 인해서 탁월한 그리스도인, 탁월성을 가진 사회인으로서 그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진정한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이라도 균형과 조화를 잃은 사람이 아닌 탁월하여 자신만 아니라 타자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됨으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하여 세우는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3) 기독교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민교육의 원안(Original)회복을 목표로 한다. 그리스도인의 절대 다수가 타협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들과 같이 섞여서 기독교인이라는 특별함이 아닌 더불어 색채도 없이 기독교인으로서 목적과 목표도 없이 타협하면서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기독교성을 가지고 살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와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갖도록 교육한다.

(4) 중첩성

기독교 교육을 통한 통섭적 소통을 위해서 다학제적 융합교육을 목표로 한다. 기독교 교육이라고 해서 편협한 교육이 되게 하거나 또는 통찰력을 잃거나 또는 통전성을 잃은 교육이 아니라 융합적으로 폭이 넓은 교육으로서 다양한 학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문의 폭을 넓게하여 다양한 학문적 요소들을 통해서 글로벌한 인재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이다. 유치원부터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거쳐서 고등교육에까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학문적인 시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학교와 교회, 가정이 연합하고 세상 가운데서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으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¹²⁵⁾

125) 우리기독교학교, “교육과정” [온라인자료] <http://urischool.or.kr/> 2017년 9월 2일 접속.

3) 교육 내용¹²⁶

우리기독교 학교 교과 편성에서의 교육내용을 보면 4 가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첫째, 기독교 세계관 교육(Christianity) 둘째, 전인적 통합교육(Wholeness) 셋째, 글로벌 인재교육(Vision) 넷째, 다학제적 통섭교육이 우리기독교 학교의 교육 내용이다.

(1) 기독교 세계관 교육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인본주의에 입각한 가치, 상대적인 가치관의 전이, 그리고 무분별한 다원주의적 텍스트의 난립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이다.¹²⁷ 우리기독교 학교는 매일 드리는 채플, 성경읽기와 암송, QT,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된다. 기독교 교육 연구 기관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과 교사 및 학부모 기도회, 영성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독교 학교는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교육의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교육과 기독교 교육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먼저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칠 수 있는 탁월함을 배양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이 먼저 말씀을 교육받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기독교 학교에서 주중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기독교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허락된 기회인 것이다. 물론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는 학교 설립자의 의도로 말미암게 된 것이기도 하다. 특별히 매주 학부모 기도회는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하게 되는 기독교 교육은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와 다른 시스템으로서의 가정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자녀들의 기분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주 학부모 기도회는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도회고 격려고 위로고 칭찬인 것이다.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에 발 맞추기 위해서 학부모 기독교 세계관으로 학습하고 있다. 학부모의 학습은

126) 김신아, “와 우리교회 Vision Plan”, 11.

127) Ibid, 11.

학교의 교사들만큼 중요하다. 그 이유는 부모가 가정에서 하게 되는 홈스쿨링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전인적 통합교육

우리기독교학교는 국가 교육으로서의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인본주의적이며 물질주의적이고 상대적 가치관으로 인한 편협함으로 인해서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단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교육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인적인 통합교육인 것이다. 학생들에게 나눔의 리더십을 교육하고 훈련한다. 또한 통합 인성체육으로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봉사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공교육 가운데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스펙(Specification) 정도로 인정되지만 기독교 학교에서 하게 되는 봉사는 그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가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학교에서만 아닌 가정에까지 연계하여 부모님과 또는 형제들과 더불어 교육을 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전인적 통합교육은 한 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성을 확보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하는 교육이다. 공교육 과목들도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배우는 전인적 교육시스템이다. 기독교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가서 어떤 전공을 하게 되더라도 기독교 세계관과 전인성을 바탕으로 학업을 계속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진 리더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3) 글로벌 인재교육

우리기독교학교에서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학생들과 중·고등부에까지 영어와 중국어를 기본으로 하는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다. 국제학교는 아니지만 학교 교육을 마치고 외국에 유학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외국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국제학교들이 가진 단점들을 극복하고 국내 대학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국외학교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글로벌한 인재들을 교육하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배운 외국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외

탐방 이동수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수준은 일반 학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다. 그러나 작은 기독교교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공교육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인재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만들어진다. 다시 말하면 교육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학생들의 특기 적성 계발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검사하여 개인에 맞는 것을 수준별로 하도록 하고 있다. 예능이 그러한 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교회 내에서 오케스트라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기독교에서 악기를 전공하려는 학생들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취미로 또는 한가지 악기를 누구나 다룰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전공하려는 학생들도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특별활동 시간정도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4) 다학적 통섭적 교육

공교육의 문제점들이 시험을 통해서 줄 세우기를 하기 위해서 논술고사를 보게 된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개인이 필요로 여기는 학문과 문화와 의식을 갖기 위해서 많은 독서를 하게 한다. 독서를 하게 됨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든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독서 보고서를 쓰도록 하여 글 쓰는 실력을 향상시킨다. 이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인격적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한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갖도록 훈련한다. 자긍심과 상대방을 위해서 측은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학생들을 문화와 생태현장 학습을 하도록 하여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서 다양한 삶들을 가르치고 있다. 대학을 국내로 선택하기 때문에 독서와 논술 토론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화 하여 교육하고 있다.¹²⁸⁾

128) 우리기독교학교, “교육과정” [온라인자료] <http://urischool.or.kr/> 2017년 9월 2일 접속.

4) 교육특성¹²⁹

우리기독교학교 교육은 5 가지의 교육과 연계되어 있다. 첫째, 성경, 채플, QT 둘째, 독서 셋째, 창의적 재량 넷째, 외국어 다섯째, 교육 연극이다. 교육 과정의 특색은 통합형 교육 과정이다.

(1) 성경적인 세계관

우리기독교학교는 유치부와 초등학교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움을 통한 인식, 경험을 통한 의식, 의지가 무엇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관을 갖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세계관의 교육을 통해서 훈련이 되게 되면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생각하는 것에도 결코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 없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면 자신의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교육하고 훈련하게 된다.

(2) 교과적 이해

우리기독교학교는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기존의 국민공통 교육과정의 본래적인 것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적 세계관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이유는 공교육에 있어서 평가는 학습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한 줄 세우기의 방편으로 테스트를 하게 된다. 누가 더 큰 실 수를 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함정파기인 것이다.¹³⁰ 그러므로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전문가들도 대안교육에 자신의 자녀들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교육은 인간중심의 물질적인 교육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기독교 학교에서

129) 김신아, “와 우리교회 Vision Plan”, 11.

130) Ibid., 10.

성경적인 세계관을 중심으로 말미암은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인간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3) 적용과 확신

이렇게 인간중심의 교육을 통해 물질중심의 이해와 해석을 하고 그에 따른 가치와 행동을 통해 삶을 살려 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을 위한 가치들이 역설적으로 고통하게 하는 문제들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성경적인 가치관과 목적과 세계관을 가지고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국민 공통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있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교육하고 이해하고 훈련하며 삶을 살도록 하는 교육이다. 성경적 핵심가치 덕목을 중심으로 한 인격교육(Biblical core-values education)을 하고 있다. 우리기독교학교는 성경 수업과 독서 교육과 교육 연극 우리 누리시간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음악과 체육 등 예체능 권장 수업을 하고 있다.¹³¹

5) 우리기독교학교 분석

(1) 단점

우리기독교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받아들인다. 학생들을 어려서 기독교 교육을 해야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학교나 또는 고등학교의 편입과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¹³² 기독교학교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대 명령도 존재하지만 학교를 통해서 불신자들을 전도해야 한다는 차원도 양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면에서 순기능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유치원생 때부터 잘 믿는 어린이들을 정예의 그리스도인으로 교육하고 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받아야 하지만, 선교적인

131) Ibid., 10.

132) Ibid.

차원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과 그 반대에 있는 학생들을 받아들이는데 대한 다른 제도는 없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장점

학교를 설립한 교회가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기독교들과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교사들이 다른 기독교 보다는 교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교사 연수과정에 수월함을 통해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를 설립한 교회의 담임목사는 이사장으로서 교장을 교회와는 관계없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로 세우고 학교 전반적인 행정이나 또는 학생선발과 교사들까지도 분리하고 교장에게 재량권을 허락하고 있다. 단지 교사들에게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목표와 세계관을 계속해서 유지 보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장 박만규는 제자훈련을 단계별로 매주 교사들을 상대로 하고 있다. 단점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결과론적으로 볼 때 장점도 될 수 있는 유치원생들과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학생들을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교육과 인격교육과 특성화 교육을 하는데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³³

6) 우리기독교학교가 와우리교회의 성장에 미친 영향

와우리교회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역말길 115에 위치하고 있다. 2014년 설립되어 1017년 현재 초등학교 6학년 12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기독교학교는 본 교회의 초등학교 3학년이하의 학생들만 선발하여 학교가 시작되었다. 그 이상 중고등부가 많이 있으나 모두 거부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라야 그것도 3학년 이하의 저학년들이라야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된다고 계획했던 것이다. 우리기독교학교는 그들을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목표와 성경적 세계관의 터 위에 온전하게 세워가고 있다. 그들이 학년을 거듭하여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다.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이 되어 중학교가 설립된다. 우리기독교학교가 이런 교육철학을 갖게 된 이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133) 박만규, “우리마음 N 꿈”, 5-9.

교육을 받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세우고자 하는 선민적인 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와우리교회는 현재 4천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신도시 봉담지구가 세워지면서 읍소재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오게 됨으로 와우리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 후 와우리교회는 서서히 성장이 둔화되었지만 학교가 세워진 2014년 이후 2017년 7월 현재 까지 300여명이 더 성장하게 되었다.¹³⁴ 학교를 통해서만 성장했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복합적인 성장의 원인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왜냐하면 학교가 세워지게 되면 그 교회는 지역사회에 공신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매가처치들은 학생모집에 급급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분명한 개교회중심의 철학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분석된다.

2. 은혜의동산교회의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1) 일반적인 현황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장로 25번길 58에 2004년에 설립된 은혜의동산교회가 2008년에 기독교 대안학교인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최초 초등과정을 방과후 학교로 시작한 것이 설립의 시작이 되었다. 학교 설립자인 이규현은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를 짊어질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학교가 설립된 지역은 인구의 유입이 더디고 발전이 농업과 어업과 작은 중소기업들이 혼재되어 있는 읍 단위의 지역이다. 학교시설은 독립된 건물이 아닌 교회시설을 사용하고 있다.¹³⁵

134) 최대웅, “와 우리교회를 소개합니다”, 2.

135)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학교의 발자취” [온라인자료] www.7grace.kr 2017년 9월 3일 접속

(1) 인원 현황¹³⁶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는 2009년부터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학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표 3>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인원 현황¹³⁷

과정별	학급수	학생수	교사수(교사/강사)	기타(10명)
초등	6	98	29(8/12)	행정 1, 급식 3, 북 카페 1, 관리봉사 3, 도서 1, 생협 1 외
중등	3	36	14(4/10)	
고등	3	35	17(5/12)	
합계	12	169	53(17/32)	교장 1, 교목 1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는 2009년부터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학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학년별로 15명 내외를 정원으로 하고 있다. 2017년 현재 학년당 초등학교는 98명이고, 학급 수는 6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학교는 36명이며 3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등학교는 35명이며 3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은 총 169명이며 교사 및 강사까지 53명이다.

(2) 시설 현황¹³⁸

<표 4>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시설 현황

항목	교육 지원실	교실	음악실	대강당	다용도 그룹실	도서관	식당	운동장	기 타
개수	1	13	1	1	4	1	1	1	북카페 (2)

136)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학교의 발자취” [온라인자료] www.7grace.kr 2017년 9월 3일 접속.

137)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학교의 발자취” [온라인자료] www.7grace.kr 2017년 9월 3일 접속.

138) 이혁재,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운영실제와 교육적 사명”, 2014년 4월 27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발표, 5.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는 학교 사용을 위한 시설 그 외의 시설은 교회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재건축을 하게 될 때 학교와 교회건물을 독립해서 건축할 예정이다.

2) 교육 목표¹³⁹

(1) 하나님의 나라 선포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의 교육 목표는 교육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실현이다.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롬 14:17)을 누리게 하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언어와 행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표를 이루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도록 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2) 신앙공동체 지향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는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회와 가정과 더불어 유기적이고 공동체적인 연합을 도모한다.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의 가치를 세우고, 가정은 중요한 실천처로서 학교는 훈련과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기독교들은 학교로서 기능을 하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교회와 연합하도록 하여 교회와 연계하려는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 학생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목적을 성취해 갈 수 있게 된다.

(3) 전인적 통합 교육과정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균형잡힌 성장(눅 2:52)을 목표로 하는 전인적 통합교육을 하고자 코메니우스(Comenius johann Amos)의 교육 철학적 모범을 따라 초등에서 고등에 이르기 까지 12년 동안 연계 교과 과정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학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됨으로 인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말미암은 학문을 추구하여 전인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139) Ibid.

3) 교육 내용¹⁴⁰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는 미인가 대안학교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교육 교재를 통해서 학년별 교육을 하고 있다. 반면 미인가 대안학교의 장점이 공교육 과목 이외의 커리큘럼은 학교장의 재량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교육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다른 기독교 교육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전교생에게 사용하는 교재는 「꼭꼭 씹어 먹는 성경」, 바이블 하우스에서 출판한 신 구약 전체의 중요사건을 균형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저작된 교재다.

(1) 초등 영성교육¹⁴¹

〈표 5〉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초등 영성교육 편성표

학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학년 별 성경 수업	창 세 기	구약 2	구약 3	구약 4	구약 5	구약 6	구약 7	신약 1	신약 2	신약 3	신약 4	신약 5
연차 별 수련 회	1년차- 바라 (창조) 캠프		2년차- 만나 (출애굽) 캠프		3년차- 살롬 (평화) 캠프		4년차- 유앙겔리온 (예수) 캠프		5년차- 뒤나미스 (사도행전) 캠프		6년차- 에클레시아 (교회) 캠프	
반별 양육	연 10 주제		연 10 주제		연 10 주제		연 10 주제		연 10 주제		연 10 주제	
공통	매일 말씀묵상/ 성경통독 연 1 회				매일 말씀묵상/ 성경통독 연 1 회				매일 말씀묵상/ 성경통독 연 1 회			
성구 압송	156 구절(52 x 3 년)						156 구절 (52 주 x 3 년)					

140) Ibid.

141) 이혁재,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운영실제와 교육적 사명”, 12.

(2) 중·고등 영성교육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자아 정체성(self-Identity) 확립과 꿈(Vision)의 탐구와 자신의 사명(Mission)을 깨우고 세우기 위한 목표를 이루는 교육을 한다. 교재는 백금산 저 만화 성경개관(신약과 구약)과 이덕주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사와 신국원의 니고데모의 안경, 백금산의 만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학습한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교육한다.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는 교양과목으로서 각종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도의 수준이 올라오게 되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게 하고 있다.¹⁴²

4) 교육특성¹⁴³

교육의 특성으로서 전인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을 것이나 5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하나님과의 만남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주중 교육을 통해서 배움은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라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교육을 한다. 혹자들은 기독교학교들에 대해서 우려하기도 한다. 학문이 아닌 신앙적인데 치우치게 되면 그 또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일반교육에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통한 전인적인 사람들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2) 공동체와의 만남

교사와 친구들과 깊은 교제를 바탕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조명하며 함께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는 교육을 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말미암은 세대는 공동체를 소중하고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에

142) Ibid., 13.

143)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교육과정” [온라인자료] www.7grace.kr 2017년 9월 3일 접속.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 학생들에게 공동체성을 교육해 줌으로써 더불어 같이해야만 하는 관계들 가운데서 전인적인 관계성을 이루도록 한다.

(3) 공동체간의 만남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라는 트라이앵글로 이루어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양육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인격적이고 그리스도안에서 만남의 소중함을 가지고 지속적인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인 관계를 갖도록 교육한다. 교회가 학교를 설립하게 된 이유가 이러한 목적을 담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하되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는 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가정은 자녀들을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로서 부모의 신앙의 본을 통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교육을 이루어간다.

(4) 자신과의 만남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교육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줄 아는 영적인 신령함을 체험하며 겸손히 따르는 존귀함을 배우게 된다. 개인의 이기주의적이며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포스트모더니즘세대의 학생들을 하나님과 자신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는 가치관을 가진 청소년들로 세우고자 한다.

(5) 지식과의 만남

학생이기 때문에 배워야 하고 배움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게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인한 그분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한 열정을 더욱 뜨겁게 해야 한다. 이 시대의 기독교 학교들이 세상의 학문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성품과 인격을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개인의 삶조차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됨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무능하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만남을 통한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⁴⁴

5)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분석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는 공교육을 통해 검정고시를 통해서 상급학교 진학을 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교육의 내용에서는 공교육이 아닌 기독교 교육에 대해 요약하였다.

(1) 교육의 단점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의 단점은 미인가 학교들이 부딪치게 되는 문제인 주무부서인 교육구청과의 문제다. 대안학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시설이다. 그래서 대안교육시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설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학력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대안학교의 존립 근거인 교육의 자율성을 해치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자율성의 훼손이 상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션스쿨들의 예에서 찾고 있다.¹⁴⁵

학교가 기존의 교회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독립과 의존성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역시도 고민하고 있다. 그 고민 중에 담임목사 유고시, 또는 목회정책의 변동이 있을 시, 지금까지 계승되고 공유했듯이 계속해서 교회와 학교가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것이다.

(2) 교육의 장점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교사들은 대부분이 대안학교 출신 교사들이다 보니 높은 헌신도를 자랑한다.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교육열의는 그 어느 학교 보다

144) Ibid.

145) 이혁재,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운영실제와 교육적 사명”, 14.

높다. 교육의 5 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나 자신과의 만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교육 둘째, 지식과의 만남,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교육 셋째, 공동체 간의 만남, 가정, 학교, 교회가 하나되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양육하는 교육 넷째, 하나님과의 만남,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즐거워하는 교육 다섯째, 공동체와의 만남, 교사, 친구들과 깊은 교제를 바탕으로 기독교 세계관 조명 아래 함께 사상으로 나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관계 지향적인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교회라는 공동체를 교육한다.¹⁴⁶

6)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가 은혜의동산교회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1) 기독교는 교회 주일학교에 탁월한 성장에 영향을 준다

은혜의동산교회는 주일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학교와 수요일에 모이는 수요일학교, 토요일학교로 모이고 있다. 기독교에 출석하는 학생들은 모든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되지만 기독교가 아닌 일반학교를 다니게 되는 학생들은 주일예배 한번 참여로 그치게 된다. 유년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주일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들은 의무사항이다. 은혜의동산교회는 학교를 2008년 설립 이래로 현재 유년주일 학생들과 중·고등부는 학교를 설립하던 해인 2008년 유년부와 초등부가 110명 정도 되었는데 비해 2017년 7월 현재 167명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중·고등부는 설립할 당시에는 100여명이었으나 2017년 7월 현재 유아 유치부는 198명이 출석하고 있다. 중·고등부는 160명으로 성장하였다. 청년부는 주일 출석이 76명이 출석하는 것으로 통계되었다.¹⁴⁷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학생들 모두가 은혜의동산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들은 아니다. 타 교회를 출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본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을 전도하여 본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불신자들이 학교를 통해서

146) 이규현,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팸플릿”, 3.

147) 이규현, “주일 통계” 14-28호 2017년 7월 9일, 은혜의동산교회 주보.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는 적지만 학교로 인해서 좋은 교회라고 지역사회에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를 전도하는데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2) 기독교와 교회 주일학교와 커리큘럼을 연계하고 있다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는 은혜의동산교회 주일학교와 커리큘럼을 연계하여 공유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는 교재는 QT, 매일 말씀묵상을 공유한다. 현재 매일 성경(성서유니온 간)을 유년부에서 고등부에까지 기본교재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른 교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게 됨으로 기독교 학생들과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육이 때로는 중복되기도 한다. 기독교는 교회의 절기(부활절, 성탄절)나 행사 (특별새벽기도회)에도 독립적인 이름을 가지고 교회행사의 순서에 참여하여 신앙의 커리큘럼을 공유하고 있다.

(3)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로 인한 은혜의동산교회의 성장

기독교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부모님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관계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기도회를 갖게 된다. 본 교회에 속한 부모도 있으나 절반가량은 다른 교회에 출석하거나 아니면 불신자다. 이들이 자녀를 위해서 매주 학교모임을 갖다가 교회에 나올 때 부담이나 또는 거부감 없이 출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사로 인해서 자녀가 전학을 하게 될 때도 가장 먼저 학교를 찾게 되는데 학교를 찾다가 기독교에 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부모도 학교가 있는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데 부담이나 거부감이 없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다.

은혜의동산교회는 학교가 세워지던 해인 2008년에 장년부 교인이 550명 정도였다. 그러나 2017년 장년부 1023명이 출석하고 있다.¹⁴⁸ 기독교만으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한 성장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읍 단위에 위치한 교회로서 9년만에 배가 성장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48) 이규현, “주일통계” 14-28호 2017년 7월 9일, 은혜의동산교회 주보.

(4) 기독교교회는 교회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작은 교회나 대형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세우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대원, 오케스트라 단원, 중창 단원, 각 기관의 헌신자들 대부분이 기독교 출신자라는 것이다. 학교에서 주중교육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나 누구보다도 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세상교육이 아닌 고등학교까지 미션스쿨 정도가 아니라 특별하게 말씀과 신앙교육과 성품과 인격에 대한 교육을 다년간 받은 인재들이다. 그러므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데 탁월하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오케스트라 단원으로든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별활동이라는 시간에 누구나 한가지 이상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을 받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이들은 교회의 직분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손색없이 헌신하고 있다. 교회내의 여러 중창의 핵심단원으로 섬기고 있다. 기독교 출신은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반 목회자와 같은 헌신을 하고 있다. 은혜의동산교회가 읍 단위의 지역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해올 수 있었던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 기독교로 인한 영향력이 매우 지대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¹⁴⁹

3. 한영교회의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KICS)¹⁵⁰

기독교교들은 대부분이 교회가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였는데 한영교회는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이 설립되고 나서 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여들게 됨으로 인해서 설립된 교회이다.

1) 일반적인 현황

KICS 는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의 약자다.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은 초등학교에서 중· 고등학교의 과정을 가진 학교다. 2004 년 9 월 1 일 유용국목사에 의해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22 번길

149) 이혁재,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운영실제와 기독교 사명”, 12.

150)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온라인자료] www.kicschool.com 2017년 9월 5일 접속.

93 에 설립되게 되었다.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은 최초 중·고등학교부터 세워지게 되었다.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진화론적인 주입식교육의 공교육의 현실을 보면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목표, 세계관을 기초하여 교육의 제 2 의 출애굽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한국 크리스천학교가 한국의 교회의 새로운 성장의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설립하여 현재 개교 13 주년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는 학교 캠퍼스를 부천 소사구 중동로 22 번길 93 과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길 136 에 제 2 캠퍼스를 개교하였다. 또한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3 길 38 에 제 3 캠퍼스를 설립하였다.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은 기존의 교사와 많은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으나 인가를 피하는 이유는 오직 기독교 학교로서 모델이 되고자 하여 교육을 관계기관에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하고 있다.¹⁵¹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은 국제학교다. 모든 과목이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3 개 캠퍼스의 교사는 32 명이 수업을 하고 있으며 행정과 운전을 합해서 24 명이다. 식당직원은 8 명이다.

2) 교육목표¹⁵²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의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행동, 좋은 생각, 예쁜 마음, 건강과 지혜를 겸비한 리더로 양육하여 글로벌 인재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독교 교육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를 만드는데 있다. 기독교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은 학교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탁월한 커리큘럼과 복음적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종으로서의 소명과 은사를 깨닫고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151) Ibid.

152) Ibid.

목표는 공교육을 통해서만 행할 수 없는 교육이다.¹⁵³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해야만 예수의 제자로서 세상에 흡수되는 존재가 아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3) 교육 내용¹⁵⁴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은 국제학교로서 영어권을 중심으로 유학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로 교육을 하고 있다. 특별히 국제학교는 미국의 밥 존스 대학교(Bob Jones University)의 커리큘럼을 통한 영어교재를 가지고 교육하고 있다. 특별히 밥 존스 대학교(Bob Jones University)의 교재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목표와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연구 제작된 교재들이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12학년이 배워야 하는 미국 학생들의 레벨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미국의 정규 교과목으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교재들을 사용하고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으로서 음악과 미술을 개개인의 특기와 적성검사를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트, 피아노, 첼로, 트럼펫, 플룻, 바이올린, 클라리넷, 보컬은 전문강사들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다.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으로서 국제적인 감각을 향상시키고 대학교 입학과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특별반을 구성하여 지도하고 있다. 오후 3:30-5:00 까지 Speaking, Speech, TOEFL, ACT-English(Reading), ACT – Science, AP – History, AP – Biology, AP – Math. 방과후 클럽 활동프로그램 Choir, Orchestra, Worship Team/Small Group, Sign Language, Media Club, Sports Club 을 하고 있다.¹⁵⁵

신앙교육으로서 다양한 예배와 기도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매일 QT 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도록 인도하고 있다. 영성 캠프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밥 존스 커리큘럼을 통한 교과목 운영을 중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히 밥 존스 교재들을 통해서 과목을 배우면서 학생들이 가치관과 목적과 목표와 세계관이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153)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교육과정” [온라인자료] http://kicschool777.cafe24.com/xe/ko_main 2017년 9월 6일 접속.

154)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교육과정” [온라인자료] www.kicschool.com 2017년 9월 6일 접속.

155) Ibid.

4) 교육 특성¹⁵⁶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이 사용하는 교재는 밥 존스 대학교(Bob Jones Univesity) 연구소에서 개발한 교재로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특별히 이 교재를 사용하여 공부한 학생들은 미국의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 교재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목적과 목표와 세계관을 담고 있음으로 인해서 진화론이나 또는 인본주의적이며 물질주의적인데 물들지 않고 오직 성경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학문을 가르치고 있다. 교육과정에 있어서 미국학제를 따르고 있다. 유치원 5-7 세, 초등학교 1-6 학년, 중학교 7-9 학년, 고등학교 10-12 학년으로 하고 있다. 학교의 전체 과목을 원어민 교사와 1.5 세 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다.¹⁵⁷ 학생들은 영어로 말하고 듣고, 쓰고, 발표를 하게 된다. 영어로 멘토와 멘티 프로그램(Mantor-Manttee progrem) 운영과 영어 존(English Zone)운영을 통해서 영어를 생활화하고 있다. 영어 드라마 콘테스트와 영어찬양 콘테스트를 통해서 영어실력과 향상을 배양함은 물론 학생들의 영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 크리스천학교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통한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학교 내에 있는 한영교회와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고 있으며 교회는 재정적으로 학교를 후원하고 있다.¹⁵⁸

5)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분석

(1) 단점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은 영어권 국가의 학교진학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국제학교이다. 학교시설이 짧은 거리 안에 있으나 본관과 신관, 교육센터, 서점, 남학생 생활관, 여학생 생활관이 각각 부천시 소사구 내에 흩어져 있다. 학생들이 주 교재는 밥 존스 대학교에서 출판한 교재들을 사용하고 있다. 2004 년에 학교를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외국대학교에 진학할

156) Ibid.

157) 유용국,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브로셔”, 6.

158)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교육과정” [온라인자료] www.kicschool.com 2017년 9월 6일 접속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업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한국의 대학을 진학하려는 기독교학교들처럼 기독교 신앙교육에 대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2) 장점

수학과 과학조차도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목표와 세계관을 통해서 학습의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본주의와 세속적인 가치를 주입시키는 공교육과 차별을 두는 대안교육으로서 탁월한 것이다. 특별히 글로벌시대에 외국대학교에 유학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기존의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해서는 외국 대학에 유학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무나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여 영어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대안을 위해서 국제학교가 그 틈새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설립자 유용국은 외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였으며 다년간 기독교학교에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척자 역할을 해냄으로 학생들이 외국 우수한 대학에 입학시키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불신자들이었던 학부모들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그것이 한영교회가 성장하게 된 작은 단초가 되기도 했다.

6)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이 한영교회의 성장에 미친 영향

한국국제크리스천학교가 설립되던 해인 2004년 9월 1일에 학교가 먼저 설립되게 되었다. 그 후 한영교회의 설립의 배경에는 놀라운 스토리가 존재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되고 3년인 2008년 7월 5일에 한영교회가 설립되게 되었는데 자녀의 유학을 바라던 학부모들이 우수한 미국의 대학들로 유학을 할 수 있게 되자 그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출석을 문의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설립되고 성장하게 되었다. 한영교회가 재정으로 학교를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이 졸업한 학교이고 이 학교로 인해서 유학까지 갔다는 감동은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하던 학부모들이 학교 교회인 한영교회를 나와주는 것이 돕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불신자들이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하였다. 한영교회를 최초 설립할 당시

2008년 7월 5일에는 4명의 어린이와 청소년 3명의 장년을 통틀어 7명이 개척멤버였었다. 현재 2017년 유치부와 유·초등부 50명과 중·고등부 65명, 출석교인 215명으로 성장하였다.

한영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오케스트라를 통한 정기 음악회, 찬양 대회, 실용음악 콩쿨 대회, 영상 캠프, 음악 캠프 등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면서부터 더욱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다. 한영교회는 학교의 행사를 지원하는 교회로서 한계점을 가진 교회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한 특별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개척 9년만에 지속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이는 담임목사가 설립자이다 보니 2곳의 캠퍼스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가운데 목회에 지속적으로 전념을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쉬움을 있겠으나 학교를 설립함으로 또 다른 교회의 한 모습을 목회의 대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4. 대광교회의 자유기독교학교

1) 일반적인 현황

자유기독교학교는 2007년 3월 3일 경기도 평택시 만세로 1854(평택시 비전동 115-7)에서 설립, 개교하였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평택 대광교회가 설립한 중고등학교 과정의 기독교 대안학교다. 자유기독교학교는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학생들은 선발하지 않는다. 또한 평택 대광교회에 속하여 순장과 각 기관의 리더를 경험하였거나 현재 헌신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다. 대광교회와 자유기독교학교와는 학교가 분리되어 있다. 학교주소는 현재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484-5번지에 단독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거쳐서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는 미인가 대안학교다.

2) 교육 목표¹⁵⁹

자유기독교학교의 교육의 목표는 믿음의 사람을 키우고, 올바른 신앙의 사람을 키우고 실력 있는 신앙인을 키우는 것이다. 첫째,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성경의 권위에 순응하는 신앙교육을 시켜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철저한 신앙 교육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해서다. 말씀을 통해 세상의 문화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배양하기를 원한다. 매일의 큐티와 성경통독, 제자훈련 등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교육하고 있다. 둘째 교육 목표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목표로 한다. 주입식 교육의 현 교육형태에서 벗어나 토론식, 발표식 수업, 원어민 수업, 자기 주도적 학습, 특기 적성 수업, 독서학습, 초청 토론, 문화체험 등 지식정보화를 주도할 창의력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셋째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한 인격교육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을 온전히 배우고 닮아가도록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추도록 교육한다. 넷째는 세상을 변화시킬 지도자 교육을 목표로 한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섬김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인류를 위해 힘을 쏟을 수 있는 탁월한 실력을 갖춘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비전교육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열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교육한다.¹⁶⁰

3) 교육 내용¹⁶¹

자유기독교학교의 교육내용은 국내 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학교에서 지향하는 공교육을 오전에 교육하게 된다. 그러나 기독교 대안학교로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의 첫째는 성경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학습이다. 학생들은 매일 QT와 매일 성경읽기를 통해서 일년에

159) 평택대광교회, “교육과정” [온라인자료] www.ptdaekwang.or.kr/ 2017년 9월 8일 접속.

160) Ibid.

161) Ibid.

성경통독 2 회를 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구절을 암송하도록 하고 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한다. 둘째는 삶을 변화시키는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폭넓은 독서학습을 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토론과 발표들을 통해서 사고능력을 배양시킨다. 넷째는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다. 자녀의 현장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배우게 한다. 국내외 문화체험을 통해서 방학을 이용한 캠프와 초청토론회를 하게 한다. 다섯째는 공동체 속에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배려와 섬김의 자세를 배우도록 한다. 그렇게 하여 리더십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을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한 자아상을 갖도록 하여 소중한 인격체로 대한다.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과의 상호 믿음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일곱째,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함으로 섬김과 이웃사랑을 실천한다.¹⁶²

4) 교육 특성¹⁶³

자유기독교학교의 교육의 특징은 철저하게 기독교 교육을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다. 매일 하는 QT, 1년에 학생이면 해야 하는 성경통독 2 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도록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철저한 제자훈련을 하고 있다. 모든 교육의 방향은 성경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간에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져 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특징은 태권도인데 졸업할 때까지 누구나 1 단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방과후 교육으로는 각종 악기를 전문강사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그리고 합창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이 잘하지 않는 것이지만 합창을 통해서 기독교의 영성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162) Ibid.

163) Ibid.

5) 자유기독교 학교 분석

(1) 단점

전교생이 40 명이기 때문에 작은 학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학교의 모체교회인 대광교회 교인들이 아닌 교회 밖의 학생들의 입학은 받지 않는다. 대광교회의 교회 중요한 사역을 하는 리더급들의 자녀들에게만 입학의 자격을 부여하게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과 부모들의 신앙은 좋아질 수 있으나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기회를 유기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¹⁶⁴ 대안학교는 단순하게 교육적 차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선교의 목적을 수반하기도 한다. 물론 선교적인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개 교회가 세운 대안학교라고는 하지만 기독교 전체적인 면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저학년의 학생들에게 어른들과 같이 신앙교육을 함으로서 역효과도 날 수 있는 우려가 된다.

(2) 장점

자유기독교학교의 장점이라면 자녀와 부모가 일주일에 최소 4 일은 새벽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1년에 성경통독을 3 번하도록 인도한다.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학교와 학생과 부모로 이어지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부모의 신앙을 보여주고 그를 보고 따라서 하도록 하는 삶을 통한 교육 방법이다. 학교를 설립한 교회의 교인들의 자녀들을 학생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과 학생의 신앙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외국에 봉사를 하러 출국하게 될 때에도 교회행사 같으면 취사선택을 할 수 있겠으나 학교에서는 획일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학교를 재정적으로 후원하여 현재 학교 3 키로내에 캠퍼스를 매입하여 학교를 건축 중에 있다. 이는 매우 큰 장점이 될 것이다.¹⁶⁵

164) Ibid.

165) Ibid.

6) 자유기독교학교가 대광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

대광교회는 자유기독교학교가 지향하는 수원 원천 기독교초등학교의 영향력을 따르고 있다. 원천기독교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원천 초등학교내에 있는 원천침례교회에서 일정한 신앙을 지도받고 헌신을 해야만 된다는 기준을 내부적으로는 적용하고 있다. 아직이야 미약할 수 있겠으나 점차 교육환경이 나아지고 학생들을 통한 결과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게 될 때 자유기독교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대광교회에 출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는 현재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에 수려한 경치를 가지고 있는 곳에 건축 중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교회가 전적으로 후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대광교회가 자유기독교학교를 설립한 2007년에는 중고등부가 250 명정도 되었다. 성인부는 1 천 7 백명이었다. 2017년 올해로 학교설립 10 주년이 되는데 대광교회 중· 고등부는 3 백명 정도다. 성인부는 2 천 2 백명이었다. 이러한 수치로 볼 때 학교가 교회에 영향을_절대적으로 미쳤다고 분석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교회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현재 대광교회 주변에는 평택에 세교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대광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학교운영이 현행대로 라고 할때 지명도가 높아진다면 학교는 대광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설사 운영의 방법을 바꾸어 믿지 않는 학생들까지 입학이 가능해진다면 더욱 교회에 대한 역할에 있어서 학교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¹⁶⁶

5. 소결론

학교를 설립한 와우리교회, 은혜의동산교회, 한영교회, 대광교회가 설립한 학교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조사했을 때 현재 수치적인 교회성장은 놀라운 것이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기까지는 단순한 의미에서 학교로 말미암아 성장했다고는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국 크리스천스쿨 내에 있는 한영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166) Ibid.

와우리교회와 은혜의동산교회와 대광교회는 주변에 새로운 신도시들이 입주해 됨으로 인해서 학교가 설립되고 개교하기 직전 대비 현재까지 각각 200 퍼센트 이상 성장하였다. 학교를 설립한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교회들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비인가 대안학교일지라도 지역사회에 공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이미지가 지역주민들에게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기독교학교를 설립 개교한 것으로 광고될 때 호감도가 높은 교회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3 장에서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대안 기독교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새로운 교회성장의 보루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제 4 장

대안학교를 통한 청소년 목회를 위한 설문 연구

1. 설문의 목적과 절차

1)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은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목회자들의 이해와 설립 계획과 청소년 목회에 대한 대안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동안 장년목회를 해오던 데서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목회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다음세대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적용해 나갈 것이며 대안학교와 청소년 목회를 희망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실제적인 안내가 되는 자료가 된다.

2) 참가자

본 설문에는 총 35 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경기도 남부지역인 수원, 용인, 화성, 평택지역에서 현직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와 그들의 아내들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3) 설문 절차와 방법

설문을 수련회 가운데 약 30 분동안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설문 전에 리버티 대학교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거친 후 설문동의서를 거쳐서 참가자들의 참여 의사를 묻고 그 후 참여의사를 확인 후 설문지를 나누고 그 결과를 받게 되었다.

4) 설문 구성과 내용

설문의 문항은 총 27 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다. 개인적 질문은 1-7 번, 참석자의 교회에 대한 질문 8-11 번, 청소년 사역에 대한 경험 12-15 번, 사역하는 교회의 청소년에 대한 질문 16-20 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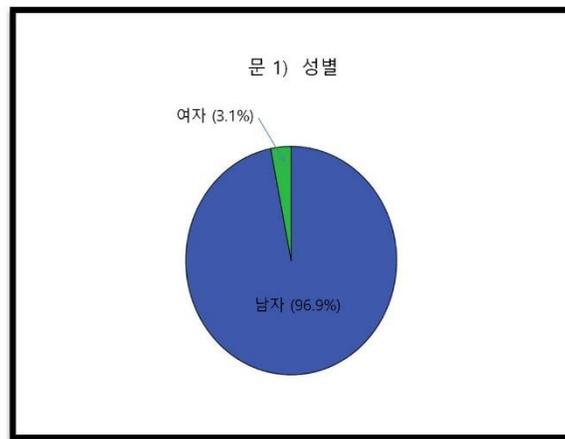
청소년 단독 목회에 대한 질문 21-26 번, 대안학교를 통한 청소년 목회에 대한 질문 27 번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의 형식은 1 가지의 답만을 위하는 객관식과 해당사항을 선택할 수 있는 객관식, 자신의 대답과 생각을 기록할 수 있는 주관식으로 하였다.

2.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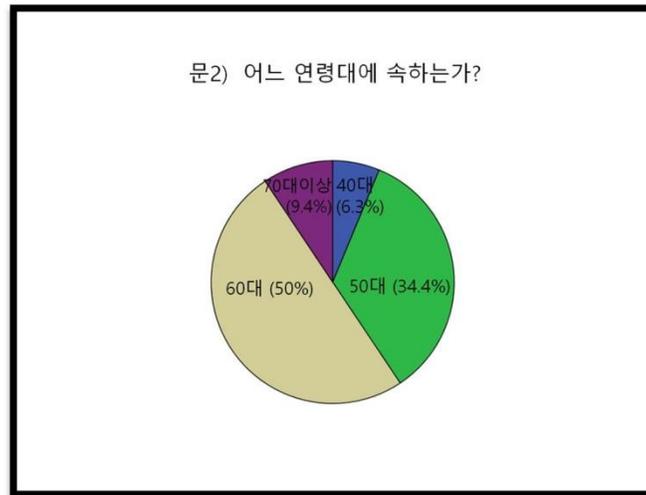
연구자는 설문 결과를 표로 나타내었고,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원형 차트를 통해 퍼센트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그림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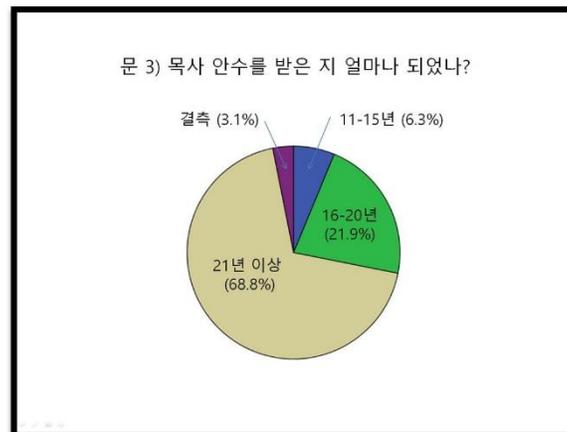
설문 참가자의 3.1 퍼센트는 여자이며, 96.1 퍼센트는 남자이다. 목회자들의 절대다수가 남자임을 고려할 때 남자의 참가율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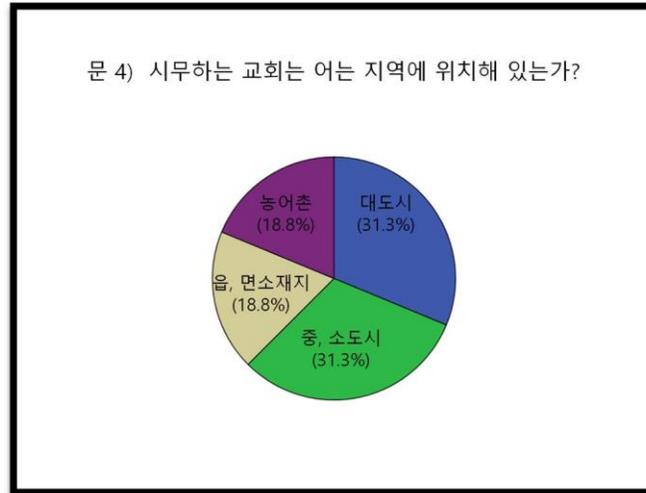
참가자는 40대 6.3 퍼센트, 50대 34.4 퍼센트, 60대 50 퍼센트, 70대 9.5 퍼센트로 전통방식의 장년목회를 경험하고 있으며 다음세대에 대한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젊은 목회자들에 비해 적은 연령대가 참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목사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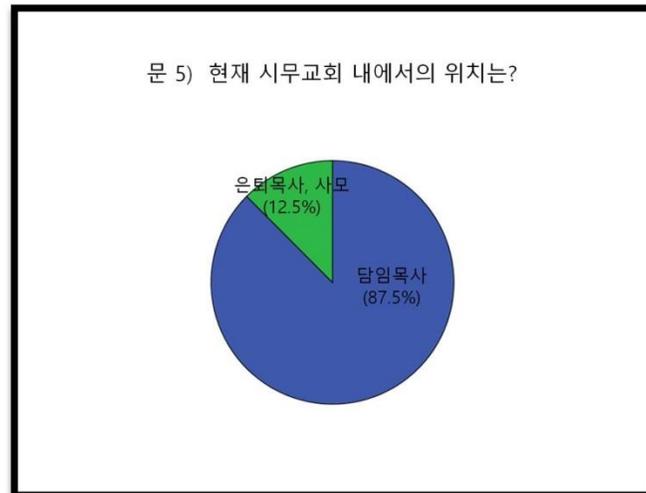
본 설문 참가자 중 목사안수를 받은지 21년 이상이 68.8 퍼센트, 16-20년이 21.9 퍼센트, 11-15년은 6.3 퍼센트로 조사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분들은 평신도는 없고 모두 목회자이거나 그의 아내들이다.

〈그림 4〉 교회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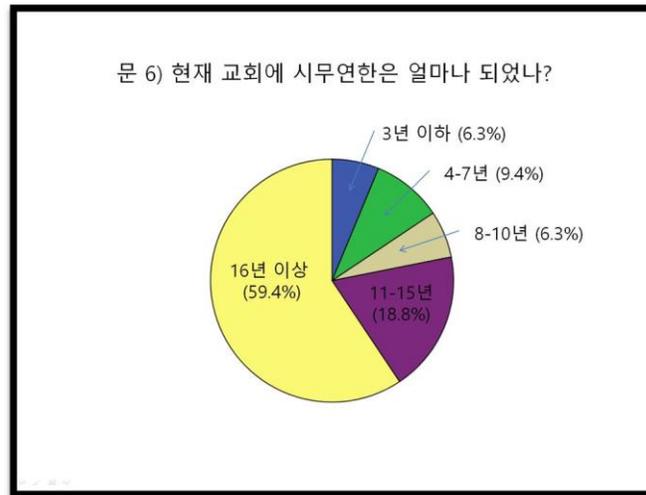
시무하는 교회가 분포하고 있는 곳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중, 소도시에서 사역하는 경우가 31.3 퍼센트, 대도시에서 사역을 하는 경우가 31.3 퍼센트, 농어촌에서 사역을 하는 경우가 18.8 퍼센트, 읍, 면 소재지에서 사역을 하는 경우가 18.8 퍼센트로 조사되었다.

〈그림 5〉 교회 내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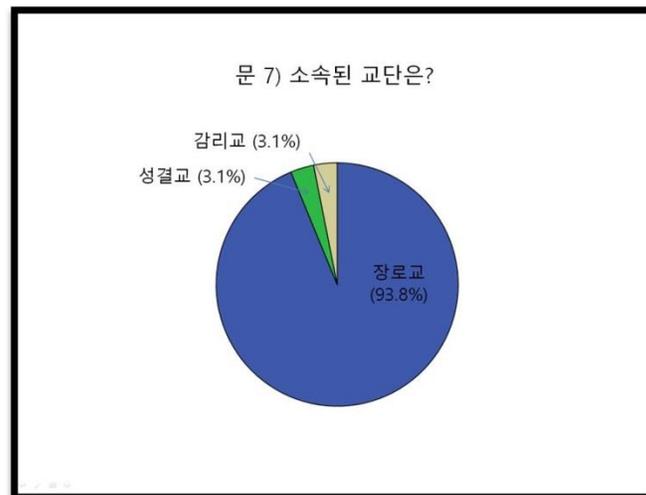
설문 대상이 목회자와 그의 아내들이다. 담임목사가 87.5 퍼센트, 은퇴목사와 사모가 12.5 퍼센트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이 담임목사이거나 또는 현직에서 은퇴하신 이들을 것이다.

〈그림 6〉 시무 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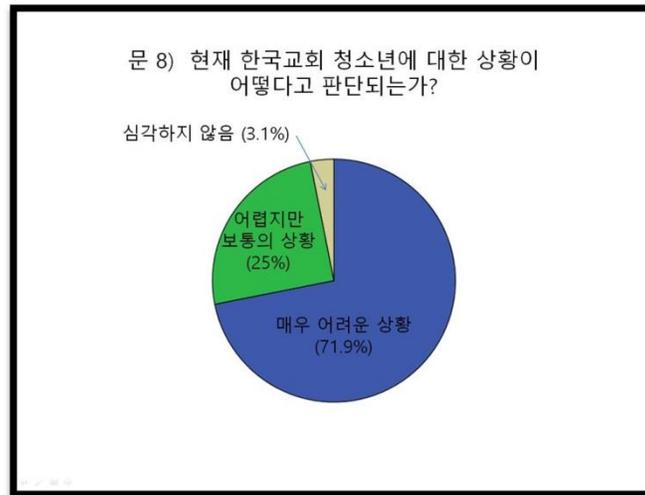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담임목사다. 현재 교회의 시무연한은 16년 이상이 59.4 퍼센트로 응답했다. 시무연한 11-15년은 18.8 퍼센트, 4-7년은 9.4 퍼센트, 3년 이하는 6.3 퍼센트로 절반 이상이 개척하여 16년 이상 담임목회를 하였다.

〈그림 7〉 소속 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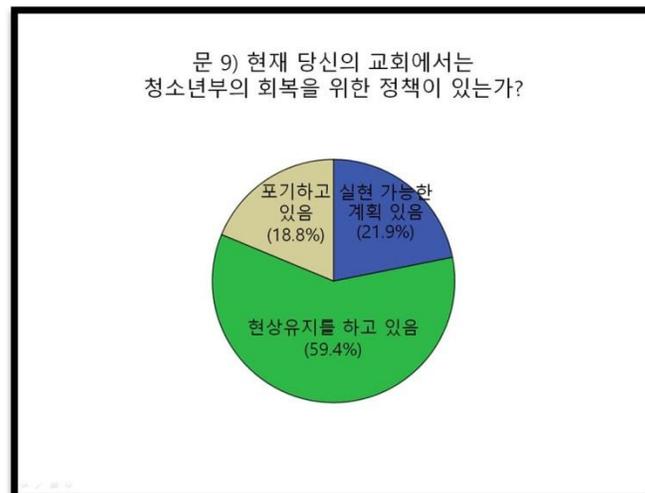
본 설문에 참여자중 장로교 목회자가 93.8 퍼센트였으며 감리교가 3.1 퍼센트, 성결교가 3.1 퍼센트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8〉 청소년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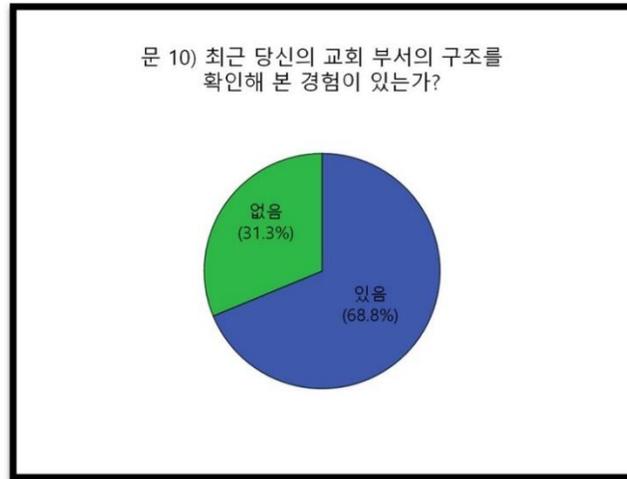
본 설문에 참여한 목회자들 중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대답이 71.9 퍼센트라고 답했다. 어렵지만 보통의 상황이라는 대답이 25 퍼센트, 심각하지 않음이 3.1 퍼센트로 대답을 하였다. 이는 현재의 개교회의 상황을 반영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교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대답이기도 하다.

〈그림 9〉 청소년 회복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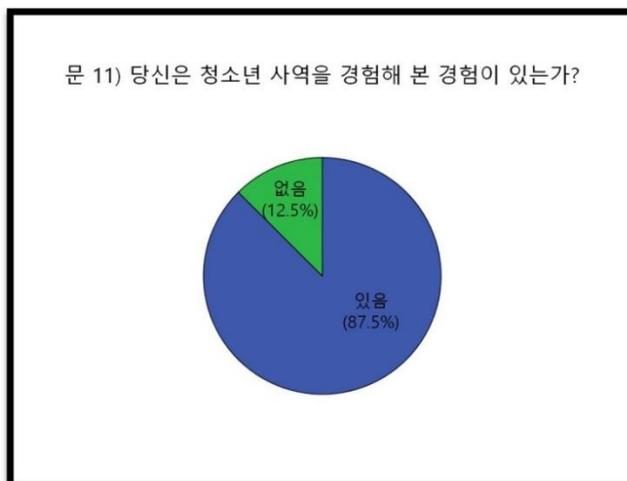
설문에 참여한 목회자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청소년 부를 물었을 때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는 대답이 59.4 퍼센트이고, 실현 계획이 있다는 대답이 21.9 퍼센트, 포기하고 있다는 대답도 18.8 퍼센트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0〉 부서의 구조 확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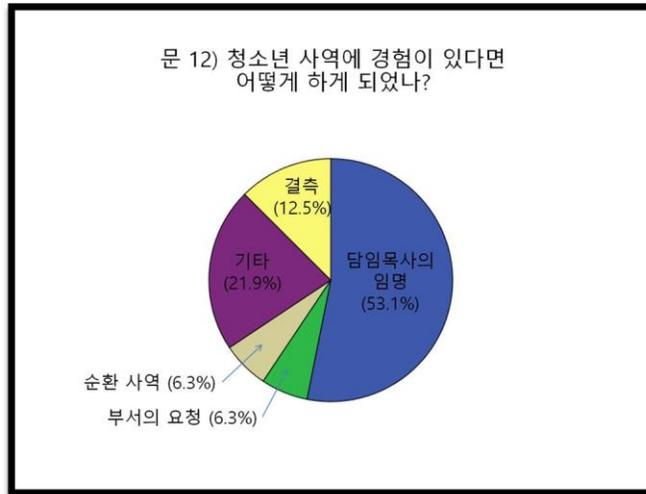
설문에 참여한 목회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부서들에 대한 재정과 부서의 계획과 그 외의 인사들에 대한 확인에 대한 대답으로 구조를 확인해 보았다가 68.8 퍼센트, 없다가 31.3 퍼센트로 조사되었다.

〈그림 11〉 청소년 사역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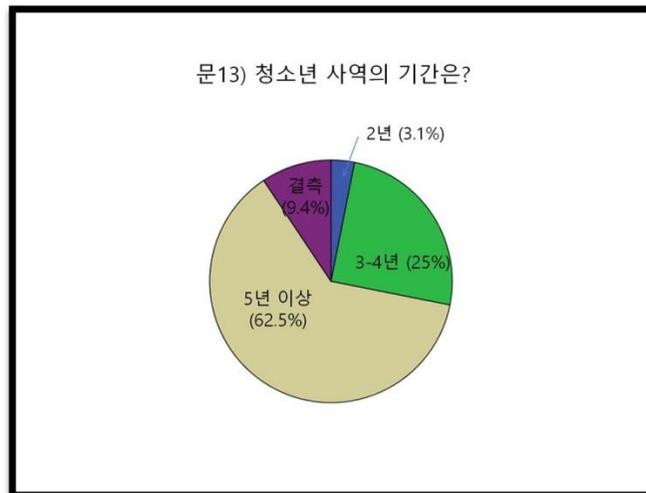
설문조사에 참여한 목회자들 87.5 퍼센트가 청소년 목회를 경험하고 단독목회를 시작했다. 87.5 퍼센트, 청소년 사역을 경험해보지 않은 12.5 퍼센트는 청소년 사역을 경험해보지 않고 단독목회를 시작했다.

<그림 12> 청소년 사역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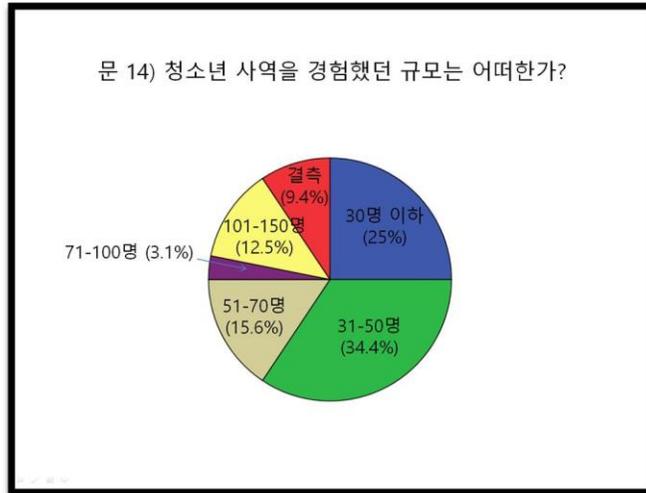
어떻게 하여 청소년 사역의 경험을 하였는가는 담임목사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53.1 퍼센트, 부서의 요청으로 6.3 퍼센트, 순환사역으로 6.3 퍼센트, 기타 21.9 퍼센트 결측 12.5 퍼센트로 나타났다.

<그림 13> 청소년 사역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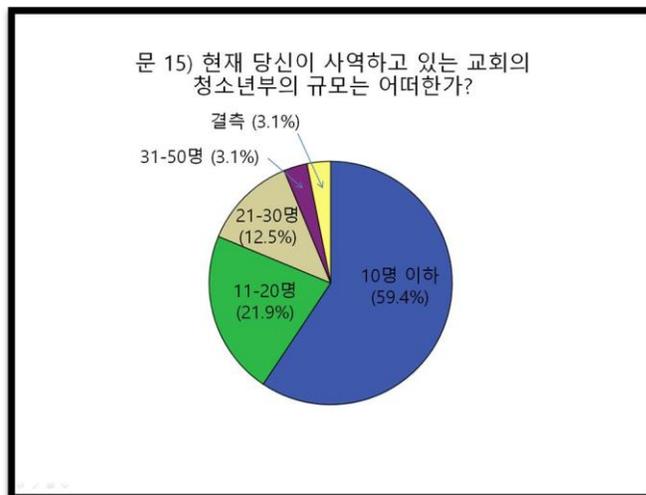
청소년 사역기간은 5년 이상이 62.5 퍼센트, 3-4년 25 퍼센트, 2년이 3.1 퍼센트, 결측이 9.4 퍼센트로 나타났다.

<그림 14> 과거 청소년 사역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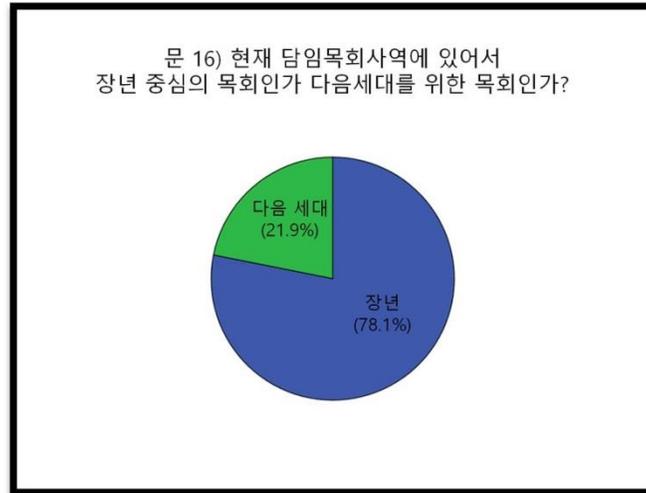
청소년 사역을 했던 규모에 대해서 101-150 명이 12.5 퍼센트, 51-70 명이 15.6 퍼센트, 31-50 명 34.4 퍼센트, 30 명 이하 25 퍼센트, 결측이 9.4 퍼센트로 조사되었다.

<그림 15> 현재 청소년 사역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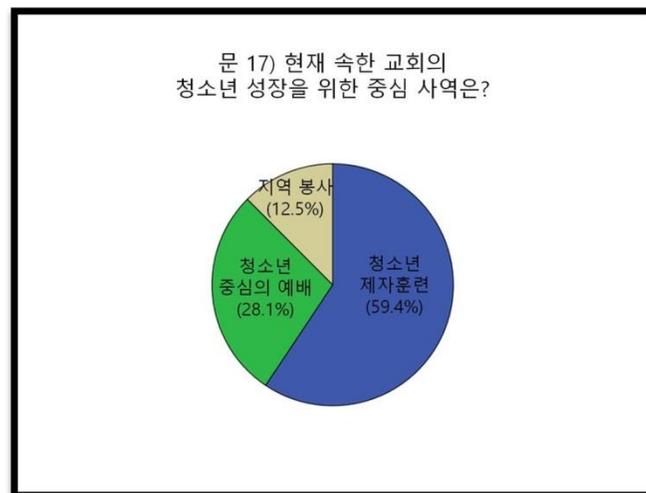
설문에 참여한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교회의 청소년 규모는 10 명이하 59.4 퍼센트, 11-20 명 21.9 퍼센트, 21-30 명이 12.5 퍼센트, 31-50 명이 3.1 퍼센트, 결측이 3.1 퍼센트로 조사되었다.

<그림 16> 목회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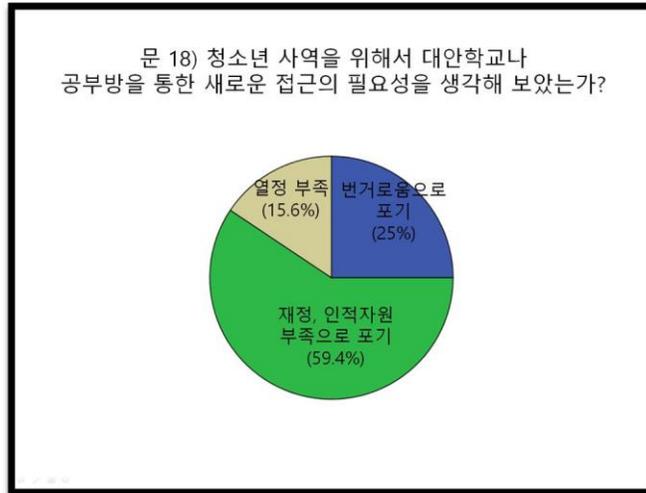
설문 참여자들이 대부분이 담임목사로서 사역하고 있다. 그 결과가 여실히 증명되는 설문이 나왔다. 당신은 장년 중심의 목회인가 다음세대를 위한 목회인가를 물었는데 장년을 중심으로 목회한다가 78.1 퍼센트, 다음세대 중심의 목회가 21.9 퍼센트로 조사되었다.

<그림 17> 청소년 중심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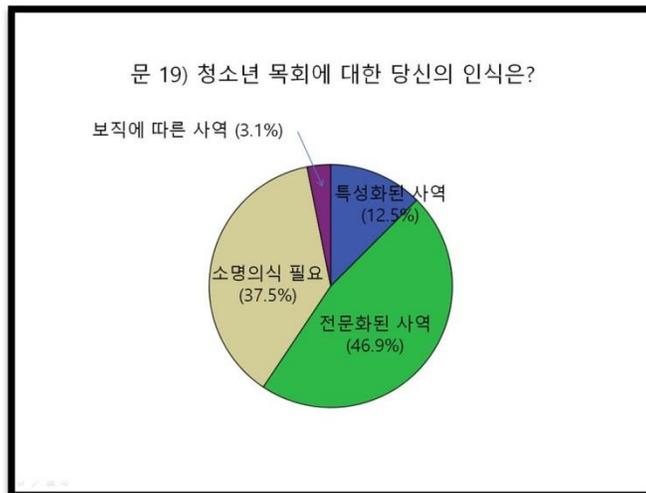
청소년 성장을 위한 중심사역을 물었을 때 제자훈련이 59.4 퍼센트, 청소년 중심의 예배가 28.1 퍼센트, 지역봉사가 12.5 퍼센트로 조사되었다.

<그림 18> 대안학교 필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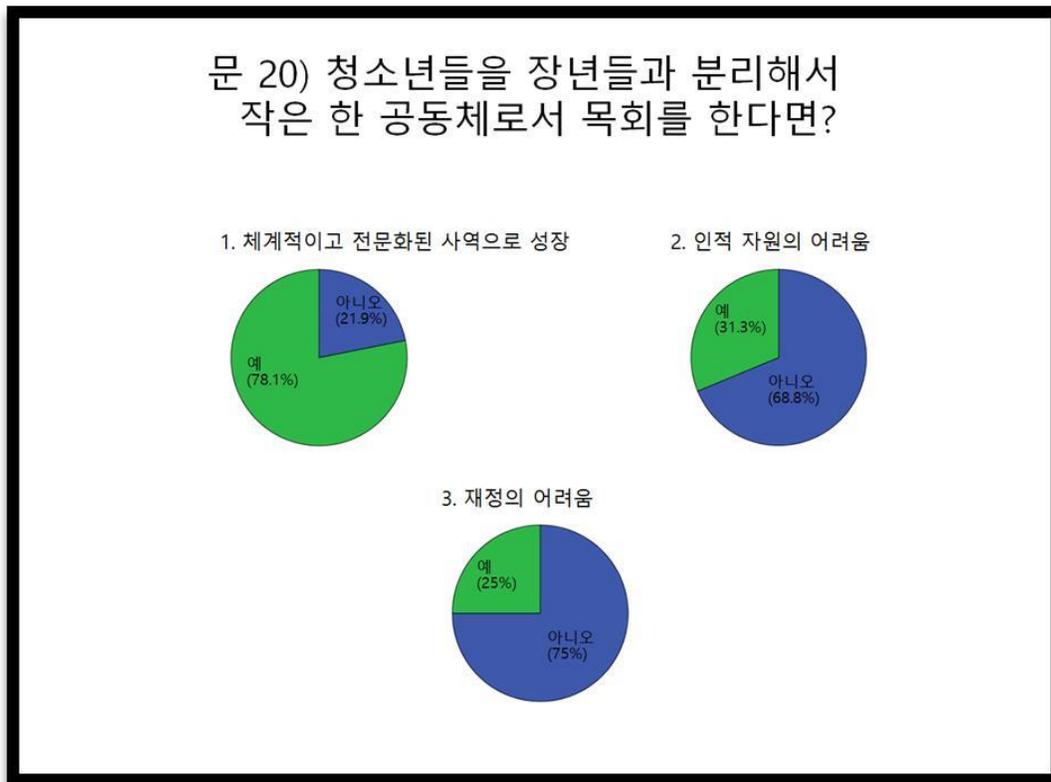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대안학교 설립을 생각해 보았느냐는 질문에 참가자들은 재정과 인적 자원 부족으로 포기가 59.4 퍼센트, 열정 부족으로 15.6 퍼센트, 번거로움으로 포기가 25 퍼센트로 조사되었다.

<그림 19> 청소년 목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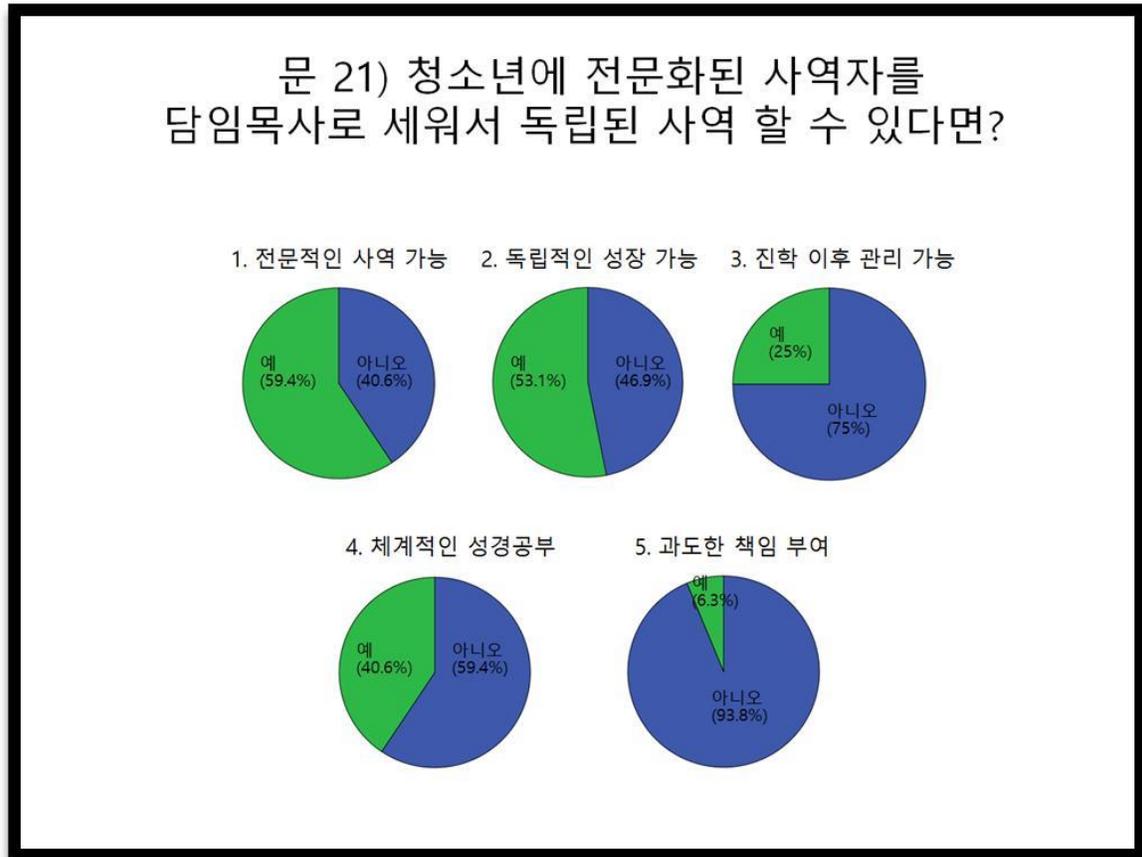
청소년 사역에 대한 인식도는 전문화된 사역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46.9 퍼센트,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는 경우가 37.5 퍼센트, 특성화 된 사역이라는 경우가 12.5 퍼센트, 보직에 따른 사역이 3.1 퍼센트로 조사되었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장년보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특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림 20〉 청소년 분리 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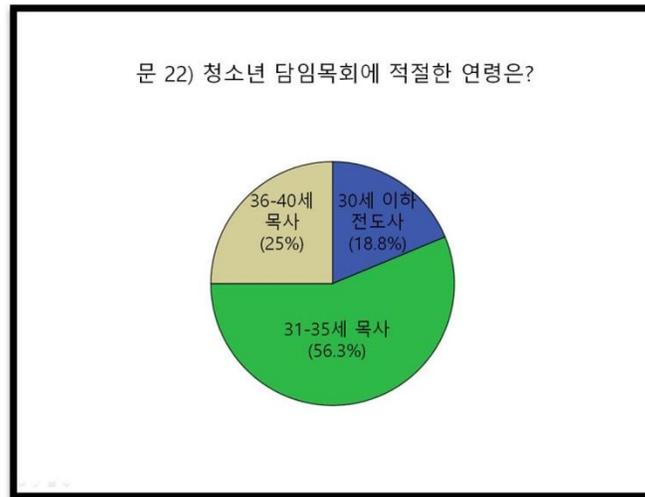
청소년만을 위한 공동체로서 목회를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를 물었을 때 첫째,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사역을 해야만 한다는데 대해서 “예”가 78.1 퍼센트이고, 아니오가 21.9 퍼센트 둘째, 인적자원의 어려움에서 아니오가 68.8 퍼센트이고, 예가 31.3 퍼센트이다. 셋째, 재정의 어려움에서 아니오가 75 퍼센트, 예가 25 퍼센트로 나타났다.

〈그림 21〉 전문화된 청소년 독립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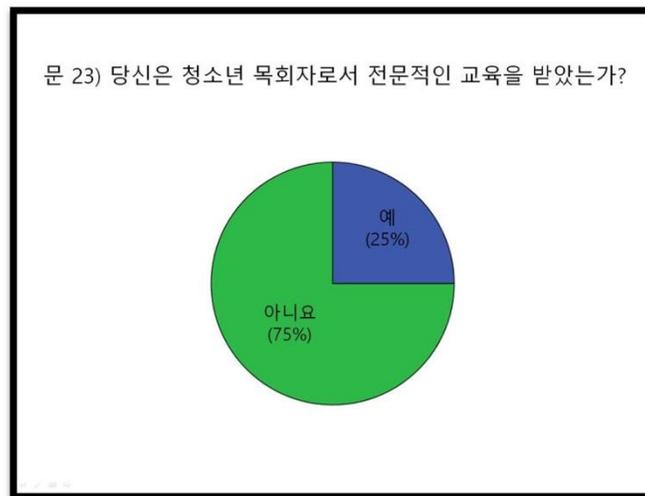
참가자들의 다양한 설문 질문이 조사되었다. 첫째, 전문적인 사역이 가능하다고 예가 59.4 퍼센트, 아니오가 40.6 퍼센트 둘째, 독립적인 성장 가능하다고 예 53.1 퍼센트, 아니오가 46.9 퍼센트 셋째, 진학 이후 관리 가능하다고 예가 25 퍼센트, 아니오가 75 퍼센트 넷째, 체계적인 성경공부가 가능하다고 예가 40.6 퍼센트, 아니오가 59.4 퍼센트 다섯째, 과도한 책임 부여를 하게 된다면 예가 6.3 퍼센트, 아니오가 93.8 퍼센트로 조사되었다. 이는 청소년사역을 기존의 교회에서 독립해 부교역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22〉 청소년 담임목회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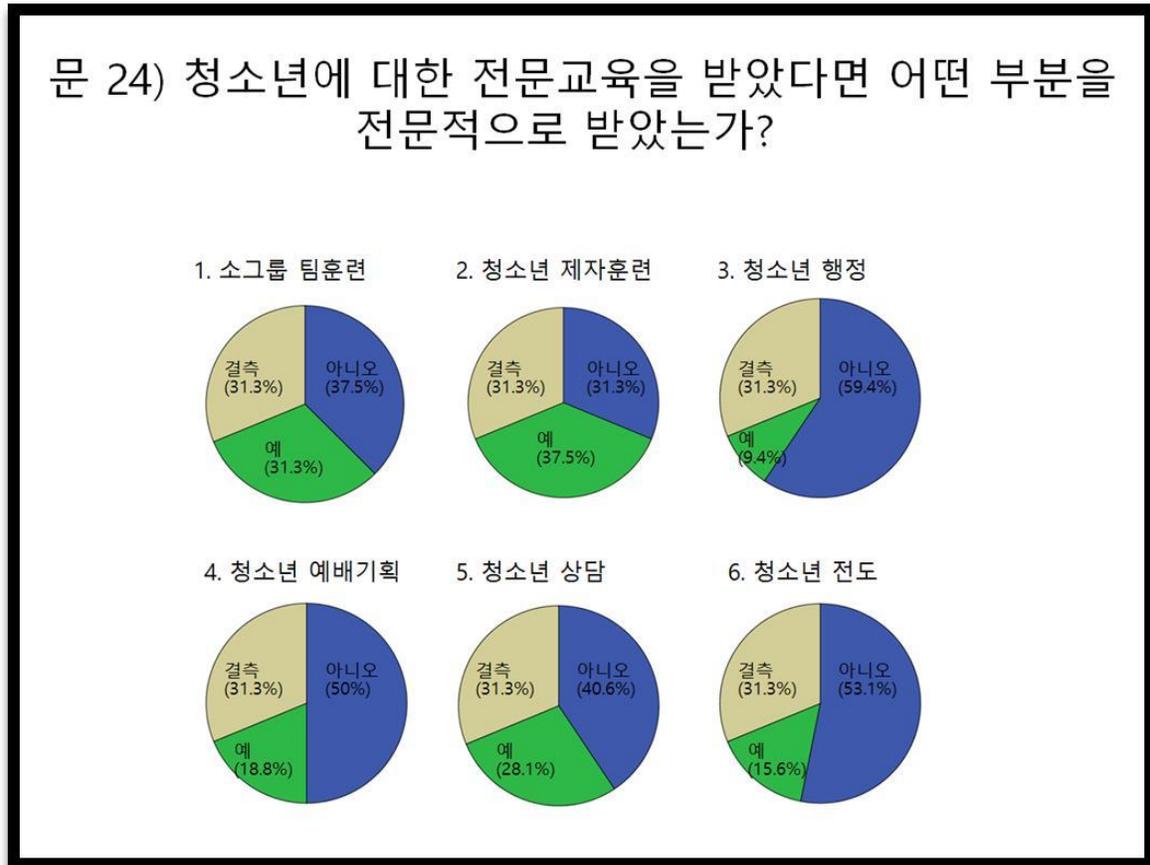
설문조사에 참여자들은 31-35 세의 목사가 56.3 퍼센트, 36-40 세의 목사가 25 퍼센트, 30 세 이하의 전도사가 18.8 퍼센트로 조사되었다.

〈그림 23〉 청소년 목회자 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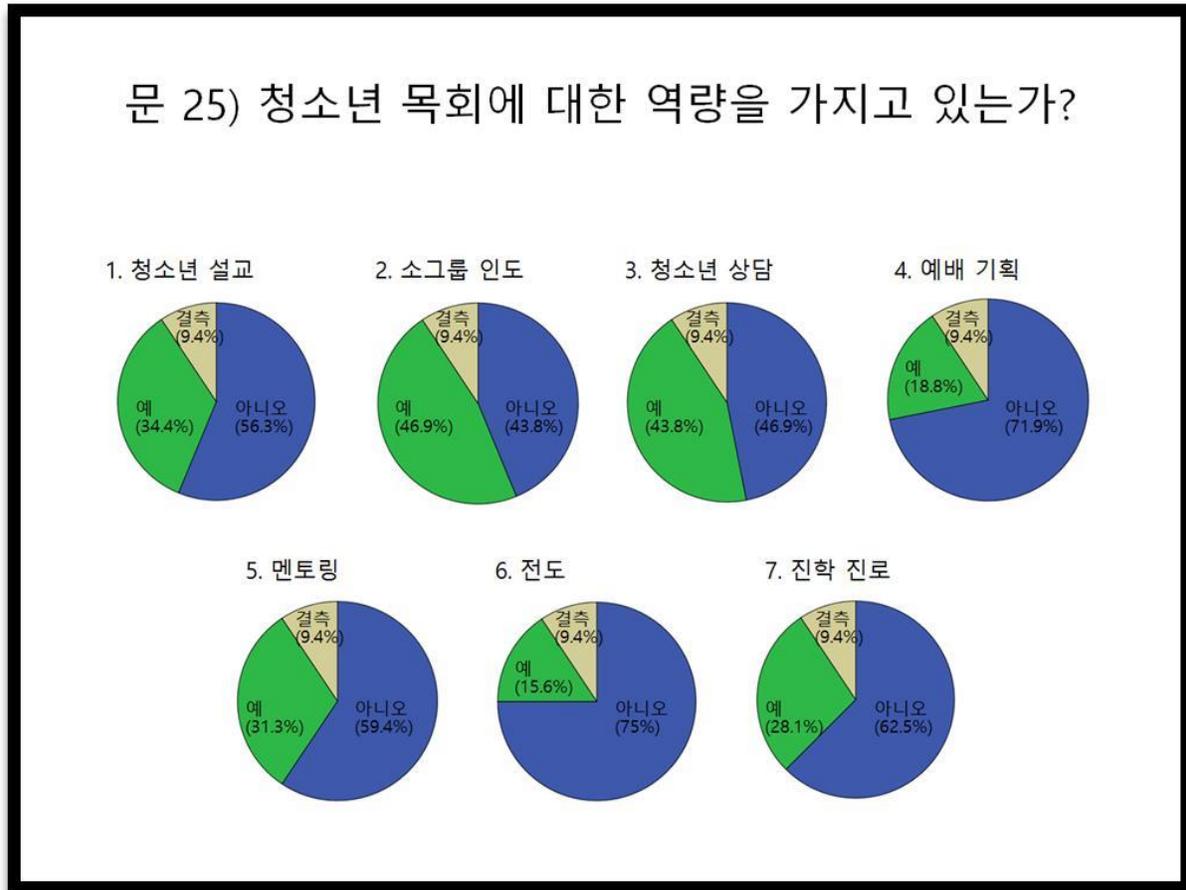
청소년 목회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했느냐는 설문 문항에 대해 아니요가 75 퍼센트, 예가 25 퍼센트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청소년 사역에 대한 담임목사들의 이해도가 낮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4〉 청소년 목회자 교육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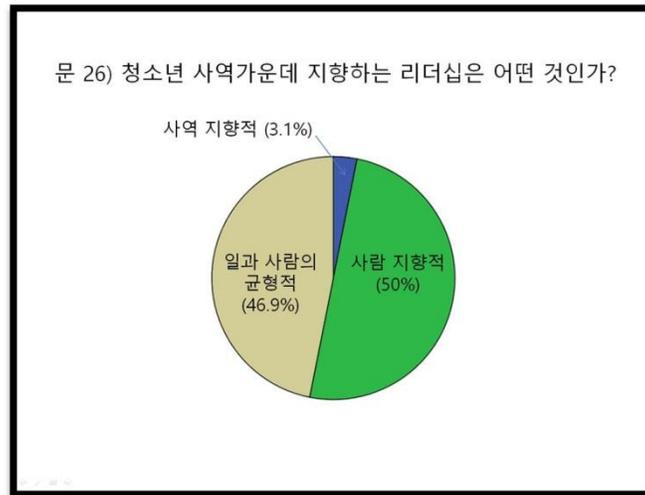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받은 목사들 중에 물었을 때 첫째, 소그룹 팀 훈련 아니오 37.5 퍼센트, 예 31.3 퍼센트 결측 31.3 퍼센트 둘째, 청소년 제자훈련 아니오 31.3 퍼센트, 예 37.5 퍼센트, 결측 31.3 퍼센 셋째, 청소년 행정 아니오 59.4 퍼센트, 예 9.4 퍼센트, 결측 31.3 퍼센트 넷째, 청소년 예배기획 아니오 50 퍼센트, 예 18.8 퍼센트, 결측 31.3 퍼센트 다섯째, 청소년 상담 아니오 40.6 퍼센트, 예 28.1 퍼센트, 결측 31.3 여섯째, 청소년 전도 아니오 53.1 퍼센트, 예 15.6 퍼센트, 결측 31.3 퍼센트로 조사되었다.

〈그림 25〉 청소년 목회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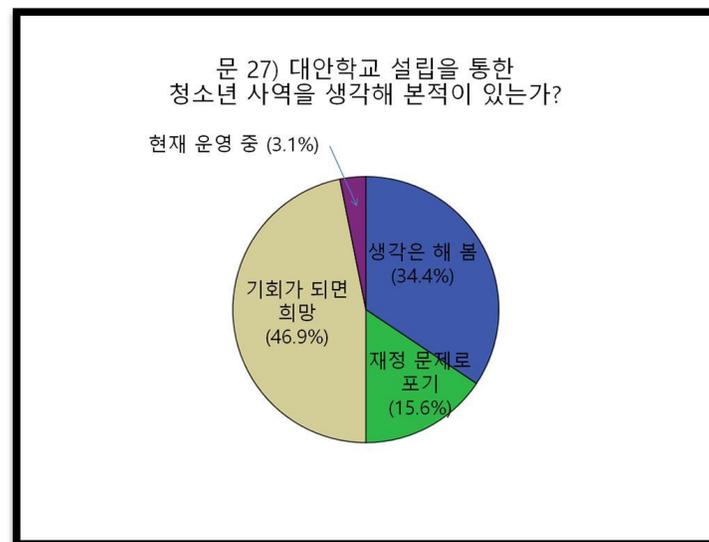
청소년 목회 역량을 8 가지로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하였다. 첫째, 청소년 설교 아니오 56.3 퍼센트, 예 34.4 퍼센트, 결측 9.4 퍼센트 둘째, 소그룹 인도 아니오 43.8 퍼센트, 예 46.9 퍼센트, 결측 9.4 셋째, 청소년 상담 아니오 46.9 퍼센트, 예 43.8 퍼센트, 결측 9.4 퍼센트 넷째, 예배 기획 아니오 71.9 퍼센트, 예 18.8 퍼센트, 결측 9.4 퍼센트 다섯째, 멘토링 아니오 59.4 퍼센트, 예 31.3 퍼센트, 결측 9.4 퍼센트 여섯째, 전도 아니오 75 퍼센트, 예 15.6 퍼센트, 결측 9.4 일곱째, 아니오 62.5 퍼센트, 예 28.1 퍼센트, 결측 9.4 퍼센트로 조사되었다.

〈그림 26〉 청소년 목회 리더십



청소년 사역에 지향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물었을 때 사람지향적 리더십이 50 퍼센트, 사역과 사람의 균형적 46.9 퍼센트, 사역지향적 3.1 퍼센트로 조사되었다.

〈그림 27〉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생각



대안학교를 통한 청소년 사역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 기회가 되면 희망한다. 46.9 퍼센트, 생각해 보았다. 34.4 퍼센트, 재정문제로 포기 15.6 퍼센트, 현재 운영 중 3.1 퍼센트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안학교를 통한 청소년 목회에 대한 소망과 또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다.

3. 설문결과 분석

1) 청소년 사역 경험과 대안학교를 통한 청소년 목회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청소년 사역을 경험한 목회자 중 85 퍼센트는 한국교회 청소년들의 상황을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25 퍼센트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다. 일정 기간의 청소년 사역을 경험한 목회자로서의 견해이기에 간과할 수 없는 결과이다.

2) 교회 내 위치와 대안학교를 통한 청소년 목회에 대한 교차분석

설문에 참여한 담임목사의 75 퍼센트는 한국교회의 청소년에 대한 상황들을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담임목사들의 79 퍼센트는 청소년들을 향한 적절한 회복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한다. 한국교회에서의 담임목사는 교회의 중요한 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실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담임목사들에게서 발견되는 청소년 사역부재는 심각한 현실을 파악하게 된다.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사역에 대한 질문에 담임목사들의 61 퍼센트는 재정적인 면과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담임목사로서의 판단은 한국교회의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담임목사들의 86 퍼센트는 교회 안에서 청소년 사역의 전문가의 필요를 요청하였으며, 담임목사의 82 퍼센트는 청소년 사역의 대안으로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을 원한다.

한국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을 향한 회복 정책으로서 대안학교 설립은 개 교회의 담임목사의 의지와 교인들의 협력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기에 담임목사들을 향한 구체적인 교육과 진행을 위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향후 청소년 사역의 방향을 정하여 줄 수 있다.

3) 교회 시무 연한과 대안학교를 통한 청소년 목회에 대한 교차분석

한국교회의 청소년 사역이 심각함을 강조한 목사들 중의 78 퍼센트는 목회 경험을 16년 이상하였다. 오랜 시간을 목회를 하며, 청소년 사역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25 퍼센트만이 청소년 사역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재정적인 면과 인적인 요소가 해결된다면, 대안학교를 하기 원하는 목사들이 45 퍼센트이다. 이들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쉽지 않으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안학교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에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청소년 사역을 도울 수 있다.

4) 목회자의 연령과 대안학교를 통한 청소년 목회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설문에 참여한 50대 이상의 목사들 중 72 퍼센트는 현재 청소년들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본다. 한국교회의 중요한 정책들은 50대 이상의 목사들에 의해서 결정되기에 50대 이상의 판단과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들의 22 퍼센트만이 청소년 사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교회의 청소년 사역은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50대 이상의 목사들은 교회에서의 경험과 사회에서의 경험이 풍부하기에 그들에 의해 진행될 수 있는 대안학교 설립은 한국교회의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다. 교단차원에서 재정적인 면과 인적자원이 해소될 수 있다면,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사역은 한국교회의 대안이 될 수 있다.

4. 소결론

본 설문에 참여자들 중 평균 16년 이상 목회 경험을 가진 78 퍼센트의 담임목사들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들 가운데 청소년 사역을 경험한 85 퍼센트의 담임목사들에게 미래의 청소년사역에 대해 물었을 때 25 퍼센트만이 긍정적이라는 대답을 하였다. 나머지 60 퍼센트는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86 퍼센트의 담임목사들은 대안학교 설립을 통한 청소년 사역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82 퍼센트의 담임목사들이 답을 하였다. 이는 청소년 사역에 대한 방법론으로서 대안학교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안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인 면과

인적자원들이 필요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50 대 이하에 속한 담임목사들은 가능한 대안학교 설립을 통해서 청소년 사역을 다시 시작하려는 계획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제 5 장

청소년 목회로서의 대안학교 설립 방안

대안학교의 역사는 1958년 풀무학교가 설립됨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설립이 시작되어 2000년대에 이르러 현재 2017년도 인가된 공사립 대안학교는 32개교, 미인가 대안학교는 전국적으로 500여개교로 추산하고 있다.¹⁶⁷ 인가를 득한 대안학교 중 사립은 22개교가 된다.¹⁶⁸ 대안학교는 대부분 대형교회들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중·소형교회에까지 이르러 설립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대안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는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기독교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게 될 때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과 다음 세대가 눈에 띄도록 사라지는 수치를 보면서 다급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찬양의교회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327-17번지에 킹스 기독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학교부지를 구입하고 건축준비를 하고 있다.

1. 킹스 기독교 설립 준비

1) 학교설립 준비의 과정

대부분의 종교 집단들은 그 종교의 세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먼저 다음세대를 교육하기 위하여 학교를 세운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경전과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회당(synagogue)을 운영해 왔고, 불교나 또는 이슬람교가 자신들의 가치와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왔다.¹⁶⁹

167) 김지현, “육하원칙으로 살펴본 기독교의 현주소,” 「목회와 신학」, 311호(2015): 52.

168) 기독교연합신문, “새로운 교육으로서의 패러다임” [온라인 자료]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2&view_type=sm 2018년 2월 1일 접속.

169) 김재용, 「기독교학교의 미래전망」 (서울: 예경커뮤니케이션, 2015), 159.

킹스 기독교학교의 출발은 미인가 대안학교로서 시작된다.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2003년부터 박찬식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학교설립을 하되 교회 교육관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교회와 분리된 독립된 학교로 시작할 것인가를 논의하다가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독립된 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학교설립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장에 박찬식목사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찬양의교회가 위치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은 신도시 개발지역에 인접해 있다. 이때가 2000년 초부터 더 이상 지역의 전도가 신도시라고 해서 무조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본 연구자는 1996년 IMF 직전부터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초기부터 각 교단에서 다음세대 청소년들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안학교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미국을 오가면서 교회들이 설립한 대안학교들을 직접 탐방하여 보고 찬양의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미국 국무성에서 주관하는 교환학생으로 보내면서 더욱 확신이 생겼다.

2) 학교부지 매입

학교부지는 박찬식의 후원으로 2011년 학교부지를 매입하게 되었다. 매입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일대는 분당학군을 배정받는 지역이면서 분당 거주민들이 전원생활을 위해 선호하는 지역이다. 매입 당시의 주변이 전원주택과 다가구 건축이 동시 다발적으로 건축하게 됨으로 인해서 학교를 건축하기까지 진출입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주변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다리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학교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일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건축 허가를 득하게 될 때 매입한 부지의 지목으로 볼 때 건폐율이 40 퍼센트이기 때문에 층당 4백평씩 3층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¹⁷⁰ 전체 학교건축 면적은 1천 2백평을 건축할 수 있는 곳이다.

170) “지목”이란 국가가 땅을 사용목적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하여 표시한 명칭을 말한다.

3) 학교의 주변환경

킹스 기독교학교가 설립 건축될 지역환경은 임야이기 때문에 주변의 수목으로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다. 킹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학교로서 사립에 속하기 때문에 학군을 나누는데 속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지역의 거리에 관계없이 신입생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교주변에는 신도시들이 건설 중에 있거나, 건설 된지 20년 이내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반경 13킬로 내에 가장 멀게는 위례신도시가 자리하고 있고 10킬로내에 수원의 광교 신도시가 자리하고 있다. 3-7킬로 반경 내에는 분당과 판교 신도시, 죽전 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2킬로내 주변에는 약 1만여 세대가 신도시는 아니나 자연취락 지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읍 단위 일지라도 모든 생활권은 분당 신도시에서 이루어진다. 학교가 위치한 곳에서 분당 신도시 중심가까지 자동차로 15분 정도면 진입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안학교 설립 조건을 논할 때 몇 가지 현실적인 배경을 기초로 하게 된다. 풍부한 인적자원, 학교의 재정, 후원조직, 가정으로부터 동떨어진 기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면에서는 킹스 기독교학교는 그 조건에 근접해있다.

2. 킹스 기독교학교 설립배경과 교육이념

1) 교육적 철학 기저

찬양의교회는 킹스 기독교학교를 설립하고 학부모들과 통일조국과 세계를 무대로 삼는 다음 세대인 청소년 들의 교육을 통해 세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기독교 공동체다.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배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킹스 기독교학교의 교육적 철학의 기초이다.

(1) 킹스 기독교학교의 최종의 목적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서의 교육과 훈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 위에서 청소년 학생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롬 14:17)을 누리도록 하는 교육의 가치를 추구한다. 학생들 개인이 갖는 욕망에서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은사로 인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 가는 것이다. 킹스 기독교는 이 목적을 실현해가는데 사용되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2) 킹스 기독교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려는 지향점을 갖는다.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트라이앵글의 구조 가운데서 유기체적인 연합을 토대로 하여 공동체를 이룬다.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의 가치를 세우고, 학교는 교육과 훈련의 장이 된다. 가정은 부모로부터 비롯되는 교육과 그 실천의 현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기독교적인 삶의 스타일(Cheist-centered life styie)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걸쳐서 구성원들을 세워주며 섬김과 나눔을 이루는 공동체의 지향점이 되는 것이다.

(3) 킹스 기독교는 전인적인 통합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균형 잡힌 성장(눅 2:52)을 더불어 이루고자 한다. 학교에 속한 모든 학생들은 전인적인 통합교육을 목표로 하되, 경건한 학문의 통합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교육철학의 이정표를 따라서 학제에 따라 연계된 교과 과정을 수립하고 통합하여 실천한다.

2) 킹스 기독교의 교훈

킹스 기독교의 교훈은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배움의 공동체”아래 삼중적인 교육의 목표를 갖게 된다.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모든 교육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자 1:7)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잠 9:10)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될 때 진정한 의미의 자아

정체성(self-identity)을 알며 능동적인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학습의 태도가 만들어지며 삶의 근본이 이루어지게 된다.

(2)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이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극복하고 이타주의를 고집하는 삶이다. 타자를 향하여 자신과 다름을 인정하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타자의 말을 경청하며 배려와 섬기는 삶을 지향한다.

(3) 창조적인 비전 메이커

기독교 교육은 왜곡된 무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삶을 구현하고 은혜 받은 존재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그로 인한 세상에서의 삶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삶에 헌신하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영역 안에서 학문의 영역을 넓히며 자신을 통해서 이루려는 비전의 성취를 이루는 창조적인 비전메이커가 되는 것이다.

3) 킹스 기독교의 교육 현황

킹스 기독교의 시작은 미인가로 출발하게 된다. 그 이유는 기독교로서의 설립 이념을 살리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4월에 건평 1천 2백평의 건축을 시작하여 2019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1) 인원 현황

<표 6> 킹스 기독교학교 학생 현황

과정별	학급수	학생수	교사수(강사)	기타
유치원	3	30	6	행정 4, 급식 4, 도서관 2, 봉사 3, 버스기사 2
초등학교	12	120	14 (7)	
중학교	6	60	14 (10)	
고등학교	6	60	15 (10)	
합계	27	270	49(27)	교장 1, 교감 1, 교목 1

학교시설에 유치원 3개 학급당 10명씩 총 30명 5세-7세를 정원으로 한다. 초등학교 1-6학년까지 학년별 2학급씩, 총 12개의 학급으로 한다. 중학교 1-3학년까지 학년당 2개 학급씩 3학년, 총 6개 학급을 운영한다. 고등학교 1-3학년 학년당 2학급씩 총 6개 학급을 개설한다.

(2) 시설 현황

<표 7> 킹스 기독교학교 시설 현황

항목	교육지원실	교실	음악실	대강당	다용도실	도서관	식당	운동장	강사실	소그룹실	교장·교감실
개수	4	27	3	1	5	2	1	1	8	11	5

(3) 킹스 기독교학교의 경건 훈련

킹스 기독교학교는 초·중·고등학생들은 누구나 교사와 같이 필히 아침을 경건의 시간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한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QT 책자를 통해서 본문중심의 관찰,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 자신에게 적용 순으로 초등학교 학생 이상은 매일 1회의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된다.

3. 킹스 기독교의 운영과 실제

1) 각 학년의 교육과정

킹스 기독교 교육 과정은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공교육과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진다. 각 과정의 수업시간은 중·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이다. 초등학교는 40분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1) 성경교육

매일 1교시는 QT와 성경 통독 시간이다. QT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QT 교재를 사용하여 반별 담임교사와 나눔을 한다. 때로는 전교생이 셀 그룹별로 묵상하고 나누기도 한다. 성경통독은 1년에 2독을 목표로 매일 10장씩 읽도록 한다.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며 말씀을 묵상하거나 듣고 삶에 적용하면서 마음을 행동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1년에 완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기독교 강요를 완독하도록 한다. 성경적 이해를 돕기 위한 과목들로서 청소년 조직 신학과 한국 교회사, 선교 역사 등을 가르친다.

(2) 예배와 기도회

첫째,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들은 청소년 교회인 킹스 처치에서 매일 새벽기도를 드리게 된다. 둘째, 주 1회 수요일 학교 전체 예배를 드린다. 셋째, 매주 금요일은 오후 5시부터 기도회를 하게 된다.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자신의 학업과 부모와 형제들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유치부와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고등학교 전교생이 같이 대강당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게 된다. 넷째, 월 1회 학년별 헌신예배를 드린다. 헌신예배에서는 음악과 예배 설교자 이외의 순서자는 학생들 가운데서 누구나 미리 정하여 감당하도록 한다.

(3) 공교육 교과목

미인가 기독교 학생들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학교들과 똑같은 공교육의 과목들을 배우지만, 3학년 초 4월에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인증을 취득하도록 한다.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통해서 일반학교 학생들과 같은 공통과목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국사, 과학, 중국어, 음악, 미술, 체육, 1인 1악기, 독서, 기독교 교육으로서 성경, 교회사, 청소년 조직 신학을 공부하게 된다.

(4) 방과 후 자기 주도 학습

방과 후 학교시간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학업을 함으로써 뒤 떨어진 교과목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방과 후 자기 주도 학습이지만, 학생 개인별 학습을 위해서 과목담당 교사가 직접 1대1로 가르치기도 한다. 때로는 교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시 필요에 따라 필요 과목에 본교 강사들을 교사들이 모자라는 부분들의 학습을 지도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외가 되풀이되지 않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대안학교의 역할인 것이다.

(5) 또래 학습

또래 학습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 반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같은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족한 학습을 도와주는 학습이다. 대체적으로 교사가 하는 학습보다도 더 좋은 학습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는 후문[後聞]이 있다.

(6) 현장 학습

킹스 기독교학교에서는 매월 교과목과 연계된 현장에 나가서 직접보고 듣고 실제적인 체험을 하는 현장 학습을 하게 된다. 현장 학습은 어떤 유형의 현장 학습이든 준비되는 대로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장 학습 장소를 먼저 답사하고 학습 때 필요한 준비물들을 학사 일정에 따라서 준비하게 된다. 장소 선택, 참여학생들을 이동할 수 있는 버스 준비, 학습에 쓰일 학습 도구들, 장소에 따른 학생들의 준비물이 준비되어야 한다.

(7) 독서 학습

독서라는 과목은 특정해서 독서만을 하지 않는다. 학과목과 연계된 부분을 담고 있는 내용의 책들을 선택하여 학습자들이 요약하고 주제를 파악하여 개인적인 독후감을 쓰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독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얻게 된 내용들을 소그룹에서 나누게 함으로써 그룹내의 학생들에게 학력증진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

(8) 기독교 과목에 대한 학습

기독교 과목은 성경에 대한 교육으로서 조직 신학과 목과 교회사 과목이 있으며 선교 역사가 있다. 이러한 과목은 신학생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된 교재들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 신학 과목들을 배우지 않게 되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하게 되는 기독교 교육들이 신앙에 조금도 도움이 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힘든 과목들이지만 기독교에서 매 학기 시간표에 올려서 정규 과목화하게 되는 것이다.

(9) 학생교육 이수단위 편성표

<표 8> 킹스 기독교학교 학생교육 이수단위 편성표

교과	교과 (군)	과목	기준 단위	운영 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이수단위	필수 이수단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	신앙	성경 I	5	10	5	5					30			
		성경 II	5	10			5	5						
		성경 III	5	10					5	5				
	국어	국어 I	5	6	3	3					30	15	45	
		국어 II	5	6			3	3						
		국어 III	5	6					3	3				
		독서 I	5	4	2	2								
		독서 II	5	4			2	2						
		독서 III	5	4					2	2				
	수학	수학 I	5	8	4	4					24	15		
		수학 II	5	8			4	4						
		수학 III	5	8					4	4				
	영어	영어 I	5	8	4	4					24	15		
		영어 II	5	8			4	4						
		영어 III	5	8					4	4				
탐구	사회	사회 I	5	6	3	3					18	44	15	35

	과학	사회 II	5	6			3	3			26	15	
		사회 III	5	6					3	3			
		과학 I	5	6	3	3							
		과학 II	5	6			3	3					
		과학 III	5	6					3	3			
		식물학 I	5	4	2	2							
		식물학 II	5	4			2	2					
체육 / 예술	체육	체육 I	5	6	3	3					18	10	
		체육 II	5	6			3	3					
		체육 III	5	6					3	3			
	예술	미술	5	6			2	2		2	12	10	
		음악	5	6	2	2			2				
생활	교양	중국어 I	5	6	3	3					36	16	
		중국어 II	5	6			3	3					
		중국어 III	5	6					3	3			
		플룙	5	선택	2	2	2	2	2	2			2
		피아노	5										
		바이올린	5										
		클라리넷	5										
		첼로	5										
		오케스트라	2	선택									
예배		6	1	1	1	1	1	1					
이수단위 소계				37	37	37	37	35	35	188	116		
창의적 체험활동			24	30	5	5	5	5	5				
학기별 총 이수단위				42	42	42	42	40	40				
학년별 총 이수단위				84		84		80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10) 중·고등학교 영성 교육

중·고등부의 영성 교육과 훈련은 기본적으로 3 단계로 나눈다. 첫째, 1 단계 최초학교에 입학했을 때 1 학년에서는 ‘단절기간’으로 현재에 가진 개인의 관습, 습관, 전통과 같은 것들을 깨뜨리는 기간이다. 둘째, 2 단계는 ‘훈련하는 기간’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바탕에서 영성, 이성, 실력을 겸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하고 확고 부동한 가치관과 목적과 세계관을 확립하도록 하는 기간이다. 셋째, 3 단계는 ‘도약하는 기간’이다. 학문과 직장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다.¹⁷¹ 이 기간 동안 기독교 영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에서

171) 독수리학교, “교육정신” [온라인자료] www.eagleschool.com 2017년 2월 1일 접속.

청년의 단계에 넘어가서도 능히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분별하며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된다.

(11) 킹스 기독교학교 기독교교육 교과과정

<표 9> 킹스 기독교학교 기독교교육 교과과정

학년	중 I		중 II		중 III		고 I		고 II		고 III	
	1	2	1	2	1	2	1	2	1	2	1	2
성경 과목	공동체 훈련	성경통독 신약	하나님 의 구원	성경에 나타난 예배	성경개 관신약	성경개 관구약	웨스트 민스터 소요리 문답 I	웨스트 민스터 소요리 문답 II	청소년 조직신 학 I	청소년 조직신 학 II	기독교 강요 I	기독교 강요 II
수련회	비전캠프 I		영성캠프 I		리더십캠프 I		다락방캠프 II		안디옥캠프 II		바울캠프 II	
훈련	북한산 둘레길		미국대학 탐방		지리산 종주 필리핀 봉사		한라산 종주		중국 상하이 입시정부탐방		졸업여행	
공통 과목	. 매일 큐티. 매일 성구암송 . 성경통독 년 2 회				. 매일 큐티. 매일 성구암송 . 성경통독 년 2 회				. 매일 큐티. 매일 성구암송 . 성경통독 년 2 회			
통합 과목	. 기숙사생은 매일 새벽기도회. 수요일예배. 셀 모임. 토요일 학교. 소그룹 제자훈련											
기타	. 기독교 독서 매월 1 권(고등학교). 학기 성경-데이(중· 고등학교)											

2) 부모에 의한 홈스쿨링 교육

청소년들의 신앙의 문제가 가정의 부모의 책임이다.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크리스천 자녀로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체계적인 배움이 있어야 한다. 이를 킹스 기독교에서는 교목이나 또는 교사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교육을 받게 된다.

(1) 어머니 기도회

킹스 기독교에서는 청소년만이 아니라 선교적인 차원에서 부모의 교육을 주중에 2회 이상을 하게 된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어머니 기도회를 하게 되고 학생들과 식사를 같이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때 어머니 기도회의 공통 기도 제목은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게 된다. 둘째, 킹스 기독교의 교사들과 학교 후원과 학교 내에 설립된 청소년 단독교회인 ‘킹스 처치’(King’s Church)를 위한 기도를 한다. 셋째,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넷째, 학생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 다섯째, 본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선교를 위해서 학교에서 펼치는 선교 사업으로서 방과후 공부방, 지역아동센터를 프로그램화 하여 섬기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공부방과 아동센터에서 청소년들의 학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양성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지역사회에서 도서관 운영이나 또는 학교 프로그램들을 지역교회들과 같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학교에 출강하는 전문 음악 강사들을 지원하는 사역들, 지역내의 작은 교회들은 중·고등부, 청년부가 숫자적으로 작기 때문에 단독으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럴 때 지역사회 교회들이 연합하여 학교에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학교 교사들이 강사로 섬기는 사역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하게 된다.

(2) 가정 예배

킹스 처치에서는 가정 예배가 교회의 기본 셀이 되도록 한다. 또한 가정은 교회 신앙 교육과 학교에서의 기독교 교육을 인큐베이팅(Incubating)하는 곳으로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하는 교육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유대인의 교육의 모체가 가정인 것을 모티브로 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가정을 셀 화 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불신자가 학부모가 됨으로 전도되어 자녀교육을 위한 홈 스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일지라도 교육을 먼저 받고 자녀를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홈스쿨링 교사 교육

학부모들을 매주 목요일 오전 10 시에 모여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교육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들의 신앙은 물론 불신자 학부모라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배우고 부모가 학점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심을 다하게 된다. 킹스 기독교에서는 홈스쿨링 교육이 매우 중요한 교육시스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연계를 해야만 자녀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자녀의 문제가 크리스천 부모에게 있다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부모가 세상적인 욕심으로 자신의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정도 포기하면서라도 성공시키겠다는 지나친 욕심의 결과는 다음세대의 위기를 가져오는데 아킬레스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정의 부모를 통해서 하게 함으로써 부모와 세대간의 간극을 극복하도록 하며 기독교 교육 또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 교회들의 다음세대 문제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간과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원인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회복하려는 방법으로 학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교육함으로 학교에서는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은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해 줌으로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구조의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실행된다. 교회, 학교, 가정을 통해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의 구조를 이루게 된다.

4. 킹스 기독교학교의 교사역할

킹스 기독교학교는 교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학교 내에 청소년 중심의 교회인 킹스 처치에서 학교와 교회와의 사이에서 가교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학교의 교사로서 남다른 소명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안위가 먼저가 아닌 학생들을 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소중한 영혼으로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학교와 교회를 오가며 기독교 교육은 물론 신앙적인 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

1) 소명자로서의 교사

교사는 평신도를 뛰어넘어 교회의 전임 사역자와 같다. 학교의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교사의 의무이다. 킹스 기독교학교는 일반학교와 같이 교과목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의 바탕에서 일반 과목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성경과목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에 버금가는 영성과 성경적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킹스 기독교학교 교사는 전임 사역자와 같이 자신에게 맡겨진 학생들의 신앙을 위하여는 소명으로 투철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기존의 공교육이 무너진 이유 가운데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첫 번째는 교육정책의 실패와 두 번째는 교사가 학생들을 향하여 가져야 할 소명의식의 결여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일반적인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학생들을 신앙과 교육을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 기독교사는 일반적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첫째, 상황의 명령이다(마 5:48, 살전 4:3, 뱀전 1:16). 이는 교사의 신앙에 대한 부르심이다.¹⁷² 기독교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성화되는 존재이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 최초 사회생활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가르치는 것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한 가르침 또한 크게 작용하게 된다. 둘째, 선교의 명령이다(마 28:18-20, 행

172) 박상진, 「기독교 학교 교육론」, 121.

1:8).¹⁷³ 교사는 가르치는 존재로서의 사명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을 향한 교사로서 학생들은 선교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교사는 복음으로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학원 복음화를 통해 제자 삼는 것이다. 셋째, 문화 명령이다(창 1:28, 골 1:16-18).¹⁷⁴ 학교는 또 다른 문화이다. 기독교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교회와 같이 기독교 교육을 하지만 교회와는 다르다. 반면에 학교라고 할 때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문화가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공교육의 과목들도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기독교 세계관의 바탕에서 학생들에게 교수하는 곳이다. 넷째, 이웃사랑의 명령이다(암 5:24, 마 22:39, 요 13:34).¹⁷⁵ 교사는 학생 상담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이다. 그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기독교적인 학습을 통한 새로운 교육의 방향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교육자이므로 청소년들을 향한 소명자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2) 기독교 교사로서의 연수 방법

기독교 교사들일지라도 일반 공교육의 교과목을 기독교 가치관과 목적과 세계관에 의해서 교수를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교사가 교수하는 방법을 새롭게 연수하여 분명하고 명확한 토대가 만들어지도록 하기까지는 많은 연수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사로서 신학대학교의 대안학교 교사 교육과에서 시행하는 연장 교육이나, 또는 대안학교 연맹에서 시행하는 교사 연수를 통해서 기독교 가치관과 목적과 세계관, 또한 성경적인 능통함, 또는 기독교 영성과 인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하게 된다.¹⁷⁶ 연수에 임하는 교사의 자세와 태도는 첫째, 기독교사로서 배우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 교사로서의 열정이 확보되어야만 기도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배워가면서 대안교육을 위한 교사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된다. 교사로서 처음

173) Ibid., 122.

174) Ibid., 123.

175) Ibid.

176) 2017년 서울장신대학교에 대안학교 교사교육학과가 최초로 개설되었으며 상명대학교 대학원에 같은 과정이 석사과정으로 개설되었다.

임용되기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목을 위한 연수가 오랜 시간 지속되게 된다. 설사 공교육의 교원자격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해서 교수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과목에 대한 연수를 충분하게 받아야만 한다. 그렇게 준비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기독교적 학문을 가지고 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는 것으로만은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약한 것이 기독교적 가치관과 목적,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관과 목적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학습효과 내지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교회들은 학교라는 제도권 내에서 진정한 기독교인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탁월하게 이 시대의 리더들로 인재들을 키워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교육하려는 것이다. 이런 학생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5. 킹스 처치 청소년교회의 멤버십

킹스 기독교학교의 설립을 위해서 산고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찬양의교회는 학교 내에 청소년 중심의 교회인 킹스 처치를 설립하도록 허락하였다. 멤버십은 오직 청소년들만으로 구성되는 교회는 아니다. 교회의 주 구성원들이 청소년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킹스 처치의 멤버십들 가운데 학교 교사들도 출석하게 된다. 또한 학부모들도 같이 출석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헬퍼(helper)가 되는 것이다.

1) 청소년 멤버십

킹스기독교학교의 설립자로서 본 연구자는 기존의 학교 내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음세대교회를 학교 내에 설립하려 한다. 이렇게 할 때 기존의 교회에 얽매이지 않는, 청소년만을 위한 교회로서 지식, 말씀, 그리고 영성훈련을 겸비한 다음세대 교회를 단독으로 학교 내에 세우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목회 패러다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교회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목양의 최우선순위는 장년부다. 이에 반해 킹스처치는 다음 세대를 우선하는

교회다. 한국교회는 청소년부는 장년 재정을 축내는 정도로만 인식해 왔다. 본 연구자는 역발상으로 아예 다음 세대를 우선으로 하는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다. 결국 킹스처치는 청소년을 주 멤버십으로 하는 브릿지(bridge)프로그램과 청소년 예배, 청소년 선교, 청소년 단기선교, 수련회 등, 청소년 기독교문화의 새로운 로드맵(road map)을 통한 학습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교회로 세워질 것이다.

2) 청소년 교회의 교사들로서의 멤버십

대안학교에서 청소년 학습을 돕고 지도하는 교사들이 킹스처치에 오면 학교 교사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들을 주일에만 만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존의 교회학교 교사 정도의 역할로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성경교사는 물론 제자훈련과 멘토의 역할과 인생의 멘토 역할을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의 교회 내에서 전임 사역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은 언제라도 교사들과 학문적인 가르침을 위한 사제의 관계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신앙생활을 위해서 친숙하며 가까운 영적 관계를 통한 인도자의 역할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과 학문과 신앙과 인생을 공유하며 그들을 성공적인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가도록 하는 역할을 위해서 교사들이 청소년 교회 멤버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3) 청소년 교회의 장년 멤버십

학부모들이 청소년 교회에 출석하도록 독려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을 향한 멘토의 역할과, 돕는 이로서 필요를 채워주는 사명을 갖고 킹스처치의 멤버십으로 동참케 하기 위함이다. 킹스처치의 장년들은 대부분이 학생들의 부모들이다. 이들이 청소년교회에서 감당해야할 역할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학교에서 부여한 역할만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들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장신대에서 실시한 ‘한국 교회교육의 위기진단과 대안연구’ 설문 조사에 의하면, 교회학교 위기 해결을 위해서 부모들의 기독교적 자녀교육관 정립이 시급하다가 47.7 퍼센트, 교회와 가정과 학교를 연결하는 기독교 생태계 회복이 36.6 퍼센트로 조사되었다.¹⁷⁷

자녀의 신앙은 부모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해야하는 이유는 이 시대를 리드해가는 크리스천 인재로 세우려는 목적을 갖고 출발하기를 원해서다.

6. 소결론

연구자는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1984 년에 학교를 세워서 청소년들을 전도하겠다는 기도를 처음 했다. 이후 1988 년 4 월에 교회개척을 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사역은 현실에 밀려서 장년들을 중심으로 사역해오게 되었다. 그 후 1996 년 처음 교회를 건축하였던 교회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교회를 건설사에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그 동안 잊어버렸던 학원복음화를 위한 비전을 다시 찾게 되었다. 그때부터 기독교학교를 설립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 2011 년도에 매입한 곳에 학교 건축을 앞두고 있다.¹⁷⁸ 그러나 연구자와 같이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학교를 설립하려는 목적은 청소년들이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사회현상으로 인한 문제와 교육부의 교육정책의 실패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출석하던 청소년들조차도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교회 현실이 다음세대가 세대의 간극을 이어주기 위해서 받쳐주어야 하지만, 그렇게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들의 존재의 여부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해보고자 절박함으로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것이다. 누구든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말씀을 증거하던 변화시키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시대는 탈기독교화가 시속 300 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열차 같이 질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177) 국민일보, “한국 교회교육의 위기 진단과 대안연구” [온라인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list.asp?sid1=min> 2018년 2월 2일 접속.

17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327-17, 327-18, 산 119-1의 7,300평.

극복할 목적으로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학교 내에 청소년 교회인 킹스 처치를 설립하여 청소년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철저한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신앙교육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기독교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할것이다. 분명한 설립정신과 운영의 철학을 분명히 하되, 운영진들과 교사들이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시대가 요구하는 학문의 전당이 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청소년교회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킹스기독교 학교는 교회와 동떨어진 체제가 아니라 학교는 청소년교회의 선교의 축이 되는 것이다.

제 6장

결론

본 논문은 한국교회가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교세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특히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 인구절벽으로 인한 문제와 교육정책의 실패로 인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의 공부를 위해서 교회를 포기하거나 신앙을 떠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의해서 출발하게 되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측의 통계를 보면 1994년에 65만명이던 데서 2025-30년이면 현 수준대로 가면 절반인 34만 9000명이 된다고 보고하였다.¹⁷⁹ 이러한 침체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대안학교 설립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 이르게 된 것이다.

본 연구자는 다음 세대인 청소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들의 노력과 열정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과 대안학교를 연구분석 하면서 대안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선교의 장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안학교를 20여년 전 부터 준비해왔었다. 논문 5장에서 소개하였듯이 선교적 차원에서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재정적인 준비를 해왔다.

한국선교에 있어서 선교사들이 최초 대안학교를 선교차원에서 설립하여 기독교 토착화를 통한 성장을 이루게 하였다. 현재의 대안학교는 과거 문맹이거나 시대상황을 모르던 한국 기독교 선교초기 때와 다르게 청소년들은 국가 교육제도인 공교육의 붕괴로 인해 사교육의 열풍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한 청소년들의 위기를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공교육은 물론 기독교 교육을 함으로써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물론, 학교 내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다.

179) 국민일보, “후퇴한 신앙 대잇기 반전 이끌 인천상륙작전 필요,” [온라인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list.asp?sid1=min> 2018년 2월 2일 접속.

청소년의 시기에 기독교 교육을 받게 됨으로 대학에 진학해서도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문화를 접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청소년들을 더 이상 신앙을 잃지 않는 것은 물론 다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대안학교를 통한 청소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대안학교를 설립한다고 원하는 만큼의 선교의 기대치가 채워지리라는 성급함은 금물이다. 그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대학에 진학했을 때 대안학교 출신들이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타나야 그때부터 선교의 열매들이 되는 것이다. 중·고등부 때 열심을 다했던 학생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캠퍼스에서 접하게 되는 세상적 문화와 학문들로 인해서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과 훈련받아야 하지만 현재의 청소년들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개 교회에서 보다 대안학교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기독교 교육과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신앙의 결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신앙교육은 학교라는 제도권내에서 학점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강제적인 부분도 있다.

대안학교 내에서 교사의 교육으로만 청소년 교육을 다할 수는 없다. 학교를 설립한 교회와 학교와 부모들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트라이앵글(Triangle)의 구조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교육하게 된다. 교육은 학교에 전적으로 맡겨서는 또 다시 실패하는 기독교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공히 교회와 학교와 가정에서 행하게 되는 홈스쿨링을 통한 균형과 조화로운 교육을 하게 될 때 크리스천 인재들을 키울 수 있다. 이는 유대인의 교육처럼 신앙계승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교육의 틀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교육은 학교에서 교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의 틀을 깨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들도 교사들에게 배워서 홈스쿨링을 통해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과목들에 대한 실력향상을 갖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자녀의 신앙만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교육까지도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의 교육은 자녀의 학점과 연결되기 때문에 누구나 열심으로 성경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은 물론 부모들의 신앙까지 성장하게 된다. 부모의 신앙성장은 청소년교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 후원자가 될 수 있다. 학부모가 여러

가지의 형편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홈스쿨링이 어려울 때는 대부와 대모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리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한다.

대안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대학에 진학했을 때 일반 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진학하게 된 사례보다는 현저히 신앙을 지키게 된다는 것은 물론, 그들이 대안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배운 성경을 실력으로 교회 교사로 봉사하게 될 때 남다른 결과들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안학교 출신들은 악기들을 재학 중에 배움으로 교회의 교회 예배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헌신을 하게 된다. 또한 자신들이 청소년기를 대안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멘토(Mentor)가 되어주기도 한다. 대안학교 출신들은 교회에서 중요한 헌신들을 하고 있었다.¹⁸⁰

본 연구자는 대안학교 내에 청소년 교회를 독립적으로 설립하려 한다. 이는 다음세대를 위한 것이다. 장년부가 주장하는 사역을 탈피하여 청소년들이 목적이 되는 청소년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려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년부가 철저하게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 사역이 실험성이 아닌 실제적인 사역이 되도록 할 것이다. 획일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똑 같은 교회들의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고등부가 중심이 되는 예산편성과 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 내 외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로 나가는 것이다.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paradigm)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게 되면 과거의 장년부 중심의 목회와는 다르게 이들 또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선 순환적 평신도 사역이 이루어지는 청소년 교회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현재의 역삼각형의 교회들이 정삼각형의 교회구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역을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단지 방법론으로 치우친다거나 달리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청소년 선교사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안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 설문에 참여한 담임목사들의 79 퍼센트는 청소년들을 향한 적절한 회복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한다. 한국교회에서의 담임목사는 교회의 중요한 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실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담임목사들에게서 발견되는 청소년 사역부재는 심각한 현실을 파악하게 된다.

180) 이혁재,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운영 실재와 교육적 사명” 12.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사역에 대한 질문에 담임목사들의 61 퍼센트는 재정적인 면과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또한 담임목사들의 86 퍼센트는 교회 안에서 청소년 사역의 전문가의 필요를 요청하였으며, 담임목사의 82 퍼센트는 청소년 사역의 대안으로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을 원한다고 조사되었다.

APPENDIX A
부록 A

설문서 (한글)

대안학교를 통한 청소년 사역을 위한 설문 문항

(해당 문항에 O 해 주세요.)

(개인적인 질문)

1. 성별:

- ① 남 ② 여

2. 어느 연령대에 속하는가?

- ① 30-39 세 ② 40-49 세 ③ 50-59 세 ④ 60-69 세 ⑤ 70 세 이상

3. 목사 안수를 받은지 얼마나 되었나?

- ① 4 년 이하 ② 5-10 년 ③ 11-15 년 ④ 16-20 년 ⑤ 21 년 이상

4. 시무하는 교회는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가?

- ① 대도시 ② 중 소도시 ③ 읍 면 소재지 ④ 농어촌

5. 현재 시무교회 내에서의 위치는?

- ① 담임목사 ② 부목사 ③ 교육목사 ④ 기타_____

6. 현재 교회에 시무 연한은 얼마나 되었나?

- ① 3 년 이하 ② 4-7 년 ③ 8-10 년 ④ 10-15 년 ⑤ 15 년 이상

7. 소속된 교단은?

- ① 장로교 ② 성결교 ③ 침례교 ④ 감리교 ⑤ 순복음 ⑥ 기타_____

(청소년 목회에 대한 질문)

8. 현재 한국교회 청소년에 대한 상황이 어떻다고 판단하는가?
 ①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② 어렵지만 보통이다 ③ 심각한 상황이다
9. 현재 당신의 교회에서는 청소년부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 있는가?
 ①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② 현상유지를 위하고 있다. ③ 포기하고 있다.
10. 최근 당신의 교회 부서의 구조를 확인해 본 경험이 있는가?
 ① 있다 ② 없다
11. 당신은 청소년 사역을 경험해본 경험이 있는가?
 ① 있다 ② 없다
12. 청소년 사역에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하게 되었나?
 ① 담임목사의 임명 ②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③ 순환 사역에 의해서 ④ 기타_____
13. 청소년 사역의 기간은?
 ① 1년 이하 ② 2년 이하 ③ 3-4년 이하 ④ 5년이상
14. 청소년 사역을 경험했던 규모는 어떠한가?
 ① 30명이하 ② 50명이하 ③ 70명이하 ④ 100명 ⑤ 150명 이상
15. 현재 당신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청소년부의 규모는 어떠한가?
 ① 10명 이하 ② 20명 이하 ③ 30명 이하 ④ 50명 이하 ⑤ 70명 ⑥ 100명 이상
16. 현재 담임목회사역에 있어서 장년 중심의 목회인가 다음세대를 위한 목회인가?
 ① 장년 중심 ② 다음세대
17. 현재 속한 교회의 청소년 성장을 위한 중심 사역은?
 ① 청소년 제자훈련 ② 청소년 중심의 예배 ③ 해외 선교 ④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18.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대안학교나 공부방을 통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았는가?
 ① 고려해 보았으나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했다. ② 재정적인 면과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포기했다.
 ③ 열정의 부족으로 포기했다. ④ 준비 중에 있다.

(청소년 담당 목회자대한 질문)

19. 청소년 목회에 대한 당신의 인식은?

- ① 특성화 된 사역을 해야 한다 ② 교회의 부서를 넘어 전문적인 사역을 해야 한다
- ③ 청소년 목회를 위해서 전문가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④ 예비목회를 위한 과정 ⑤ 보직에 따른 사역자

20. 청소년들을 장년들과 분리해서 작은 한 공동체로서 목회를 한다면? (해당사항 모두 선택)

- ①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사역을 통해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 ② 인적인 자원의 어려움이 올 수 있다.
- ③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21. 청소년에 전문화된 사역자를 담임목사로 세워서 독립된 사역을 할 수 있다면?

(해당사항 모든 선택)

- ① 전문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
- ② 독립적인 사역을 하게 되면 더욱 성장을 할 수 있다.
- ③ 독립적인 행정을 하게 되면 진학 이후에도 관리할 수 있다.
- ④ 체계 있는 말씀공부가 가능해진다.
- ⑤ 과도한 책임이 부여된다.

22. 청소년 담임목회에 적절한 연령은?

- ① 30 세 이하로서 전도사 ② 31-35 세 의 목사
- ③ 36-40 세의 목사 ④ 41-45 세의 목사

BIBLIOGRAPHY

참고자료

1. 단행본 및 번역서

- 강영택 외 7명. 「종교교육론」. 서울: 학지사, 2013.
- 고직한 외 12인. 「청년사역자 핸드북」. 서울: 홍성사, 2011.
- 기독교세계관 교육센터의 4개 단체. 「십대사역세우기」. 서울: 예수전도단, 2014.
-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기독교대안학교 가이드」.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 김광석. 「청소년 제자훈련 이야기」.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 김국환. 「기독교 교육 사역론」. 서울: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93.
- 김도일 외. 「다음세대 신학과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6.
- 김두현. 「신앙유산 서약」. 경기도: Way-Global, 2007.
- 김만형. 「SS 혁신보고서」. 서울: 에듀넥스트, 2008.
- 김성수, 오경석. 「청소년 사역매뉴얼」. 서울: 생명의 양식, 2012.
- 김성애. 「기독교 청소년 교육」. 서울: 비전북 하우스, 2014.
- 김성진. 「바로 그 교회」. 서울: 콤파스출판사, 2015.
- 김영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세계관」.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10.
- 김인중. 「안산 동산고 이야기」. 서울: 두란노, 2010.
- 김인환. 「부모 멘토링」. 서울: 두란노, 2013.
- 김재웅. 「기독교학교의 미래전망」,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5.
- 김창완 외. 「기독교학교의 미래전망」.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5.
- 김청봉. 「교회학교의 미래」. 경기도: 이레미디어, 2004.
- 김희권.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 나상진. 「교회학교 프로그래밍」. 서울: 생명의양식, 2009.
- 라준석. 「온누리교회 청년부 비전과 사역」. 서울: 두란노, 2000.

- 목회와 신학 편집부. 「통계로 본 한국 교회」.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기독교출판사, 1983.
- 박상진. 「교사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 _____. 「기독교 교육과정 탐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7.
- _____. 「기독교학교 교육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6.
- _____. 「기독교학교, 역사에 길을 묻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3.
- _____. 「기독교학부모 교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5.
- 박상진 외.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육성과를 말한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 박상진 외.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6.
- 박상진 외. 「학교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2010.
- 박은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 배평모. 「울타리 없는 학교 거창고등학교 이야기」. 서울: 한걸음, 2000.
- 손인수. 「한국교육사연구(하)」. 서울: 문음사, 1998.
- 손종국. 「청소년교육」. 서울: 예루살렘, 2000.
- 송삼용. 「교사는 또 다른 목회자」. 서울: 개혁주의영성아카데미, 2011.
- 송오현. 「감성교육」. 서울: SEC, 2014.
- 송형석. 「위험한 관계학」. 서울: 청림출판사, 2010.
- 안희목. 「교회 다시 꿈꾸다」.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5.
- 양금희 외. 「기독교학교와 교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3.
- 이무석. 「성격」. 서울: 두란노, 2014.
- 이병환, 김영순. 「대안교육의 실천과 모색」. 서울: 학지사, 2009.
-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 1998.
- 이영숙. 「자녀훈계법」. 서울: 두란노, 2012.
- 이원규.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서울: Kmc, 2010.
- 이정미. 「기독교적 교육과정 산책」.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5.

- 이정현. 「청소년 사역자를 일으키라」. 서울: 베다니출판사, 2010.
- 이종태. 「대안교육이해하기」. 서울: 민들레, 2008.
- _____.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서울: 민들레, 2002.
- 오형국. 「칼뱅의 신학과 인문주의」. 파주: 학수정보, 2006.
- 유영업. 「크리스천 부모학교」.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0.
- 이해명. 「한국교육개혁은 왜 실패하였는가」. 서울: 교육아카데미, 2005.
- 임경근. 「기독교학교 이야기」. 서울: SFC, 2012.
- 임종학. 「청년 목자」. 서울: 기독교대학인회 출판부, 2014.
- 정웅섭. 「현대 교육목회의 전개」. 서울: 한국신학 연구소, 2010.
- 정인석. 「청소년 심리학」. 서울: 채동문화사, 1996.
- 정정숙. 「기독교교육사」. 서울: 베다니, 1999.
- 정태기. 「내면세계의 치유」. 서울: 규장, 2007.
- 제이슨 송. 「유쾌한 학교 행복한 아이들」. 서울: 스텝스톤, 2009.
- 조병호. 「한국기독교청년 학생운동 100 년사 산책」. 서울: 땅에 쓴 글씨, 2005.
- 조성국. 「문화를 알면 교육이 보인다」.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 조성의. 「청소년 부흥의 광맥을 뚫어라」.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5.
- 조용만 외 2인. 「일제치하의 문화 운동사」. 서울: 민중서관, 1970.
- 최대복. 「청년들이 몰려온다」.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0.
-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 홍민기. 「교사의 힘」. 서울: 규장, 2005.
- _____. 「중 고등부 혁명」. 서울: 규장, 2006.
- Arnold, J. Heinrich. 「생각지킴이」. 임종원 역. 서울: 진흥, 2006.
- Barna, George. 「21 세기 교회를 붙잡아라」. 탁영철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9.
- Brale, James W. 「기독교 학교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한국기독교진흥원 역. 서울: CUP, 2006.
- Crabb, Larry. 「인간 이해와 상담」.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16.

- Deuink, James W. Carruthers, Brian A. 「기독교학교 운영원리」. 존스연구소 역. 경기도: 도서출판 존스북, 2010.
- Devries, Mark. 「청소년사역 이제 가정이다」. 오화선 역. 서울: 한국 성서유니온, 2001.
- Drescher, John M. 「어린이가 들어야 할 7 가지 말」. 김인화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4.
- Fields, Doug. 「청소년 사역을 시작한 처음 두 해」. 마영례 역. 서울: 디모데, 2009.
- Gaebelein, Frank E. 「신본주의 교육」. 이창국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 George, Carl F.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4.
- Greene, Albett E. 「기독교세계관으로 가르치기」. 현은자. 정희영, 황보영란 역. 서울: CUP, 2000.
- Grenz, Stanley J.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신원하 역. 서울: IVP, 2007.
- Jones, Bob. 「기독교 교육」. 존스연구소 역. 경기도: 도서출판 존스북, 2009.
- Kinnaman, David.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선숙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5.
- Levine, Madeline. 「내 아이를 위한 심리 코칭」. 김소정 역. 경기: 문학동네, 2015.
- Malphurs, Aubrey. 「침체된 교회 부흥전략」. 서울: 아가페, 2000.
- Motyer, J. A. and Wenham, G. A. Carson, D. A. France, R. T. 「IVP 성경주석」. 신현기 역. 서울: IVP, 2015.
- Niebuhr, Reinhold.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한우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06.
- Schultz, Glen. 「하나님 중심 교육」. 배길수 역. 경기: 도서출판 존스북, 2011.
- Smalley, Gary.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 심영우 역. 서울: 홍성사, 2006.
- Sogaard, Viggo. 「현장사역 조사연구 방법론」. 김에녹 역. 서울: CLC, 2011.
- Stevens, Poul.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최기숙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0.
- Sutherland, Neil. Alexander. 「서머힐(Summerhill)」. 박창현 역. 서울: 거암, 1989.
- Thomas, Gary. 「자녀양육의 영적 역동성을 회복하라」. 윤종석 역. 서울: CUP, 2014.
- W. Sire, James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김현수 역. 서울: IVP, 2012.
- Walling, Terry. 「전환기 길을 찾는 사람들」. 박종윤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Warren, Rick.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2005.
- Watson, Thomas.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조계광 역. 서울: 규장, 2008.

Zuck, Roy B. 「청소년 교육」.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2. 정기간행물

강정홍. “다음세대 훈련으로 일으켜 세우라.” 「교사의 벗」, 2016년 6월, 24-29.

강진구.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교육.” 「교육교회」, 2013년 6월. 14-26.

고직한 김형국. “청년 선교 교회의 본질 회복에 달렸다.” 「목회와 신학」, 2012년 8월. 24-25.

구제홍 전경호. “부모는 자녀의 영적교사가 되어야 한다.” 「목회와 신학」, 2010년 5월. 99-102.

기독교교육연구원. “교회학교의 발자취.” 「교육교회」, 2016년 3월. 10-26.

김성중. “청소년 감소 현상과 교회교육의 대처방안.” 「목회와 신학」, 2017년 7월. 46-50.

김지현. “육하원칙으로 살펴본 기독교의 현주소.” 「목회와 신학」, 2015년 5월. 52-55.

김찬현. “세상이 아닌 성경적인 시각으로 가르치는 학교.” 「목회와 신학」, 2010년 5월. 96-97.

김항안. “기독교 대안학교 모델을 만든다.” 「월간 목회」, 2015년 11월. 94-97.

김효준. “가르침의 스타일.” 「교육교회」, 2015년 5월. 18-26.

김희자. “프로 부모를 육성하는 교회와 가정의 연대.” 「목회와 신학」, 2017년 7월. 51-55.

박상진 외. “어떤 기독교를 세울 것인가.” 「목회와 신학」, 2015년 5월. 42-46.

_____. “학교가 웃을 수 없는 이유.” 「교육교회」, 2016년 4월. 10-17.

박찬식. “21세기 신 유목민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교회.” 「목회와 신학」, 2010년 7월. 76-81.

신형섭. “다음세대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목회 현장.” 「목회와 신학」, 2014년 02월. 60-64.

장신근. “다음세대를 살리는 기독교교육 생태계를 복원하라.” 「교육교회」, 2016년 1-2월. 16-25.

정서학. “교육의 사역과 교회의 협력.” 「목회와 신학」, 2017년 7월. 75-79.

한준상 외. “청소년사역 어떻게 할까.” 「목회와 신학」, 1999년 8월. 50-55.

현수철. “대전명성교회 비전트립.” 「목회와 신학」, 2015년 10월. 90-91.

_____. “할렐루야교회 뉴젠공동체.” 「목회와 신학」, 2015년 11월. 102-104.

3. 분석 연구조사

(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2015 10 대 이슈 및 사회의식 조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6.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2013.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 분석리포트」. 서울, 도서출판 URD, 2013.

한미준 꺽립조사리서치.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 서울: 두란노, 2005.

4. 주석류

라형택. 「신약장절 원어분해 성경 5, 디모데전후서」. 서울: 로고스, 1999.

_____. 「신약 장절 원어분해 성경 5, 골로새서」. 서울: 로고스, 1999.

번역위원회. 「신. 구약 원어 연구해설」. 서울: 뽀엘성서간행사, 1986.

Beasley-Murray, G. R. 「36 요한복음」. 이덕신 역. 서울: 솔로몬, 2001.

Bounce, William D. 「46 목회서신」. 채천석. 이덕신 역. 서울: 솔로몬, 2001.

Klein, Ralph W. 「10 사무엘상」. 김경열 역. 서울: 솔로몬, 2004.

Lincoln, Andrew T. 「42 에베소서」. 배용덕 역. 서울: 솔로몬, 2006.

Murphy, Roland E. 「22 잠언」. 박문재 역. 서울: 솔로몬, 2001.

Nolland, John. 「35 누가복음」. 김경진 역. 서울: 솔로몬, 2001.

O'Brien, Peter T. 「44 골로새서」. 정일오 역. 서울: 솔로몬, 2008.

Owens, John Joseph. 「구약 장절 원어분해 성경 1, 창세기」. 유계석. 최봉환 역. 서울: 로고스, 1994.

_____. 「구약 원어 분해 성경 3, 신명기」. 유계섭. 최봉환 역. 서울: 로고스, 1995.

_____. 「구약장절 원어분해 성경 4, 사사기」. 유계섭. 최봉환 역. 서울: 로고스, 1995.

_____. 「구약 원어 분해 성경 5, 사무엘상」. 라형택 역. 서울: 로고스, 1995.

_____. 「구약장절 원어분해 성경 10, 잠언」. 최봉환 역. 서울: 로고스, 1996.

Wenham, Gordon J. 「2 창세기」. 윤상문. 황수철 역. 서울: 솔로몬, 2001.

4. 역사

승실대학교, 「승실대학교 90 년사」. 서울: 승실대학교, 1987.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한국주일학교 연합회 30 년사 1967-1997」. 부산: 독일인쇄, 1997.

학생신앙운동(SFC), 「학생신앙운동 20 년사」. 서울: 학생신앙운동, 1971.

5. 학위논문

김명자. “기독교대안학교 교사의 교육체험에 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5.

손종국. “청소년교육의 준거와 사역원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정병완.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원리와 그 실천방안”.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9.

최승희. “기독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1.

6. 학회 보고서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2013.

이혁재.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운영실재와 교육적 사명”, 2014 년 4 월 27 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발표.

7. 보고서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 100 회 총회절차 및 보고서」, 2015 년

8. 브로셔

김신아. “와 우리교회 Vision Plan”

박만규. 「우리마음 N 꿈」. 경기도: 우리기독교학교, 2017.

배창돈. “대광교회 역사” 2017년 7월 10일, 10.

유용국.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브로셔”

최대웅. “와우리교회를 소개합니다”

9. 교회주보

이규현, “주일 통계”. 2017년 7월 9일, 은혜의동산교회 주보.

10. 온라인 자료

교육목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위한 교육 패러다임” [온라인자료].

<http://www.edupck.net> 2018년 03월 17일 접속.

국민일보. “후퇴한 신앙 대잇기 반전 이끌 인천상륙작전 필요”, [온라인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list.asp?sid1=min> 2018년 2월 2일 접속.

_____. “한국 교회교육의 위기 진단과 대안연구” [온라인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list.asp?sid1=min> 2018년 2월 2일 접속.

기독교연합신문. “새로운 교육으로서의 패러다임” [온라인 자료]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2&sc_sub_section_code=S2N8&view_type=sm 2018년 2월 1일 접속.

_____. “정부도 알지 못하는 대안학교 통계” [온라인자료]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2&sc_sub_section_code=S2N8&view_type=sm 2017년 8월 1일 접속.

_____. “청소년 회복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인터넷자료]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2&sc_sub_section_code=S2N8&view_type=sm 2016년 8월 14일 접속.

독수리학교. “교육정신” [온라인자료] www.eagleschool.com 2017년 2월 1일 접속.

우리기독교학교. “학교소개” [온라인자료] <http://urischool.or.kr> 2017년 9월 2일 접속.

_____. “교육과정” [온라인자료] <http://urischool.or.kr> 2017년 9월 2일 접속.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학교의 발자취” [온라인자료] www.7grace.kr 2017년 9월 3일 접속

_____. “교육과정” [온라인자료] www.7grace.kr 2017년 9월 3일 접속.

_____. “우리의 비전” [온라인자료] www.7grace.kr 2017년 9월 3일 접속.

자유기독교학교. “학교소개” [온라인자료] www.ptdaekwang.or.kr 2017년 9월 8일 접속.

평택대광교회. “교육과정” [온라인자료] www.ptdaekwang.or.kr 2017년 9월 8일 접속.

_____. “학교소개” [온라인자료] www.ptdaekwang.or.kr 2017년 9월 8일 접속.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교육과정” [온라인자료] www.kicschool.com 2017년 9월 6일 접속.

_____. “학교연혁” [온라인자료] www.kicschool.com 2017년 9월 5일 접속.

IRB APPROVAL
IRB 승인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November 17, 2016

Chan Sik Park

IRB Exemption 2678.111716: A Study on Youth Ministry through Alternative Schools with a Focus on the Church of Praise

Dear Chan Sik Park,

The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has reviewed your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s (OHRP)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regulations and finds your study to be exempt from further IRB review. This means you may begin your research with the data safeguarding methods mentioned in your approved application, and no further IRB oversight is required.

Your study falls under exemption category 46.101(b)(2), which identifies specific situations in which human participants research is exempt from the policy set forth in 45 CFR 46:101(b):

- (2) Research involving the use of educational tests (cognitive, diagnostic, aptitude, achievement), survey procedures, interview procedures or observation of public behavior, unless:
- (i) information obtained is recorded in such a manner that human subjects can be identified, directly or through identifiers linked to the subjects; and
 - (ii) any disclosure of the human subjects' responses outside the research could reasonably place the subjects at risk of criminal or civil liability or be damaging to the subjects' financial standing, employability, or reputation.

Please note that this exemption only applies to your current research application, and any changes to your protocol must be reported to the Liberty IRB for verification of continued exemption status. You may report these changes by submitting a change in protocol form or a new application to the IRB and referencing the above IRB Exemption number.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exemption or need assistance in determining whether possible changes to your protocol would change your exemption status, please email us at irb@liberty.edu.

Sincerely,

G. Michele Baker, MA, CIP
Administrative Chair of Institutional Research
The Graduate School

LIBERTY
UNIVERSITY.

Liberty University | Training Champions for Christ since 1971